

성도의 벗 7 1986

말 일 성 도 예 수 그 리 스 도 교 회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에는 서로 가르치며
선도하라. (교리와 성약 43 : 8)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6차 연차 대회 보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6차 연차 대회 보고

1986년 4월 5~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에서 열린 대회 일정 및 말씀

“보 초, 밤새 이상없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오늘 날 우리가 살고 있는 복천년이 오기 직전의 상태와 관련하여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4월 5일 토요일 아침에 열린 제156 연차 대회의 일반 총회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시온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모로나이가 권고한 바와 같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고 다음에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내부의 그릇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오늘 날 이 세대를 재앙처럼 휩쓰는 죄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것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더 큰 유혹과 타격과 어려움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성적인 불순결은 내부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우리가 몰몬경을 읽고 그 가르침에 유의하지 않는 한 온 교회가 정죄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몰몬경에 대해 더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몰몬경은 이제까지 또는 아직까지

개인적인 공부나 가족에게 가르치는 일 또는 선교 사업의 핵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벤슨 대관장은 교만이라는 주제로 말씀했다.

“교만이란 본질적으로 인생에 대하여 ‘당신의 뜻’이라기 보다는 ‘나의 뜻’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걸음의 폭을 넓히는 일을 상당히 훌륭하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걸음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며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며 몰몬경을 공부하여 하나님께서 정죄를 견우시고 자신을 겸손케 하여 교만을 없애므로써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벤슨 대관장은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고무시키는 말씀을 했다.

벤슨 대관장은 이들 동안의 대회를 감리하였으며 대회의 절정을 이루는 성회에서 벤슨 대관장은 회원들에 의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요, 대관장으로” 지지되었다. 성회는 일요일 오후 일반 총회 때 있었다.

지지가 끝난 뒤 벤슨 대관장은 감동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상이며 모범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남자와 여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위대성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따랐느냐하는 것입니다. 몰몬경은 “무엇이라도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라.”고 썼습니다. (모로나이서 7:13, 17) “우리는 그러한 표준을 이용하여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음악을 들으며 어떤 오락물을 관람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판단합니다. 더욱 그리스도처럼 됩시다.” 하고 벤슨 대관장은 당부했다.

또한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네 명이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약 3년간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지 행사를 집행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이 말했다. 새로운 총관리 역원은 유타주 출신인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조지 아이 캐넌 장로,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와 플로리다주 출신인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다.

또한 본부 청년 회장단에 새로운 보좌가 지지되었다. 제인 비 맥런 자매는 패트리시아 티 홀랜드 자매가 회장단에 해임됨에 따라 아메스 지 켈 자매와 머린 제이 털리 자매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

4월 4일 금요일 낮에는 지역 대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그날 저녁에는 지도자 모임이 있었다. *

성도의 빛 7 1986

"예언자의 말씀이 실린 성도의 빛을 읽읍시다"

표지 설명: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6차 연차 대회 광경

International Magazine © 1986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판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고문:
칼로스 이 애시, 텍스 니 퍼베가,
조지 피 리, 제임즈 엠 패러모어

통권: 제245호, 제22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바-1135
발행일: 1986년 7월 1일(격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김 영 철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38-6832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010041-31-514091

인쇄인: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71KO PRINTED IN
KOREA 7/86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
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례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6차 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7. 주님의 택하심 받은 예언자.....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10.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시 돌아 오십시오.....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 13. 남미에 세워지는 왕국.....엠 러셀 벨라드 장로
- 16. 부활에 대한 사도의 증거.....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18.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윌포드 지 에드링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 19. 1985년도 통계 보고서.....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 20. 복지에 대한 책임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있습니다.....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 23. 원리와 프로그램.....글렌 엘 페이스 감독
- 26. 주님의 방법으로.....러셀 엠 넬슨 장로
- 30.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지 원리
인간의 복지를 위한 영원한 계획.....로버트 디 해일즈 감독
- 34. 금식의 법.....엘 톱 페리 장로

신권회

- 37.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되었으니".....닐 에이 맥스웰 장로
- 40. 의무에 대한 부름.....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43. 전도의 문제.....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47. "주님의 청년"들에게.....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51. 와서 참여하십시오.....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55. "경건하고 깨끗한".....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59. 행복.....잭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 64. 내 영혼의 일.....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67. 선견지명이 있는 계획-귀중한 약속.....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71. "기운을 내어".....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75. "날날이 가르치며 은총을 베풀었고".....제임스 엠 패러모어 장로
- 78.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뉴스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 디 야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
- 81. 성회 및 교회 역원 지지.....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84. 증인으로서 16년.....프랜시스 엠 기즈 장로
- 86. 거룩한 책임.....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89. 말씀의 힘.....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복지 모임

- 93. 복지 항목 소개
- 94. 가족이 원리대로 생활함
- 96. 자립의 비전을 포착함
- 99. 우리의 자선 봉사를 증가시킴
- 102.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는 특권
- 103. 복지 사업: 돌보고 주고 함께 나누는 유산
- 104. 총관리 역원 사진
- 106. 지역 회장단 메시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야곱 디야가 장로
- 108. 교회 및 지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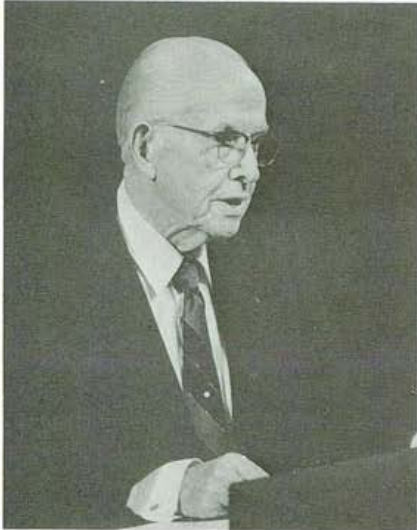


성도의 빛/1986년 7월호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거기 위해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물문경을 사용하고 교만을 극복함으로써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또다른 연차 대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드리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축복받고 고양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나는 주님께 깊이 의지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를 통해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이곳에 참석하고 계시거나 이 모임 절차를 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나중에 이 대회의 메시지를 듣거나 읽을 기회를 갖게 되실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헌신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온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바치는 시간과 사랑과 큰 지지에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시는 헌납과

헌신과 봉사 행위는 참으로 신앙이 지상에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이처럼 적은 수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던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마음속으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회개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교성 6:9; 11:9)는 주님의 선언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요셉스미스는 그의 예언자라는 간증과 함께 모든 말일의 예언자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작고하신 위대한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이 주제는 그의 말씀과 그의 훌륭한 저서인 용서가 낳는 기적과 같은 책의 여러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외쳐야만 합니다.

파수꾼 여러분,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에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모로나이가 권고한대로, 우리는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을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가지가 자라도록 살피어 나쁜 것을 자르고…… 이렇게 하기를 좋은 것이 나쁜 가지를 이겨낼 때까지 할지니” (야곱서 5:66) 그것은 시온 백성들이 시온 사회를 만들게 해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우리를 돕기 위해 교회에 수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전이 발행되었는데 우리는 그 경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성전이 우리 성도들 가까이에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좀더 자주 주님의 집에 가고 있습니까? 새로 조정된 모임 계획이 마련되었는데 우리는 늘어난 시간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밤 특별 교재가 나왔으나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찬송가가 얼마 전에 발행되었는데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더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 필요한 만큼 프로그램을 많이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킴블 대관장이 하신 많은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걸음의 폭을 넓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물문경은 우리에게 말일의 적의 계획에 관해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옥옥의 안식처를 짓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나이 28:21)

물문경에는 “오 너희가 깊은 잠 곧 지옥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깨어나라…… 의의 갑옷을 두르라. 너희 묶인 사슬을 끊고 어둠에서 뛰쳐 나와 티끌에서 일어서라.”와 같이 “깨어나라”(나이 1:13, 23)는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평온과 번영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이상으로 박해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에 풍미하고 있는 죄악은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예언자 요셉의 말씀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유혹이 되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성적인 부정은 교회를 위협할 수 있는 세 가지 위협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말씀했을 때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죄악의 범주에 대하여 물문경은 불순결은 살인 다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엘마서 39:5)

엘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눈에 비치는 탐욕을 뒤쫓지 말고, 죄될 모든 일에서 뛰쳐 나오라. 그렇게 하지 않을진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진실로 이를 기억하여 마음에 간직하라. 또한 삼가 죄될 모든 일에서 떠나라.” (엘마서 39:9) 우리가 그릇의 안을 깨끗이하려 한다면 우리는 부도덕을 버리고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문경을 읽지 않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교리와 성약 84편에서 온 교회가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에게 머물러 있느니라.”(56절) 주님은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문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며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57절)

이제 우리는 물문경에 관해 좀더 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더욱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곧 저들로 아버지의 왕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시온의 자녀위에 쏟아질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 있으리라.”(58절) 우리는 그러한 징계와 심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물문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 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문경, 소개) 물문경은 우리 개인 학습이나, 가정에서의 가르침이나 전파하는 데나 선교 사업의 중심이 되지 못했으며 지금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날 생존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배리온 지 롬니 회장보다



대관장단: 왼쪽부터 제1보좌 고든 비 킵클리 부대관장;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제2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물문경이 참되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차 대회 말씀에서 그는 물문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사 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교리와 성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물문경과 성경은 너희 교훈을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라.”(교성 33:16)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 성경과 물문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42:12) 만약, 우리가 물문경에 나와 있는 원리를 읽고, 연구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이 교회의 장로, 제사, 교사들은 그러한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시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문경을 읽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문경을 읽음으로써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고 말씀하신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 넘쳐 우리 마음을 채우고 새롭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악마에 대항하고

거듭남의 축복을 계속 받고자 한다면 이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악을 받아 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우리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을 따라야 하며 우리 마음을 영적인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나는 물문경을 읽는 것보다 이 일을 행하는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 있는 형제요, 자매요, 친구되시는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매일 몇 분씩 물문경을 읽을 것을 권고합니다.”

“나는 만일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물문경의 말씀을 읽는다면 이 위대한 책의 영이 우리 가정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될 것임을 확실히 느낍니다. 경건의 영이 증가되고 상호간의 존경심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분쟁의 영은 사라질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더욱 큰 사랑과 지혜로 권고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권고의 말씀을 더욱 잘 듣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움이 증가될 것입니다. 신앙,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우리 가정과 생활에 충만하게 될 것이며 정신적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60년 4월, 435-36 페이지)

이제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만에 관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의로운 교만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죄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가장 잘 형성되는 자신의 가치에 관한 건전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은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들의 교만함을 보라…… 이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하리로다.” (모로 8:27)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교만을 조심하여 옛 니파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교성 38:39)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질적으로 교만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기 보다는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 온유함, 순종 또는 온순함입니다. (앨마서 13:28 참조)

회복된 교회의 초기 시대에 주님은 교만에 대해 훌륭한 두 회원에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 (교성 23:1)고 하셨습니다. 엠마 스미스에게는 “끊임없이 온유한 마음을 지니며 교만을 조심하라.” (교성 25:14)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라.” (교성 42:40)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모사이야 4:10)고 물문경은 말합니다.

지구가 말일에 불로써 깨끗하게 될 때 교만은 초개와 같이 될 것입니다. (니삼 25:1; 교성 29:9; 64:24)

리하이가 본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교만으로 그 안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니일 11:35-36) 곧고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취하는 사람들을 그 건물에 있는 자들은 놀리고 조롱했습니다. (니일 8:20, 27, 33; 11:25 참조)

“겸손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니이 28:14)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않으며 옳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결눈질로 보며 누가 옳은가를 논쟁합니다. 교만은 분쟁하는 마음에 나타납니다.

사탄이 악마가 된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자신의 위치로 데려 오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위에 올라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완전한 생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서는 나의 생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 것인가?” 보다는 “나는 이 생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에 의해 특징지어 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자신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 주위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찬사가 그들의 컷전에 맴돌겠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칭찬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기쁨을 얻습니다.” 주님은 어느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저가 남보다 뛰어나려고 애쓰나 내 앞에서 온전히 온유하지 못하므로 나 주가 저를 기쁘게 여기지 아니함이니라.” (교성 58:41)

교만으로 인해 큰 고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물문경에 나오는 두 무리는 “유식하며 부한 자” (니이 28:15)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앨마서 4:19 참조)

교만에는 큰 저주가 따릅니다. 겸손에는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리라.” (교성 112:10)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강하게 되어 하늘에서 내려 오는 축복을 받게 하며 때때로 지식을 얻게” (교성 1:28)될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자비를” (교성 61:2) 베푸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분노를 거둘 수 있습니다. (힐 11:11 참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할 때, 우리 개인의 생활과 가족과 교회에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만은 변화하여 발전하려 하지 않고 합리화하여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려 합니다. 회개는 변화를 의미하며 그것은 겸손한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느 정도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거둘 수 있도록 물문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겸손하여 교만을 극복함으로써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 하시게 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축복을 전해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님의 택하심 받은 예언자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로운 대관장단을 구성하기 위해 성스럽게 계시된 절차 즉 주님께 의해 계시되고 회원들에 의해 지지받은 이 절차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의 예언자이신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과, 그가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권고해 오신대로 온 인류에 대한 애정깊은 관심을 느끼기 위해 오늘 아침 여러분과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연차 대회가 역사적인 대회가 되고 있는 연유는 우리가 새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언자와 그의 보좌들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우리 손을 들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엄숙한 모임을 통해 회원들은 계시에 의해 제정된 만장 일치의 원리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며 공적인 직책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지지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연차 대회에 대해 개개인이 지닌 역사와 개인적인 내용은 우리 인생의 정점이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이

성도의 빛/1986년 7월호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임을 세상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주님의 초대 교회의 기초가 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들려졌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예언자와 사도의 기초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개혁이나 개정이나 재조직된 것이거나 단지 한 분파가 아닙니다. 이 말일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하늘로부터의 교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계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주님의 교회는 이전의 주님의 교회에 존재했던 똑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진지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역을 관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성스러운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계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신에 의한 계시의 원리는 주님의 교회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시를 받습니다. 교회의 회원 개개인들도 진리를 확신시켜 주는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도 계시를 받지 않고는 성신의 임함을 받을 수 없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3페이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이 경륜의 시대에 조직된 날 주님은 그의 교회 회원들에게 어떻게 그의 부름받은 예언자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지시로 생각해야 하는가에 관해 계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요셉이 받은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 두며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생활하라.”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 들이라.” (교성 21 : 4-5)

그 계시가 주어진 날로부터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대관장단의 말씀을 그들의 가르침으로 보고 있으며 시온은 번영해 왔습니다.

교회 대관장님이 돌아 가시면 어떻게 새로운 대관장님이 선택됩니까?

1835년에 주님은 이 문제에 관해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은 질서 정연하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계시에 의하면 십이사도 정원회는 대관장단과 동등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관장단이 돌아 가시면 대관장단은 해체되고 자동적으로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의 관리 기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교회의 초대 대관장인 요셉 스미스가 돌아 가셨을 때 제정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 스미스가 1844년에 순교당한 후 브리감 영을 정원회 회장으로 하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다음 3년 반 동안 교회를 관리했습니다.

1847년 12월 5일 윈터 퀴터스의 미주리 강둑에 있는 옥슨 하이드의 집에서 십이사도 정원회는 평의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십이사도들은 각자 대관장단의 재조직 문제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의 증조부이신 에스라 티벤슨 형제님도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브리감 영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에 의해 만장 일치로 교회 대관장에 지지되었습니다. 그는 허버 시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를 보좌로 선택했습니다. 이 조치로 새로운 대관장단이 조직되었으며, 그후 1847년 12월 24일에 열린 교회 연차 대회에서 성도들의 만장 일치 거수로 지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특별한 대회를 위해 성도들이 윈터 퀴터스에 세운 통나무로 만든 태버나클에서

열렸습니다. 이 조치는 후에 아이오와,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영국 제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대관장단을 구성하기 위해 성스럽게 제시된 절차 즉, 주님께 의해 제시되고 회원들에 의해 지지받은 이 절차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되어”야 합니다. (교성 107 : 22) 수년 전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대관장이]... 혼란이나 비난 가운데 위원회나 혹은 대회에서 인간에 의해 선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니다...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치에는 잘못이나 서로의 다툼이나 인간의 야망이나 이기적인 동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실 지도자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벗, 1973년 7월호, 2-3페이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님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13대 대관장으로 부른것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최근에 회원이 되신 일곱 분에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많은 금식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개인적인 계시를 간구한 후에 새로운 예언자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님이 부름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영혼에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확신으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님은 1985년 11월 10일 일요일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며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성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된 이 사람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그는 아이다호 휘트니에 있는 조그만 농장에서 11명의 자녀의 장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용감한



지지 표시를 하는 회중

부모님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은 그들에게 힘과 도움을 주실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벤슨 대관장의 부친은 그의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던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가까이 계신다. 너는 기도를 통해 그의 도움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예언자는 종종 이렇게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다른 어떤 충고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닳아 되었으며, 끊임없는 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프레데릭 더블류 배블, 신앙의 나래위에,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72년] 85페이지)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에 처했던 영국에서의 그의 초기 선교 사업 시절을 포함하여 기도는 그의 일생을 통해 그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벤슨 대관장과 자매님은 모두 훌륭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받았던 가르침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하라는 똑같은 가르침으로 그들의 가족을 가르쳤습니다.

1943년 새로운 사도로 부름받은 후 벤슨 장로님은 곧 대관장단으로부터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임무를 받았습니니다. 그는 1945년에 세계 제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 교회의 회원들을 돕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그는 전쟁의 파괴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굶주린 자와 추위에 떠는 자와 빈민들을 보았습니다.

벤슨 장로님이 대관장단의 부름을 받아 유럽에 가 있는 동안 집행 서기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프레데릭 더블류 배블 형제는 그의 가족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니다.

“주님은 벤슨 장로님을 이곳에 보내셨을 때, 주님 자신이 하고 계신 일을 아셨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도입니다... 나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굵치지 않는 용기, 굳은 결심과 불굴의 정신에 계속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전의 그의 사도들과 하셨듯이 그와 말씀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는 내가

지금까지 안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며 친절하고 예의바르며 훌륭한 사람입니다.” (프레데릭 더블류 배블, 신앙의 나래위에, 125페이지)

이 특별한 임무에서 벤슨 대관장은 아마도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취해졌던 것 중 가장 많은 복지 물품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수천 톤의 음식, 의복, 침구 및 의약품이 13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의 50주년 기념이 행해지는 이때 그가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받게 됨은 의미깊은 일입니다.

그의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 역사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동안, 벤슨 장로님은 성도들과 모임을 갖고 지부와 선교부를 재조직하고 그들의 영을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자비의 천사였습니다.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증재하심으로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으며 여러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노력한 데 따르는 성공의 근원을 알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분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사명을 성취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47년 4월, 152페이지)

그는 8년 동안 미국 대통령의 내각에서 일했습니다. 첫 내각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벤슨 장관은 행정부가 떠 맡은 무거운 책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연설한 후 농무성 장관을 불러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한 관례는 아이젠하워 행정부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농무성 장관으로서 그는 세계 여러 지도자들을 만났으며 세상의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정치적인 야망의 소용돌이속에 위협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그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힘을 구하고 원리에 철저했으며 좀더 정치적으로 편리한 조치를 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날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라는 이름은 온전함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벤슨 대관장님과

같은 사람을 찾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힘과 영감과 인도하심을 위해 주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의 영적, 혹은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심리라도 더 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신앙과 신조와 종족과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총관리 역원들이 우리 모두와 우리 가족 및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벤슨 대관장과 자매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똑같은 사랑으로 보답드립니다.

벤슨 대관장은 그의 가족을 사랑하며 6명의 자녀와 34명의 손자녀와 20명의 증손자녀들과 늘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에 충실합니다. 그와 벤슨 자매님은 가족의 모토를 갖고 있는 데 그것은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빈

의자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에게 가까운 목표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예언자인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증인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받았음을 개인적으로 증거합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하셨듯이 주님은 “저의 근면을 내가 알며 저의 기도를 들었음이니라.” (교성 21 : 7)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는 새로운 대관장단의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날에 우리의 생활이 축복받게 되고 사온의 대업이 번성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시 돌아 오십시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죄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질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신의 미약함을 걱정하면서 그러나 준비하는 동안 주님의 도구가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중에 동반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루고자 하며 그 관계를 사거나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정의 틀에서 제외당한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반의 관계를 맺는 것이 원리를 던져 버리거나 이상을 회생시키는 것으로 낮추어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행복을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이고 불의한 것에 이르는 길의 맨 밑바닥에서 아침만하는 친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많은 조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누구나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한 관계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그러한 우정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이며 결심을 약화시키고, 이상과 타협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까지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개인적인 순결함이 들어있는 시원하고도 상쾌한 물가로 돌아오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보호 하심으로 돌아 오십시오. 여러분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데 깃드는 평온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회개의 과정을 잘 아시며 이스라엘의 판사의 중요한 역할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되돌아 오는 그 첫 걸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랑으로 여러분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 드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자신의 보조에 맞추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경을 주의깊게 공부하고, 한 장 한 장을 깊이 생각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그 가르침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그 가르침 안에서 참된 뜻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우정을 찾으며 그 가르침을 또한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시며 평강의 왕에 대하여 언급된 무수한 구절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강화하고 그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을 마음에 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경을 주의깊게 연구할 때 얻게 되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 보고자 합니다.

엘마는 자신이 한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심한 영육의 고통과 괴로움속에 지냈으며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간구할 때까지 죄사함을 얻지 못했었나니, 보라 주께 간청하며 영육의 평안을 얻게 되었느니라.”

“…… 내가 이미 네게 이른대로…… 너는 지혜를 배우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배우라.”(엘마서 38:8,9)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만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용서는 오는 것이며 구속의 은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고 꾸준한 기도와 연구와 명상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욱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라, 나는 세상을 죄에서 구하고자,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 주러 온 것이니,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 들일지니 이같은 자라야 하나님 왕국에 거할 수 있음이라…… 회개하고 내게로 나와 구원을 받을지어다.”(니파이삼서 9:21-22)

그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은 자신의 죄사함이 더욱 가능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마음과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의 짐은 서서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물론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연구해 보면, 이기심이아말로 모든 죄의 뿌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은 불의한 행위를 낳고 불의한 행위는 고뇌와 비참함을 가져 옵니다.

이기심의 반대는 사랑, 특별히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사랑은 이기심의 영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행복의 계획에 대한 신앙을 키우게 하고, 회개의 과정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주며 가르침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강화시켜 주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사랑받는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조만간, 항상 돌보아 주는 감독의 보살핌의 도움을 입어 회개의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평안함과 확신, 영의 증거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이 해방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죄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질책하고 지난 날의 잘못을 자주 기억하면서 고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하며 여러분께서 그분의 다음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느니라.”(교리와 성약 58 : 42, 43)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에도 그 죄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의 주인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를 결박하여 노예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난 날의 잘못을 상기시켜 주며, 그러한 생각들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발전과 성장과 봉사의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끈으로 묶어 꼭두각시를 조정하듯이 개인적으로 달성해야 할 일에 대해 낙심하는 마음을 갖게



대회 방문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든 자를 위해 대가를 치루셨으며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따라서 완전한 용서가 주어지므로 죄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더 이상 괴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회생당하신 의도를 참으로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끝없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암몬은 지난 날의 죄 곧 용서받은 범법에 대한 상념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해 줍니다. 레이먼인 중에서 선교 사업하던 때를 회상하며 암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를 수천 명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 왔느니라.”

그의 형제 아론은 이렇게 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암몬이여, 너의 기쁨이 교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노라...”

그러자 암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의 힘이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보라 나의 기쁨이 차고 넘치나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려 함이라...”

“누가 나를 감히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비로우사 우리를 비참하고 죄 많으며 더럽혀진 곳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더냐?”

“...보라 주께서 정의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고 크신 자비로...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도다.”(엘마서 26 : 4, 10-11, 17, 19-20)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이 단순하게 말한 비결입니다. 지난 날의 잘못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거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를 통하여 오는 용서와 새로움을 낳는 기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며 그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만일, 실수로 신발을 온통 진흙으로 묻혔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것을 닦아내어 이전처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뒤에 털어낸 진흙을 모아 봉투에 넣어 두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저지른 실수라고 하며 그것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용서받은 죄를 되새겨서는 안됩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과 그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벗어 버릴 수 있도록 그의 목숨을 버리신 구세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 서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진정한 목적을 갖고 몰몬경을 읽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면 정다운 두 사람의 친구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 줄 것입니다.

그 첫번째 친구는 몰몬경 자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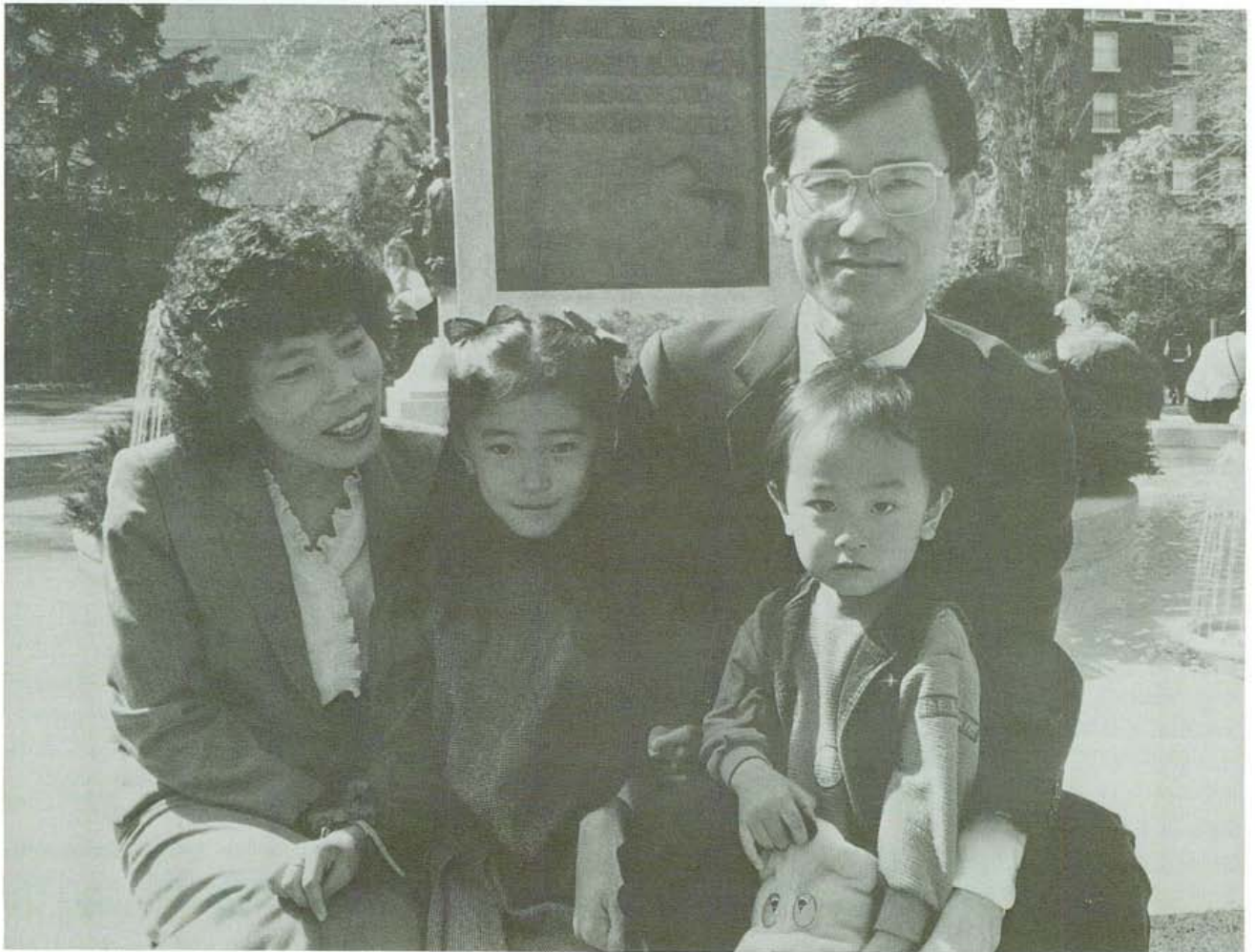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고 더 큰 일을 성취하도록 여러분을 자극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욱 향상될 것이며 더 큰 지혜와 통찰력을 지니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명상과 기도와 받은 권고를 진지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완전한 사랑과 끝없는 자비로 충만하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권능을 지니신 가장 위대한 친구,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깊이

사랑합니다.

따라서 그분에 관해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이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주고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평화와 평정을 가져다 주는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단계는 또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며 여러분을 행복에 이르는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필요로 합니다. 다시 돌아 오십시오. 모든 것이 완전히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돌아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외 방문자

남미에 세워지는 왕국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현재 남미의 교회에는 30개의 선교부와 186개의 스테이크, 2148개의 와드와 지부에 776,00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5140명의 복음 선교사의 60퍼센트는 남미 출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아내와 가족은 나와 함께 지난 10월에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받은 이래로 사랑과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평생 동안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를 높이 존경해 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사도라는 말을 매우 경건한 태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부름에 성임된 이래로 나는 내 어깨에 지워진 신성한 책임에 대해 오랫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특별히 신성함과 죽음으로부터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하여 특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회는 “순회 관리 고등 평의회로서 교회의 대관장단의 지시 아래 하늘의 법도에 일치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직무를 집행하나니 교회를 성도의 빛/1986년 7월호

설립하며 모든 국민 가운데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정리할 자라. 첫째는 이방인에게요, 다음으로는 유대인에게니라.” (교리와 성약 107 : 33)

주님은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이었던 토마스 비 마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고하는 것은 십이사도 모두에게 고하는 것이니라. 일어나 허리를 동여매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나의 양을 먹이라.”

“.....거듭 이르노니, 너희가 정식으로 추천하여 인가하고 너희 형제 십이사도회의 거수 지지로서 나의 이름으로 파송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곳, 어느 국민에게 갈지라도 나의 왕국의 문을 여는 권능을 갖게 되리니,” (교리와 성약 112 : 14, 21)

12일 전에 나는 남미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에서 성도들을 방문하고 돌아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두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교회가 이들 가운데서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팔리 피 프랫 장로는 1851년에 남미를 방문했습니다. 주님의 사업은 1925년에 그 곳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1925년 성탄절에 나의 할아버지인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트레스 데 켈레로 공원에서 남미를 복음 전도 지역으로 헌납했습니다. 그 헌납 기도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남미 제국의 대통령들과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친절히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시여, 이제 저는 대관장의 지시와 축복과 권능으로, 또한 거룩한 사도로서 제가 지니고 있는 권능으로 열쇠를 돌려 모든 남미 제국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문을 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능력들을 꾸짖어 내쫓습니다. 우리는 이 대륙에 있는 여러 국가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축복하고 헌납하나이다. 우리는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며 주님의 이름이 시온의 일부인 이 땅에서 존경받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 이를 행하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의를 위한 전사[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레프트사], 81페이지)

“거룩한 사도의 권능으로”라는 말은 나의 사명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똑같은 권능을 갖는 것이므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명의 총관리 역원이 1925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방문한 역사기록의 원본이 내가 지난 3월 14일에 그곳에 도착하기 몇일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겪었던 큰 어려움에 대한 것을 무척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 레이 엘 프랫 그리고 루론 에스 웰스 장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바다로 육지로 34일 간이나 여행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최근에 내가 한 같은 거리의 여행은 불과 스물 한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25년에 남미에는 교회 회원이 네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의 도착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3명이 호텔 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이사를 한 끝에 셋이서 살 수 있는 싼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 신문에 낸 첫번째 모임에 대한 광고는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신문들은 광고 게재를 거절했습니다. 프랫 장로는 스페인어로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밖에 하지 못했던 벨라드 장로는

매일 이 진단만 돌렸습니다. 프랫 장로는 대부분의 시간을 교지와 찬송가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데 보냈습니다. 독어를 할 줄 알았던 웰스 장로는 아르헨티나에 도착 후 곧 병이 들어 다시 교회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남미에서의 초기 선교 사업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감정을 이루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께서 거의 8개월 간이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거리를 거닐면서 매일같이 200장에서 500장의 진단을 돌리고 일요일에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가르치신 사실을 알고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원주민들 가운데에서의 선교 사업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1926년 7월 4일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주님의 사업은 마치 도토리가 서서히 자라서 참나무가 되듯이 당분간은 서서히 성장할 것이다. 그것은 하루 아침에 자라서 얼마 안되어 죽어버리는 해바라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입교할 것이다.

교회는 여러 개의 선교부로 나뉘며 가장 강한 교회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곳에서의 일은 가장 작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레이먼인이 기회를 얻게 되며 남미 선교부는 교회 내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 (멜빈 제이 벨라드, 의로움을 위한 전사, 84페이지)

60년 후 남미의 교회에는 30개의 선교부와 5,140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중 60퍼센트는 남미 출신입니다. 186개의 스테이크와 2148개의 와드 및 지부가 있습니다. 약 776,000명의 회원은 헌납 기도의 성취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몬테비데오에서 지난 달에 있었던 지역 대회에서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회장 부처와 나는 3,350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에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헬리오 알 카마고 회장 부처와 함께 31,000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포도원의 이 지역에서는 사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본부 회장단 : 왼쪽부터 제1보좌 조이 에프 에반즈 자매; 회장 바바라 더블류 윈더 자매; 제2보좌 조엘 비 록시 자매

과거와 현대의 총관회 역원들이 그곳에서 쏟은 노력의 결과는 성도들의 충실한 생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천명의 선교사들이 훌륭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형제 자매들이 각각 자기 나라에서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대, 3대의 회원들이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남미의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나파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세상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치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심이요, 세상 만민을 주 앞에 인도하시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이라. 그러므로 주는 그의 구원을 받지 말라고는 아무에게도 명하지지 아니하시니라.”

(나파이이사 26 : 2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신앙과 헌신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복음의 충만한 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타에서는 소년단복을 입은 아론 신진 소년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저하지 않고 성년이 되면 선교사로 봉사하겠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으로 가득 차 있는 남미 교회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남미에 있는 네 개의 성전이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교회 회원들에게 주고 있음을 알고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미 성도들이 보여준 놀라운 열성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성전 제단의 복이 일곱번이 필요했을 때 자매들이 64번의 옷을 손수 바느질하여 만든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십이사도 평의회는 일원으로서 나는 어느 때 보다도 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약 50억의 하나님의

자녀가 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게 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더 큰 책임이 스테이크 부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더욱 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감독과 지부장도 이와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전에 들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해의 왕국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성전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것은 신권 소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영감받은 지역 지도자를 대치할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보고타에 있는 스테이크 부장단의 개종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재 8년이 넘게 봉사하고 있는 한 스테이크 부장은 회원이 된 지 2년 반만에 스테이크 부장의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택한 지도자들이 그를 의지할 때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는 합당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107:99)는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사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동안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스테이크나 워드 단위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이해해야 하며 그 원리를 그들의 조직내의 회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수하고 간결하며 교리적인 진리를 가르쳐 그들에게 영적인 이해력을 깨우쳐 준다면 교회의 발전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교리와

성약 88:77-78)

내가 생각해 보건대 교회에서 제일 큰 원동력은 교회 회원들로 하여금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감독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회원들을 이해시키는 열쇠가 되십니다.

모든 지도자는 왕국의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경전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요한복음 5:39)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원한 가능성을 분명히 이해시켜 주는 진리를 조금씩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 마련된 구속과 승영의 계획을 가르치는 데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 지상 어느 곳에도 회복된 복음을 전하도록 그 문을 열라는 부름을

받는다면 남미땅을 헌납하고 축복했던 최초의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 길을 닦아 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우리는 격동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교회를 통하여 성신권의 권능이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말일의 사도에게 부여된 신권이 이 경륜의 시대에 많은 나라의 문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며, 친구요, 형님입니다. 나는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온 세상에 그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부활에 대한 사도의 증거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나사렛 예수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인간들의 덧없는 승리에 대한 훈장이나 기념비와는 달리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기념비로 빈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며 당시에 알려진 대부분의 세계의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젊은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군사 원정과 용맹을 떨쳐 그의 왕국을 마케도니아에서 애굽까지, 그리고 사이프러스에서 인도에 이르기까지 넓힌 후에 그는 더 이상 정복할 세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알렉산더 대왕은 열병을 얻어 33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얻은 광대한 왕국은 사실상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한 젊은 지도자 역시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왕이요, 제자였으며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존경도 받지 못했고,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으며, 정치적인 지위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결코 겸이나 한 조각의 갑옷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왕국은 약 2000년 후에도 여전히 번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이 비슷하게 젊은 나사렛 청년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최종적인 승리에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땅과 백성과 군주국들과 세상의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도자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그는 알렉산더대왕이나 그밖의 누구도 물리치거나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을 정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수 세기에 걸친 인간들의 덧없는 승리에 대한 훈장이나 기념비와는 달리 영원한 승리를 기억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기념비로 빈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와 다른 모든 기독교계에서는 부활절을 경축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우리는 부활절 기간을 오늘까지 늘려 그를 기억하고 모든 인류의 생에 있어서 이 중대한 사건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반구에서는 부활절이 황폐한 겨울에 뒤이어 생명의 소생을 알려 주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파멸의 축복과 영생의 가능성을 가져다 줍니다. 그의 빈 무덤은 온 세상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눅 24:6)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시련받고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한 생활에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데 필요한 모든 희망과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절은 모든 인류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불멸의 은사와 생명의 회복과 모든 고통의 치유를 경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 죽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시편 작가의 말씀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

모든 세대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욥 14:14) 그리스도의 대답은 바로 이 순간까지도 적용됩니다.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요 14:19)

논리적으로 자연의 재생을 알고 빈 무덤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무덤이 마지막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교리는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 단 하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것은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지혜로운 말씀이나 외견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인 데, 단지 궁극적인 승리가 없는 말씀과 기적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궁극적인 기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불사 불멸로 다시 일어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불멸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육체적, 영적인 죽음을 극복한 승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입으로 말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전 15:23 참조)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한 증인들은 비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된 증인들 중에는 주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받는 것은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와 예언자들의 간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묻히시고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 포함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단지 이에 부속된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 정사, 3:30)

주님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중에 택하신 사도인 베드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도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찌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행 2:36)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 3:14-15)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행 5:32)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한 말씀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경이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행 13:29-31)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아그립바 왕앞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행 26:8)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서한에서 다시 부활에 관한 사도로서의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성도의 벗/1986년 7월호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고전 9:1-2)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0, 22)

나는 거룩한 사도의 직분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현대의 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매일 일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해 겸손하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은 항상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 사도와 예언자들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괜참으시다면 현재 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이 예수의 부활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교회 연차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활 절기에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간증하고 이 간증이 놓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그는 살아 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간결한 말씀은 기록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곧 주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도 기이하여, 이 지상에서 예수와 가까이 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배웠던 사도들까지도 이 사건의 완전한 진실성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린 첫번째 설명은 그 당시에 살고 있거나 그 전에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저희 말이 허탄한듯이”(눅 24:11) 보였습니다.

산과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지마는 첫번째 부활의 아침이 있기 까지 한 번도 무덤에서 살아 났던 일은 없습니다…

그의 지상의 생활 전체는 모두 이 같은 결과를 향하여 진행되는 것이라고 그는 거듭 가르쳤습니다. 그가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다시 얻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암시된 것이었습니다. 슬픔에 차 있는

마르다에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결정적입니다.”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6-7페이지)

롬니 회장의 간증과 총관리 직원들의 증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는 필멸의 몸으로 태어나 그의 출생과 삶과 가르침과 계명이 기록된 경전에 언급된 대로 그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나 자신의 사도로서의 증언을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도들을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막 8:31)날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세째 날에 그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며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이 속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사도들의 간증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간증에 나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보고자 : 월포드 지 에드링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대회 광경

우리는 1985년 12월 31일 현재, 연례 교회 재정 보고서 및 같은 날 마감된 연산 교회 운영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검토한 재정 결산 및 운영에는 교회의 모든 기금과 교회 재정 기록과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기타 교회 운영 조직의 모든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산, 회계, 감사 절차 및 기금 영수와 지출 관리 방법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본부 기금 지출이 대관장단 및 예산 절차에 따른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예산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그 예산에 따라서 중요한 지출을 집행합니다.

재정 기록과와 기타 분과에서는 빠른 교회 확장과 전자 통계 처리방법의 발달에 맞추어 현대 회계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모든 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과는 세 가지 면 즉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체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기록과에 의해 또는 그의 지시로 회계를 관리하는 교회의 모든 과, 기타 교회 산하조직에 대하여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교부, 학교, 관리 사무실과 활동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운영이 포함됩니다. 교회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성장과 광범위해지는 활동을 수용하기 위해 교회 감사와 업무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역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가 행하며 그 보고서는 교회 감사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 기록과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교회 소유 및 교회 관리 재단 법인 사업체는 공공 회계사의 내부 임원, 독립된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감사 기관이 감사합니다.

연례 재정 보고서와 기타 통제에 대한 검토, 재정 운영을 관리하는 회계 및 감사 방법에 대한 우리의 조사, 재정 기록과와 감사과와 교회 법률 대표의 책임자들이 함께 계속해서 토론한 결과 우리는 1985년 한 해 동안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본부 기금이 여기에서 개요를 밝힌 확정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회계처리 되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교회 감사 위원회

월포드 지 에드링
데이비드 엠 케네디
워렌 이 퓨
메릴 제이 베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1985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대 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을 위해 1985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회원 수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85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교회 단위 조직

스태이크 수 1,582
 지방부 수 352
 선교부 수 188
 와드 수 10,168
 스타이크 산하 지부 수 2,766
 선교부 산하 지부 수 2,071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주권 국가의 수 95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자치령, 식민지 및 영지의 수 20
 (본 통계는 1985년 한 해 동안 75개의 스타이크와 542개의 와드 지부가 증가했음을 보여줌)

교회 회원

1985년 말 현재 교회 회원 총수 5,920,000
 1985년의 교회 성장
 기록상의 어린이 증가수 95,000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수 70,000
 침례받은 개종자의 수 197,640

신권

집사 248,000
 교사 186,000
 제사 375,000
 장로 481,000
 칠십인 33,000
 대제사 208,000

선교사

복음 선교사 29,265

계보 통계

성전 엔다우먼트를 위해 1985년에 확인된 성명 10,552,130

성전

1985년에 집행된 엔다우먼트의 수 :
 성도의 벗/1986년 7월호

산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54,554
 죽은 자를 위한 엔다우먼트 4,857,052
 현재 사용 중인 성전 37
 설계 혹은 건축 중에 있는 성전 10
 수리하기 위해 연중에 폐쇄된 성전 1
 1985년에 다섯 개의 성전이 헌납되었으며 한 개의 성전이 재헌납되었음.

교회 교육 기구

1984-1985학년도의 총 등록자 수 :
 특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349,827
 교회 학교 및 대학 45,558
 계속적인 교육 366,257

복지 사업

말일성도 봉사회의 도움을 받은 수 82,804
 유급 직장을 알선받은 회원 수 34,552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한 연 인원 244,766
 감독의 출고증 발행 수 344,562

작년 4월 이후 한 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교회 제12대 대관장 90세, 1985년 11월 5일,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
 노마 피 앤더슨, 명예 총관리 역원인 조셉 앤더슨 장로의 부인
 도로서 시 스톤, 명예 총관리 역원인 오 레슬리 스톤 장로의 부인 리차드 피 콘디, 솔트레이크 태버네클 합창단 전임 지휘자, 17년간 지휘하였음.
 맥콩키 장로, 노르마 피 앤더슨, 조셉 앤더슨 장로의 부인
 도로서 시 스톤, 오 레슬리 스톤 장로의 부인이었던 리차드 피 콘디, 17년간 솔트레이크 태버네클 합창단의 지휘자. *



대회 방문자



복지에 대한 책임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일 우리가 개인과 집안 일을
검소하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서는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경제적 자립에 관한 기본 원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행복의 요건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사와 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제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의 방향을 스스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확고 부동한 원칙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 원칙이란 바로 우리 복지의 책임은 나와 나의 가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936년 교회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도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36년 10월 3페이지)

우리들 중에도 약 50년 전 미국의 대경제 공황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겪은 경제적 고충을 도저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은행이 파산했으며, 사람들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잃었으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주택 융자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집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습니다. 아침에 먹을 밀죽을 먹지 않으면 점심이나 저녁에 지저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경제적인 곤란은 나시 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로 우리 수입원이 끊기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며, 교회 회원들이 복음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강하게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중심되는 것은 관대한 금식 현금 제도와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방편으로 핵심되는 것은 힘과 능력을 기르고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운명을 더욱 잘 다스릴 수 있게 할 다섯 가지 요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요건은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입니다. 속담에 이런 현명한 말이 있습니다. “음식은 남김없이, 옷은 헤어질 때까지 입고, 있는 것으로 견디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낸다.”

검소한 생활이란 낭비하지 않는 생활을 뜻합니다. 생활비를 절약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두의 창을 갈고, 기워 입고 수선하고, 바느질하여 돈을 절약합니다. 그들은 월부로 물건을 사들이지 않고, 필요한 현금을 모은 후에야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쓸데없는

이자의 지출을 막습니다.

절약이란 신중하게 아껴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웰스터의 뉴 월드 사전, 칼리지 에디션)

“낭비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옛 말은 지금도 귀담아 들을 말입니다. 절약이란 우리가 수입의 한도내에서 생활하고 언젠가 닥쳐올 불운한 때를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부채를 지지 않고 외상 거래를 신중하게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필요한 물건과 갖고 싶은 물건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고 뒤에 지불하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저축하고 다음에 사자.”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상당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횡재”니 “부채 재물”이니 “외상 부자”와 같은 말로 묘사되는 위험한 외상 습관을 부추기는 투자 상담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경제적 곤경이 닥쳐올 때 이런 사람들은 곧 몰락하고 말며 그들의 생활은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벤슨 대관장은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채를 지고 있는 상당수의 가족들이 무엇이든 의지가 될 만한 유동 자산 등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만일 수입원이 갑자기 끊어진다면 또는 대폭 줄어든다면 그들은 얼마나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것보다 스스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가족들을 알고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부채를 청산하고 생활하십시오” 올해의 말씀 브리검 영 대학교 출판사 1962년 2월 28일 10페이지)

빚지지 않고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의 검소한 생활 목표가 됩니다. 융자를 얻어 주택을 구입한 가정은 재정의 폭풍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융자없이 구입한 주택은 아무도 차압할 수 없습니다.

재정 상태가 원만할 때야말로 모든 빚을 청산하고 미리 불입금을 지불하기에 안정맞습니다. “빚진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 22:7)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월부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결국 지불해야 할 총액을 생각하지도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수십년 걸쳐 장만한 물건들을 그들은 당장 갖고 싶어 합니다. 빚을 저가면서 큰 집과 고급 차와 누구 누구에게 뒤질세라 최첨단의 유행 옷을 입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채무를 갚는다는 것은 신성한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대다수가 큰 부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지지 않음으로써 큰 짐을 덜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요건은 자립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교성 78:14)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회원들도 역시 자립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립이란 많은 것을 뜻합니다. 자립이란 습관성 마약 또는 버릇이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립이란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하고 이자와 각종 채무로 소요되는 할부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뜻합니다.

제이 루우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자 부담에 대하여 고전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이자 는 결코 잠자지도 않으며, 병들거나, 죽지도 않으며,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주일과 휴일에도 일하며, 휴가를 가는 적도 없고 방문이나 여행을 하지도 않으며 여가를 즐기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해고당하거나 퇴직당하는 일도 없으며, 세금을 내지도 않고 식량을 사거나 옷을 입지도 않으며 집도 내쫓기지도 않고 수리하거나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판도 필요없고 배관작업 도색 혹은 회반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처자도 없으니 생활비 걱정을 할 필요도 없으며 생활비 지출이 없으며, 결혼, 출생, 사망이 없고, 사랑도 없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벽창호와 같이 지독하고 무정합니다. 일단 빚을 지기만 하면 이자는 밤낮으로 항상 여러분을 따라 다녀 여러분은 이자를 성도의 빛/1986년 7월호



초동협회 본부 회장단: 왼쪽부터 제1보좌 버지이어 비 캐넌 자매: 회장 드웬 제이 영 자매, 제2보좌 마이컬린 피 그라슬리 자매

피하거나 빠져나갈 수도 떠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자는 애원과 요구와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거나 그의 길을 가로지르거나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할 때는 여러분을 멸망의 구렁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대회 보고 1938년 4월 103페이지)

인간은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고 사는 한 기를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지불함은 우리가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일조를 내는 것은 주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을 하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번성한다함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기가 포함되며, 가족의 결속과 영적인 성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엔 엘돈 태너, 대회보고 1979년 10월 119페이지)

오랜 세월을 두고 내가 세밀히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정직하게 십일조와 헌금을 지불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번성하고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에게 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들은 큰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이 큰 행복은 이 계명을 지킬 신앙과 힘을 간직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요건은 생산적이 되십시오. 생산적이 된다는 것은 주어진 여건을 정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역시 진취적이되고 기회를 이용할 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생산성은 많이 아는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여러 해 동안 노력하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친구가 일용할 것이 없다고 그의 누이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왜 농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그러냐?”하고 누이가 물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산에 눈이 조금 밖에 없어서 가뭄이
들 것으로 생각되어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봄비가
내려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위대한 시인 버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정복한다.” (인터내셔널 사상
사전, 존 피 브래들리 레오 에프
다니엘스, 토마스 시 존스, 편저, 제이
시 퍼거슨 출판사)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든지
생명에 이르든지 인간의 원대로
허락하시며”(엘 29 : 4)라고 엘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사람이 되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창의력이 있어야 하며 휴식도
필요합니다.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옛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반면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휴식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힘과
자원을 축적하여 평일에 더
생산적으로 일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할 것입니다.

비썰 요건은 자급 자족 해야
합니다.

손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나는 언제나
우러러 봅니다. 전세에서 이 기술을
나누어 줄 때 나는 점심을 먹으러
나갔던 모양입니다. 집안에서 가구를
고치다던가, 개선하며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활기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밭을 갖고 있다면 식품비를
절약할 수 있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딸이 밭에 나가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으면서 주고 받는 이야기의
가치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갈고, 수확하는 영원한
율법의 교훈에서 오는 이점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통조림을 만들기 위한 가족의 단결과
협동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자원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얻는 더욱 큰 이익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개척자의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배우게
되는 생활의 교훈입니다.”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17-118페이지)

그 유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섯째 요건은 일년분의 식량과
의류를 비축하는 것입니다.

일년분의 기본 식량과 의류와
생필품을 비축하라는 말씀은 50년
전에 주어졌으며 그후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그
가정의 비축 책임자입니다.

그들은 유사시에 가족에게 필요하게
될 모든 생필품을 비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가 일년치의 사치품을
비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굶주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들은 비축하는 것이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쳐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해 동안
이 권고에 따라왔으나 우리의 일년치
비축물을 사용할 어려운 사태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아 중요한
우선순위로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묵은
것을 새것으로 대치함으로써 못쓰게
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또는 개인적인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회는 수백만이나 되는
회원 모두에게 생필품을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과
가족이 그들 자신이 필요한 때를
위하여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일 일년분의 식량을 비축하기가
어려우면 한달치부터 비축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개인과 집안일을
검소하고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충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련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였습니다.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의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04 : 17)

우리 자신의 복지의 상당한 부분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물문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해
줍니다. “나는 너희가 가진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모 4 : 26)

“오늘 연차 대회를 통하여 들은
예언의 말씀중에 어떤 말씀이 특히
나에게 의미있는 말씀일까?”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여러분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자 의롭고 성실하게
간구한다면 성신의 속삭임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신의 동반하심으로
여러분의 영감이 확실하게 울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처럼, 그것은 요란한
강풍과 지진이나 불 같은 음성이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왕상
19 : 12 참조) 이 음성은 올바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생과 생활 태도까지도
바꾸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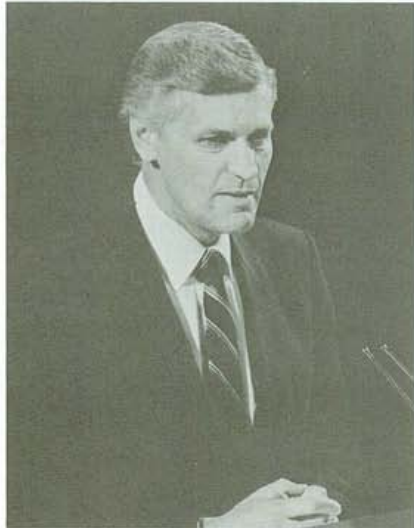
우리는 현명한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 열처녀의
비유에서 영적이고 세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밝힐 수 있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각자의 등에 기름을 채울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라면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됩니다. 주님은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교성 45 : 57)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된 사람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교성 45 : 58)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주께서
저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광이 저들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주께서 저들의 왕과 입법자가 되실
것임이라.”(교성 45 : 59)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원리와 프로그램

글렌 엘 페이스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맹목적으로 따르는 프로그램은 선을 행하는 훈련은 시켜 주지만, 원리를 올바르게 알고 행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품을 길러 줍니다.”



나는 5년 전에 교회 복지과의 책임자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니다.

며칠 뒤에 나는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그분은 “형제님, 복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은 정신이 번쩍 나는 질문이었습니니다. 그래서 나는 “부대관장님,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니다.

그분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시간을 내서 복지 원리에 대해 토의하자고 하셨습니니다.

그 후 첫 금요일에 사무실로 찾아가니, 롬니 부대관장의 비서가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 “부대관장님, 페이스 형제가 왔습니니다.”하고 말했습니니다.

그분은, “오, 그래.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만나 봐야지.”하고 말씀했습니니다.

두번째로 방문을 했을 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하는 말이 생각나서 두가지 토의 사항을 마치고는 이제

성도의 빛/1986년 7월호

그만 물러 가겠다는 적당한 신호로 서류를 들고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니다. 롬니 부대관장은 책상에 몸을 반쯤 앞으로 내밀며 눈을 찡긋하며 웃음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니다. “페이스 형제님, 뭔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인상을 주시는군요.”

하나님 왕국에서, 특히 복지 분야에서 50년 간을 헌신해 오신 분과 함께 보낸 그 값진 시간들을 내가 어찌 잊겠습니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제이 루우벤 클라크 부대관장 그리고 복지 원리를 강조한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니다.

나는 1936년 그랜트 대관장께서 마련하신 복지 프로그램의 목적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니다.

롬니 부대관장은 그랜트 대관장의 말씀을 암기하여 인용해 주고는 하셨습니다. “우리의 첫째 목적은 가능하면 게으름을 퇴치하고 실업 수당에 의존하는 악을 없애며 독립심과 근면, 절약과 자부심을 성도들에게 갖도록 해 주는 것입니니다. 교회의 목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1936년 10월, 3페이지)

롬니 부대관장은 1936년에 시작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신화적인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니다. 그분은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니다. “복지 프로그램에는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습니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진행 과정에 있을 뿐입니니다.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진행 과정이 있을 뿐입니니다.”(해롤드 비 리, “듣고 순종함”, 복지 모임 1971년 4월 3일)

롬니 부대관장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계명과 관련된 성구 즉 거의 모든 회원이 가난했던 때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와 미주우리주 잭슨군에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니다.

그는 1840년대의 나부에서와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유타에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했던 일들을 지적했습니니다. 그는 물문경에서 인용하고 신약을 활용하여 구세주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과 함께 보내셨는가를 강조했습니니다.

그는 그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했습니니다. “페이스 형제님,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까지 노력해 온 일은 성도들이 자립하게 하는 것입니니다. 그것은 자립을 하면 할수록 더욱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는 만큼 더욱 성결케 되기 때문입니니다.”

여러 해에 걸쳐, 사람들이 자립하도록 돕는다는 공통된 목표를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니다. 1936년에 영감받은 지도자들에게 알려진 복지 계획은 유명하게 되었으며, 정부 고위층의 지도자는 물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부러워하고 본보기가 되었습니니다.

그것은 교회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처럼 위대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요소도 갖고 있습니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계획 자체에 휘말려 들어서 원리를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원리에 대한 전통을 그러치게 되며 프로그램의 목적을 혼동하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나는 복지 농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니다. 우리는 도랑에서 잡초를 제거해야 했습니니다.

가는 길에 나는 나의 와드에 소속되어 홀로 사는 연로한 자매님이 자기 집 앞뜰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니다. 날씨는 상당히 무더워 그 자매는 곧 일상병이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니다. 그 걸을 지나치면서 나는 멈추어서 도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으나, 복지 농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양심을

위안시키며 계속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나는 내가 그 순간의 영의 속삭임에 따랐다면 그래서 내가 느낀 참된 동정심을 풀어 놓았다면 어찌 되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매는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는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나 나는 지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자선 봉사 행위가 더욱 필요합니다.

1983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중인 복지 프로그램에 몇 가지 중요한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핑클리 부대관장은 그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께 들으실 것들은 이미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에서 그 모든 것의 시행 방법을 깊이있게 고려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지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를 재확인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 더욱 독립적이고 자립심을 가지며 개인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며 기독교인다운 봉사에 더욱 온전히 참여하게 하는 회원의 의무를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합니다.”(고든 비 핑클리, 지역대표 및 스테이크 부장 세미나에서 행한 연설, 1983년 4월 1일)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표된 후, 교회가 복지 사업을 그만 두거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원리와 프로그램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본부 복지 사업 집행 위원회 모임에서 농장과 트랙과 건조탑과 통조림제조 등에 대해 열변을 토한 뒤에 모임을 마치고 나서 톨니 부대관장은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페이브 형제님, 우리는 왜 더 이상 원리와 교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받고 나서 나는 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3년 뒤 내가 복지 사업과의



대회 방문자

책임자 자리에서 해임될 때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원리와 관련된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좀더 열심히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리 대관장의 말씀은 여전히 참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 이외에 아무도 원리와 교리를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어느 일정한 시기를 관리하는 자들에게 영감에 찬 지시가 주어질 때 방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임을 진 형제님들께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것을 아실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엔사인, 1971년 1월 10페이지)

나는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언제 복지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성경, 물문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있느냐고 되물음으로써 답변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독이나 지부장이 있는지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나는 그들에게 그 나라에도 복지 사업에 필요한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수년 전 남미를 여행하는 도중 나는 어느 스테이크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지난 3년 동안 스테이크의 회원 중 반 이상이 실직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스테이크가 그 당시 지역 사무실로부터 200불 미만의 돈을 받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회원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서로 도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만 도운 것이 아니고 삼촌, 아주머니, 사촌까지도 도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촌이 취직을 하게 되면 빈 돈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와드 회원들은 비록 가진 것은 얼마 안되었지만 그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테이크 내의 회원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웠으며 또한 주님께 가까웠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크게 배가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로 실시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너무나 많은 것을 지난 수년간 배워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 됩니다. 우리가 원리에 대해서 좀더 알고 있다면, 온 세상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교회 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지역적인 자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회원들은 임무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서로를 돕게 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프로그램은 선을 행하는 훈련을 시켜주지만 원리를 올바르게 알고 행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품을 길러 줍니다.

나는 작년에 벨라드 장로와 함께 이디오피아를 다녀 왔습니다. 우리는 곤경과 빈곤한 상황을 마음에 새겨 그대로 간직한 채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생활 조건에 대한 생생한 모습으로 인하여 더욱 괴로워 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살펴 보게 된다면 금식 현금은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오늘날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아직 내 앞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마치고 너희가 내 앞에 있는 듯이 말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는도다.”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며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보다 더하는 때문이라.” (몰몬서 8:35, 37)

나는 교회 회원들의 관용과 사랑에 대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용과 사랑이 작년에 실시한 특별

금식 기간 때보다 더 열심히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교회의 회원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천만물이 넘는 돈을 모금했습니다.

회원들은 필요 사항이 생기면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필요 사항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회원들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가난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나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해결책이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어느 곳에서나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경제적으로 똑같은 수준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리는 파괴되며 독립심보다는 의존심을 기르게 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해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갖습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생명과 구원에 필요한 신앙을 낳게 할 힘이 없다.” (신앙 강화 6:7)

어느 곳에 있거나 교회 회원들은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하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가난을 해결하는 일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도움이 지나치게 많은 것과 부족한 것 사이의 균형을 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도움을 주어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독립과 자립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선은 실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풍요하게 생활하는 한 어떤 말일성도도 처참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물도 마시지 못하는 데 우리만 계속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까? “물질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 번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종교는 영적으로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알버트 이 보우엔, 교회 복지 계획, 36 페이지)고 하신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까?

1936년에 미국에는 경제 공황이 있었습니다. 원리에 입각하여 그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수립되었습니다. 교회 규모가 국제적이 된 오늘 날 많은 나라에서도 성도들이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복지 원리를 이용하여 80년대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세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대회 방문자



주님의 방법으로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라는 계명보다 더 자주 언급되고 강조된 주님의 가르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전에 의사로서 개발 도상국에 있는 여러 나라를 엘슨 자매와 더불어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나 보도에서 잠을 자고 있어 걸어 갈 때는 그러한 사람들을 밟아 채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궁핍하고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연민의 정이 끊어 울랐습니다. 등에 아기를 업은 젊은 어머니들은 그들의 은신처요,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작은 거룻배의 노를 저으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실은 나무 바퀴로 된 수레를 쫓은 남자가 노새나 말과 같이 가죽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신음하며 끄는 것도 보았으며, 그러한 행렬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 지고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원인은 다를지라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원인이야 어떻든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속 돌보아 주십니다.

구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배도의 상태에서 되돌아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외없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을 먼저 꾸짖으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경전은 가난한 자 특히 과부와 고아 나그네가 하나님의 오랜 관심사 였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특별히 율법으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는 추수할 때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줍는 것을 합법화 하였습니다. 또한 과일을 딸 때는 가지 끝에나 높은 데 못따고 남은 과일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년과 50년째 회년에는 농토를 경작하지 않았으며, 그 땅에서 저절로 자란 것은 주린 자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시 41 : 1 참조)

집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 14 : 21)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 (잠 29 : 7)

구세주께서 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가난한 자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부유한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마 19 : 21) (또한 누 18 : 22 참조)

주님은 그의 값진 비유의 하나로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 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 : 40)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 25 : 45)고 권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약시대에도 교회에 궁핍한 자를 돌볼 구속력있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눅 14 : 12-14; 16 : 19-31; 행 2 : 44-45; 4 : 32; 6 : 1-6; 11 : 27-30; 롬 15 : 26; 갈 2 : 10 약 2 : 1-9 참조)

물문경에서도 이 교리를 거듭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언자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죽을 때 까지……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모 18 : 8-10)

그와 같이 침례를 받아 그 의식을 인봉시켜 주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과 계명을 지킬 것을 엄숙하게 성약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도 그러한 계명의 하나입니다. 확실히 물문경 시대때 교회의 회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성스런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9 : 30; 모 4 : 16-27; 앨

1 : 29-31; 32 : 2-6; 34 : 28; 힐
4 : 11-12; 몰 8 : 35-39 참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라는
계명보다 더 자주 언급되고 강조된
주님의 가르침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그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1830년 12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바로 그해
겨울에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저희에게 전파된 복음을 갖게
되리니 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리라.
이는 그때가 가까왔음이니라.” (교성
35 : 15)

감독이 정해지고 그들의 임무가
정의 되었습니다 “저들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울지어다.” (교성
38 : 35)

1831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교성 42 : 30-31) 얼마 후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나니” (교성
44 : 6) 같은 해 말에 주님은 경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부자에게 화 있도다 너희의 재물이
너희 영육을 썩게 할 것임이라.” (교성
56 : 16)

경전에 기록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 관하여 재삼 재삼 언급되어
우리 귀에도 이러한 가르침과 더불어
집도 없이, 배를 타고 구걸하는
사람들, 노새와 말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에 시달린 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돌려
봅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겠다는
우리의 엄숙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그 시기는?

그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 봅시다.



대회 방문자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곧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만물이 나의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 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참으로 내가 만물을 만들어
인간의 자녀들에게 이를 주어
자유지대로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 (교성
104 : 14-18)

나는 주님의 처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니” (교성 104 : 16)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곳에서 지금 그의 계획에
따라 일을 시작 합니다. 주님의
“방법”에는 다음의 원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모든
자녀는……양친에게 양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장성한 후에 저들은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그 부모가 저들에게
상속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주의 창고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느니라. 이 창고는 교회 회원의
헌물로 유지되나니 과부와 고아는
이곳에서 지급을 받으며 가난한 자도
그러하니라.” (교성 83 : 2,4-6)

주님의 창고의 중요한 부분은
교회의 충실한 가족의 가정에 비축된
일년치의 양식과 생활용품으로 유지
됩니다.

혹자는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한 게으른

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꾼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 (교성 42:42)

제 손으로 몸소…… 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가난한 자에게 화 있도다.” (교성 56:17)

합당성의 여부는 감독이 판단하며 궁극적으로는, 니파이가 가르친 대로 주께서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의로써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땅의 온유한 자를 판단하시며”(니이 30:9)

우리의 임무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성약의 책임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교성 56:18-19 참조)

주님의 “방법”은 첫째 자신에게 의존하고 그 다음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았듯이, 부모가 능력이 줄어들면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자부심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에 앞서 가족의 결속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증진됩니다

만일 가족이 도울 수 없다면 교회 조직이 돕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감독은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의 훌륭한 자매들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한 조직은 가난한 자의 필요 사항을 보살피며, 자신 봉사의 대상을 찾으며, 그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 주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 지침서, 1931년 22페이지)

신권 정원회 및 그룹의 회원들은 잘못을 범했거나 불행에 처한 그들의 형제들을 영적으로 또한 현세적으로 구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이 실업자에게 임시로 도움을 베푸는 한편 정원회는 그 형제가 다시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직장을 추천해 줍니다.

교회의 회원인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방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관대한 금식 기금을 마침으로써 감독이 도움을 베퉴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율법의 일부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지금 어느 곳에서든 진정으로 가난



대회 방문자

하고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역시 축복을 받게 되고 배도의 길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구제 수단은 기껏해야 일시적인 것입니다. 감독의 창고가 어떤 일시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활 수준에 이를 수는 없으며, 모든 필요 사항들이 물품과 돈으로 충족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완전히 보살피 주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변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생활하면, 영적인 힘이 그의 마음을 밝혀주며 영을 구속의 사슬로부터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해력과 능력은 증가됩니다.

어떤 시인은 주님의 영의 위대한 능력이 개인을 들어 올리는 것을 느끼고 다음의 시를 썼습니다.

모든 기묘한 일의 으뜸이시오,

주님의 모든 계획의 지존하심이여, 주님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게 하셨나이다. (작자 미상)

향하게 하는, 신성한 원리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위로 향하는 능력이 곧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몇 년 전에 벨슨 자매와 나는 교회에 개종한 지 얼마되지 않는 남태평양의 어느 성도의 작은 집에 초대를 받았읍니다.

판자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서, 해상에 돌출해 있는 나무 더미 위에 지어진 그들의 집으로 다가 갔읍니다. 우리는 사닥다리를 기어올라 그들의 작은 단칸방 집안으로 들어갔읍니다. 우리는 갓 짠 풀방석위에 앉았으며 마루의 구멍을 통하여 밑에 있는 바다 물을 볼 수 있었읍니다. 그 집에 가구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며, 단지 상호부조회 자매들에 의해 마련된 고물 재봉틀만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가족의 사랑과 온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두드러졌읍니다.

그 아버지는 통역자를 통하여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노래를 한 곡 선사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팔은 아내를 다른 팔은 그의 부인에게 했듯이 다른 자녀를 둘러 껴안았습니다. 다섯명의 어린 자녀들이 새로 만든 옷을 입고 그들의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를 부모와 함께 불렀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들은 우리의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기 전에는 가진것이 거의 없었으나,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 내면서, 벨슨 자매와 나는 서로 마주 쳐다보며 복음은 언뜻 보기에는 현실적인 풍요와는 거의 무관한 듯이 보일 수도 있는 영적인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선교 사업은 주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후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고 순종할 때, 그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예언장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수 1:7; 왕상 2:3; 대하 24:20,31; 21, 스 6:14; 니일 2:20,4:14; 니이 1:9; 1:20; 4:4; 예 1:9; 욘 1:6; 모 1:7,2:22,2:31; 엘 9:13,36:1,36:30,37:13,48:15,48:25 참조)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성도들은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됩니다. 의로움과 자립 검약, 근면 그리고 자립 정신이 개인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에 의하여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역의 천사들이 합법적인 관리자에게 다시 와서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언자와 영원한 신권과 성약의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인류와 모든 종족과 모든 나라와, 남녀 노소, 가난한 자와 부한 자, 현세와 영생을 통하여 축복하기 위해 회복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 드립니다. 아멘. *

대외 방문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복지 원리 인간의 복지를 위한 영원한 계획

로버트 디 헤일즈 감독
관리 감독

“주님의 진정한 복지 창고는 그의 백성의 가정과 마음속에 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주님은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복지에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과거 50년 이상 영감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복지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장하여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힘과 주님의 진정한 복지 창고는 그의 백성의 가정과 마음속에 있습니다.

몇 달 전 해외의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고통과 탈수, 오한,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서 중요한 복지 교훈을 배우게 되었으니, 그것은 인간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곤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는 건강과 위생을 포함한 기본적인 자립을 소개하였습니다.

복지선교사들에게 지역 신권지도자들의 지시하에 지역교사들을 훈련 그들의 와드나 지부회원들을 가르치도록 복지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필리핀에 있는 성도는 말하길 “내 이웃이 그러는 데 불문들은 신체적인 향상에 대해서도 가르치니 훨씬 좋은 교회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쁜 이야기 입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회원의 근본적인 건강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나의 경험으로 보아 영적인 건강도 아울러 향상시킨다고 확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복지에 대한 경전 구절과 과거 50년 동안 연차대회에서 주어진 복지에 대한 말씀과 경전 구절을 읽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권 복지 원리의 위대한 가르침은 이 경륜의 시대와 다른 복음의 경륜의 시대의 많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예언자에 의하여 가르쳐 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활의 행동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다음 일곱 개의 복지 원리는 우리의 행복과 영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1. 복지 계획은 구원의 계획의 필수인 부분입니다.
2. 경전은 복지 계획의 영적인 틀을 잡아 줍니다.
3. 복지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줍니다.
4. 복지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복지 계획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길러 줍니다.

6. 복지 계획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다 같이 성결케 합니다.

7. 복지 계획은 시온 백성을 키워 줍니다.

1. 복지 계획은 구원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지” 라는 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지는 게으름을 조장하고 일하지 않고도 배급을 받으며, 빚이라는 부담을 가중시키며, 탐욕, 즉 영원의 부 보다는 이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을 키워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가 다같이 사랑과 동정의 거룩한 속성에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유한 자는 풍요속에서 괴로워하며 가난한 자를 “복지 대상자” 로 돌려 버리며 정당화 시킵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로 독창성을 짓밟고, 가족의 책임을 훼손시키고 분열을 조성하고 평등과 기회와 우정에 장애가 되기 마련인 조직속에 휘말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복지 프로그램을 반대하십니다. 그의 계획은 풍성한 자나 궁핍한 자를 막론하고 모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육과 영에 있어서)를 돕는 주요 임무는……(오로지) 그들의 필요 사항을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육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 1941년 7월 9일 말씀, 교회 역사과)

우리는 또한 “주가 그의 끝없이 크신 선하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번영하게 하게 하(히 12:1)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여 졌을 때 그들의 성품은 이려했습니다. “백성들은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며 저희 주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받아래 짓밟나니, 이는 오로지 저들이 안이한 때문이요, 크게

번영하는 때문이라.”

“주가 이 백성들을 고난으로 징계하시며……저들이 결코 주를 기억하지 아니 하나니”(힐 12:2-3)

범사에 상대되는 것이 있고 우리 생애 고난과 역경이 있는 목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욱 완전하게 되기 위해 궁핍한 자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명하는 진지한 생각입니다.

2. 경건은 복지 계획의 영적인 틀을 잡아 줍니다.

물론경의 색인을 펴고 “복지”라는 단어를 찾아 참조 성구를 보면, 여러분은 주님의 복지 계획을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복리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령이 그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구는 다음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형제들의 영원한 복지를 구하였고(니이 1:25 참조) 평생을 백성들의 복리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야 1:10 참조)

○아팜은 그의 백성들의 영육의 복리를 원하였고(니이 6:3 참조) 마음으로 니파이인들의 영육의 복리를 바라고 갈망하였습니다.(야 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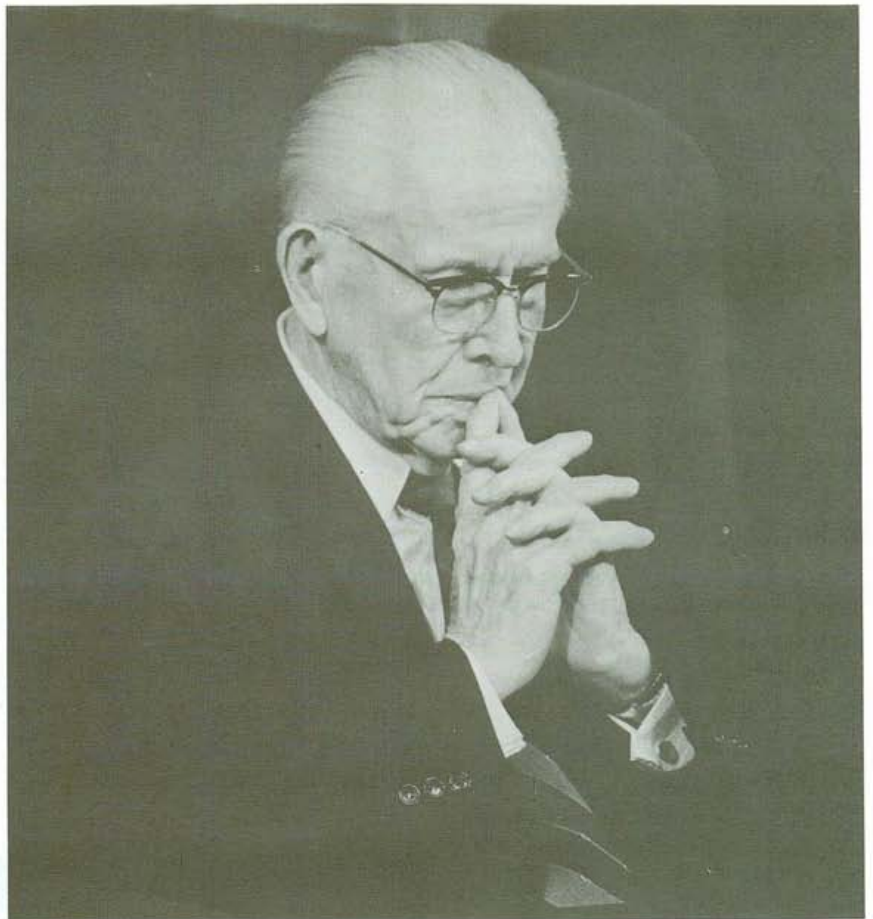
○그 뒤에,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의 영혼의 복리를 염려하는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모 25:11 참조)

○회원들은 자주 모여 저들의 영육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모로 6:5 참조)

“영육”의 복리라는 말이 거듭해서 언급된 점에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영육의 복리라는 말은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위한 단지 의식주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3. 복지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줍니다.

복지 계획은 다른 복음 행위와 공통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영적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세상적인 어려움은 우리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며, 하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또한 우리 형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자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합니다.

우리가 복지의 원리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우리의 힘과 자원을 덧붙일 때 우리는 우리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장애물을 극복해 나감은 어느 것도 주님에게는 힘들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확인됩니다.

4. 복지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립심을 기르고 검소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소한 생활은 사치를 버리고, 과분한 것을 피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완전히 활용하며, 우리의 수입한도 내에서 생활하는 합당한 태도를 기를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의해 벽돌이나 기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님의 진정된 복지 창고는 그의 백성의 가정과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이 자립하라는 권고에

따를 때 그들은 서로 돕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지식과 기술과 사랑을 담은 무한한 저장고를 나타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고는 “나의 백성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인간의 구원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교성 78:3,4)입니다.

5. 복지 계획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을 길러 줍니다.

우리가 복지의 원리대로 생활할 때 사랑과 동정심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곳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무절제한 행동과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는 서글픈 행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학대받으며 자란 자녀들은 학대하는 부모가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게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가족에게 무례하고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동정심을 발휘하라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질서를 세우고, 우리 가족의 영적 및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의 감정입과 관심권 밖으로 밀려날 수 없으니, 우리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노인이든, 청소년이든, 이웃이나, 나그네나, 다 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나의 관심을 끄는 기독교의 자선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단기 체류자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하루 저녁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수호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아와 집없는 자들에게 말없이 사랑과 동정심을 베풀며 돌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엘마(34:28)는 만일 성도들이 궁핍한 자를 외면하면, 그들은 "믿음을 거역하는 위선자 같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매달 "절약하는 생활 가족 회의"를 여는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와 더불어 자녀들이 십입조와 금식 헌금 외에 예산에서 25불을 어떻게 내어 궁핍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를 상의합니다. 지난 달에는 25불이 솔트레이크 초등학교 아동 병원에 입원한 어떤 어린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동정심을 가르치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어린이를 방문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은 다음달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줄 돈을 더 저축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은 다른 자선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는 것으로 그들의 자선 봉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족은 이웃 집에 불이 나서 집을 수리하는 동안 그 가족을 위하여 그들의 작은 집에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편하지 않았지만 이웃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18살 된 아들의 친구가 선교사를 준비하는 동안 일년 동안 거처할 곳이 필요한 것을 알고 그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영적인 모범의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그 친구가 선교 사업에 필요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는 성숙하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한 이래 그는 다른 사람을 강화시키는 일에 적극 나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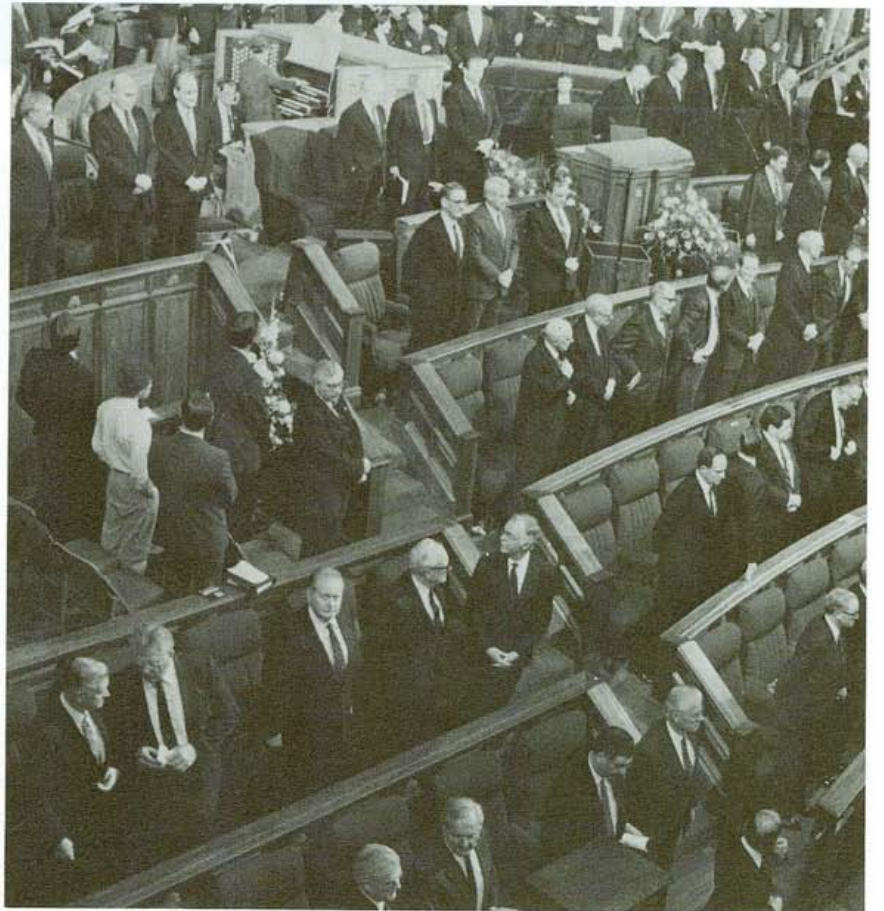
재정적인 필요 사항은 복지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그와 동등한 다른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도 내재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동정으로 개인적인 정서적 및 물질적인 면에서 자립심을 길러 주어, 유익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6. 복지 계획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다같이 성결케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는 자이며 동시에 받는 자가 됩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는 상호 의존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베풀어 주는 과정은 가난한 자를 높이며 주고 부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러는 중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대관장단과 다른 총관리 역원들



회중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델린 에이치 욱스 장로

양쪽이 다 성결케 되는 것입니다.”
 (“자립심” 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145 페이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르노니, 가진 것이 없다하여 구걸하는 자를 거절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저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주지 못하나, 내가 지닌 것이 있으면 주리도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노니”(모 4:24)

도움을 받는 것에서 제외되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에게도 실체는 이러합니다.

“보라, 우리가 모두 결식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모두……같은 분이신 하나님께 기대는 자가 아니냐?……그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으로 “너희 죄사함을 구하였도다.”(모 4:20)

7. 복지 계획은 시온 백성을 키워 줍니다.

경전에서도 시온은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모세 7:18) 도시로 특징지어져 있습니다.

시온은 “모든 자로 하여금 자기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하려는 것”(교성 82:19)입니다. 이 약속된 시온이 항상 우리의 손이 조금 못미치는 곳에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거하는 만큼 많은 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은 과정이요, 또한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 생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중에 또는 정직한 수입조와 관대한 금식 헌금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기회를 잡고 부지런히 그것을 행하는 태도에서 시온에 가까이 다가서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 생활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시온으로 가는 길에서 온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지를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복지를 위해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계획을 생각해 봅시다. 그 계획은 신앙과 사랑과 동정과 자립과 단결을 이루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 활동적인 신권 지도자에 의해 복지 계획이 지역적인 필요 사항에 적용될 때, 그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성결케하고 시온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 원리에 따라

오늘 우리는 노동과 자립심과, 검소한 생활, 주는 것, 궁핍한 자를 보살핌,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관대한 금식 헌금을 더 늘리고, 자선 봉사에 더욱 힘쓰고 가족이 서로에게 또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선 활동에 참여하라는 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라는 요청을 받았읍니다.

나는 우리가 천사의 성역을 받은 때의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모로나이 천사도 그러한 하늘의 사자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는 데 그의 방문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읍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내려와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을 위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됩니다.”(구원의 교리, 1권 조셉 필딩 스미스, 브르스 알 맥콩키 편, 186페이지)

여러분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기를, 동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안을 받기를,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금식의 법

엘 톰 페리 장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치지 않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스스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있는 많은 위대한 교훈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거듭 가르쳐 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인류가 개인적으로든 집합적으로든 삶의 기복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가족의 역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적어 넣은 분은 몇 이나 됩니까?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은 기복을 겪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1920년대에는 잘 지냈습니다. 나의 부친은 부동산과 다른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몇 년 동안 우리는 사실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던 차에 경제공황이 닥쳐 왔다.

그 당시에 생활한 사람은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부친은 돈을 모두다 잃었으며 거의 집마저 잃을 뻔 했다. 나는 두세 살 위인 누나에게 우리가 쫓겨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살 곳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묻던 기억이 난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려웠던 시절은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한 일은 항상 기억에 남아 있다. (리 아이아코카, 윌리엄 노백, 아이아코카 자서전, 뉴욕: 맨턴북스 1984년 7페이지)

그러나 변화가 인생의 일부임이 확실하듯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친절하신 아버지의 한 예로서, 그 분은 그의 자녀가 따를 수 있는 분명한 진로를 제정하였으며, 그 진로의 목적은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가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세월이 흘러도 변치않는 참된 원리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이 연차 대회에서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적용하도록 제시된 복지 사업의 원리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복지 사업의 계획에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에 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의 법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따르도록 마련해 주신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그 개념이 얼마나 단순하며, 행하기가 얼마나 쉬우며 또한 순종할 때 늘 축복이 따른다는 사실에 항상 놀라게 됩니다.

금식의 법은 교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주린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는 것이며”(이사야 58:6-7)

경전상의 다른 많은 실천 원리와 마찬가지로 금식의 법도 주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금식의 법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가 금식한 것에 해당하는 기금을 냄으로써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둘째, 금식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셋째로, 금식은 개인적으로 겸손함과 영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돈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도록 바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에게 주신 한 가지 가장 강력한 권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은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 (모사이야서 4:26)

침례 성약에는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고,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겠다는 우리의 맹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사이야서 4:26 참조)

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주님의 제도에 더욱 감동을 받습니다. 분명 인간의 필요 사항을 만족시키는 그토록 단순하고도 심오한 방법, 즉 주기적인 금식을 통하여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전하고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절약한 돈을 감독에게 헌금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억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제 사업의 기본 원리는 그것이 금식 헌금과 기타 자발적인 헌금이나 기부금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방법입니다. 십일조는 원래 그러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절박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1944년 10월 6일 반연차 대회, 감독 모임)

종교 역사를 통해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히스기야 왕 시절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 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계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역대하 31 : 10)

오늘 우리는 롬니 회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감독님의 말씀처럼 금식 헌금을 관대하게 바치고 교회 지도자들이 권고하는 모든 기금을 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와 왕국 건설을 위하여 기부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더 가난해 질 수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50여 년도 더 되는 오래 전에 나는 벨라드 형제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선교사로 성임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기도를 하시던 중에 사람이 빵 부스러기를 주님께 드리고 그 대신 덩어리 빵으로 돌려 받지 못할 사람은



대관장단과 인사를 나누는 날 에이 맥스웰 장로

없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금식 헌금을 배로 내신다면 영성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헌금을 관대하게 내야 합니다. (복지 농장 모임, 1971년 4월 30일)

지상에 널리 퍼져 사는 인간에게 주신 주님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금식 헌금의 결손액을 교회의 십일조에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치지 않음으로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스스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냄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름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는 신앙을 갖도록 합시다.

금식은 또한 우리의 신체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전에 사이언스 뉴스지에서 찰수 엘 굴리치씨가 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오늘 날 우리의 식사 습관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동물 연구를 통해 어려서부터 칼로리를 제한하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위험률을 낮추어 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금식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험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실험에서는 주기적인 금식이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게 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언스 뉴스, 1979년 12월 1일, 116권 #22 참조)

금식은 또한 자기 수련과 자제심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가는 가장 훌륭한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며 자신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수치스럽고 비열한 일이다.” (법, 제 1 집, 6261편)

금식은 우리를 도와 자제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훈련을 쌓도록 도와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금식의 율법에 따름으로써 육체적으로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끝으로 금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겸손과 영적인 힘에 대해 살펴 봅시다.

구세주께서는 분명히 이 원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침례 받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경전 기록에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누가복음 4:1-2)

마귀는 그의 모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구세주께서 그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시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세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누가복음 4:8, 13-14)

금식은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물문경에는 엘마가 맨타이 땅을 향해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이라헤블라 땅을 향해 가고 있던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만나 무척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 엘마는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진리에 대한 지식이 더욱 깊어 졌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십사년 동안이나 레이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넣어 주었으니, 참으로 저들의 말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단 앞에 인도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였느니라.”(엘마서 17:3-4)

이 두 가지 예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금식과 기도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줌을 보여주는 경전에 나와있는 많은 기록 중 한두 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금식의 이점을 살리기만 하면 이와 똑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행해 온 위대하고도 영감에 찬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축복을 받고 또 다른 분들의 간증 말씀에 저의 간증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나의 부친은 1936년 4월 연차대회에서 복지 사업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와드의 감독이었습니다. 세계는 대경제 공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와드의 많은 가장들은 실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10센트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학교 활동을, 그 적은 돈을 주지 못해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감독이었기 때문에 나는 복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던 처음부터 부친이 사랑과 온유함으로써 와드 회원들을 보살피던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계획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서 집까지 달려 왔었는지 모릅니다. 집 모퉁이를 돌아서면 집 앞에 쌓여 있는 밀가루, 설탕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날 저녁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섭섭해 하곤 했습니다. 계획된 활동은 취소되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항상 그 물건들을 차에 싣고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전해 주러 나갔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나르면서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낙담했던 가족들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식량을 보고는 용기를 갖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금식 헌금이 훌륭하고 친절한 신권 지도자를 통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아 준다는 사실에 늘 유쾌한 기분을 갖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있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지도자를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의 계획에 따를 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대회 방문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되었으니”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오래 전 전세로부터 ‘이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의무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요셉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행하는 자 곧 사자가 되어 그러한 의무를 행합시다.”



만 일 내일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학자들이 에녹과 아브라함과 모세의 기록이 포함된 놀랍고 중대한 수십 페이지의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흥분해서 발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록은 많은 중요한 사실과 더불어 주님이 어떻게 모세를 가르치셨고 다른 세상에 관해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모세서 1 : 4-6, 8, 10, 30, 37-39; 이사야 45 : 18 참조)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록은 그와 또한 다른 사람들도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3 : 23; 예레미야 1 : 5) 이 선택받은 무리 중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제13대 대관장이 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신권을 지닌 모든 충실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표준으로 보면 “세상의 미약한 것”(교성 133 : 59)들일지라도,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부름을 받아 준비되었음”을 압니다. (앨마 13 : 3) 에녹에 관한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18배나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인간의 이상향이 실제로 한때 성취되었음을 알고 에녹의 성에 있는 특별한 백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갖게 됩니다. (모세서 7 : 17-19)

또한 이러한 놀라운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아담의 시대에 가르쳐지고 그 의식들이 집행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모세서 5 : 58-59) 아담은 그가 죽기 3년 전에 의로운 후손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가르치고 축복했으며, 미래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주님도 이처럼 특별한 가족 모임에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교성 107 : 53-57)

그와 같이 진지하고 진리를 밝혀주는 사실이 제시된다면 우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크게 감명을 받고 흥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사해 두루마리나 다른 고대 기록이 발견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흥미를 자아내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은 잠시 귀를 기울이다 곧 다시 세상적인 관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처럼 “찾아낸 것들”은 중대한 회복의 일부에 불과하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놀라운 성역을 반영해 주는 것이며, 그를 통해 그러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자세히 살펴 보자면 완전한 언덕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진리를 통해 우리는 가장 높은 이해의 정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많은 저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1600페이지가 채 못됩니다. 이 성경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거의 900페이지에 이르는 다른 경전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모세, 바울, 누가 그리고 물문이 편집한 모든 기록보다 더 많은 것으로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의 양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에서 단지 몇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에서 불과 3,4페이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까!

회복이 있기 전에는 실제로 텅빈 상태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를 만나기 전에 브리감영은 자신에게 “하나님과 하늘”에 관해 무엇이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지구끝까지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집, 8 : 228)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에 관한 모세의 또 다른 기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서재로 가거나 신권회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필경 그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손과 무릎에 대해 더욱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니일 17 : 41 참조)

경우에 따라 우리는 경전을 인용서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탐구해 봄으로써, 비로소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세의 준비와 부름에 관해 말해 주는 앨마서의 세 구절은 공식적으로 인류의 전세에 관한 수 세기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앨마 13 : 3-5 참조) 1833년에는 더욱 큰 확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

하였나니, 참으로 그러할 수는 없”(교성 93:29)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확실한 소속감에서 “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18장)를 부를 수 있습니다.

1832년에 예수님은 이 기쁨이 넘친 때에 나타나시어 그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증언을 하는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교성 76:23, 24; 요 1:3; 히 1:2 참조)

형제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으며 무엇이 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역사가 없이 어떻게 참된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하고 우주적인 계획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자신의 보잘 것 없는 개인적인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1833년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에 은혜”를 입어 마침내 증만함을 받으셨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교성 93:13 참조) 이것은 특히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생활에서 요구되는 자질들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들과 같이 되기를 권하신다는 것을 아는 관점에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마 5:48; 니삼 12:48; 27:27)이 원대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이 진지하게 이야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받았으므로 분명히 필요한 구체적인 성품에 관해 이야기들은 것입니다. (마 18:3; 모사이야 3:19; 엘마 7:23, 13:28 참조)

그와 같이 노력하는 중에, 신권을 지닌 모든 사람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신권의 권능 뿐만 아니라, 모범의 권능을 지닌 참된 축복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구절을 통해 우리가 “원죄”의 불행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래 전에 용서해 주신 아담의 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실제로 지은



철심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칼로스 이 애시 장로와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렉스 디 피베가 장로

개인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모세 6:53-54; 교성 93:38; 신앙개조 제 2조 참조) 사실, “아담의 타락으로 만미암아 우리가 지금 존재”(모세 6:48)하며 “인간의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니삼 2:25)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기록하라는 명을 받은 모세는 또한 그가 기록할 책에서 “많은 것”이 후에 빼내어 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일에 인간의 자녀들 가운데 “또 다시 있게”될 것입니다. (모세 1:40, 41 참조)

형제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또 다시 있게”되었고 우리는 이 귀중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진리가 우리를 감싸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탐구하고 숙고하고, 느끼며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단지 이론적으로 정확하고 철학적인 각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기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에지와 영적인 힘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이 말씀한 대로 피곤하여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히 2:1-3, 니이 31:20 참조)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시해 주신 것 즉 이는...모든 인간에게 주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러한 교리는 내일의 시련, 다음 화요일의 유혹, 또는 다음 순간의 자기 연민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됩니다. 결국 징계와 우리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는 것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모사이야 23:21 참조) 그것은 모두 놀라움 만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나 은하수의 구조이든지 성전과 가족에 관한 진리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태초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니이 11:4; 모세서 6:63)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고 그를 닮아가도록 마련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지한다면(로마서 9:30-32 참조) 이 빛나는 회복의 교리들은 우리가 이 곳에서 머무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게 해 줍니다. “스스로 돌이킨” 탕자와 같이 우리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할 때 필요한 시현과 지시를 받습니다.(눅 15:11-32 참조)

우리가 이 교리와 관련하여 실천해야 할 첫번째 일은 단지 바라보는 것이며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눈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지평선 저 너머를 보게 해 주며 하나님의 도사에서 나오는 불빛을 비쳐 줍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행복한 모습을 띤 곳이며, 그곳에서는 의와 진리뿐만 아니라 공의와 자비가 불변하는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부드러움과 관대함이 가득 차 있고 “강제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교성 121:46) 과거의 원시적인 곳에 있었던 야비하고 이기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질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게 됩니다. 모든 주민이 첫째와 둘째되는 큰 계명을 지키는 이 도시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진 사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사에서 이방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곳에 있었으며, 그때 이처럼 어렵지만 필요한 지상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알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하였습니다.(욥 38:4-7 참조) 우리가 노래한 것은 분명히 “할렐루야 합창”보다 더 위대한 찬송이었으며, 흥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이 부른 노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출 15:1-2 참조)

성전과 경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세상이 있어 그 우주안에 우리의 “사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들려주고 있어 우리에게 놀라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야곱서 4:13; 교성 93:24 참조) 사물을 볼 때, 경륜의 시대는 단지 짧은 순간에 불과하며 새롭게 맺은 우정은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며 주님의 부름을 받고 보내진 예언자들은 후에 산꼭대기나 언덕이나 숲이나 들이나 감옥에서 만날 때 모든 시대를 초월한 관계를 그대로 들어 내게 됩니다.(모세서 1:1-2; 마 17:1-7; 요셉 스미스 이서 1:14; 48-50; 행 23:11 참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시에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고전 2:9 참조)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눈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귀는 그 도에서 울리는 음악과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이르려면 많은 시련이 따를 것입니다. 신앙과 인내 그리고 순종이 필수적인 것이지만(모사이야 23:21; 아브라함 3:25 참조) 여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사람에게는 무한히 “더하여 질”(아브라함 3:26 참조)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가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갈 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겠지만, 마침내 집에 대한 간절한 향수는 끝날 것입니다. 한편 지상 생활에서의 귀향은 그 귀향의 어렵פות한 전조일 뿐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 시대에 회복된 이 분명하고 귀중한 교리들은 올바른 견해로 훌륭한 것을 가려내어 주며, 방사능 물질과 같이 빛이 강하므로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체성과 의미에 대한 커다란 의문에 대하여 복음의 회복을 통해 그 답변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확실한 “예”와 더불어 때로는 “아니오”라는 답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복된 진리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단지 놀라울 뿐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주에 대한 한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과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요셉 스미스와

이야기하신 것과 같은 단순하고도 영감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이보다 더 적절하고 빛나며 참될 수 없습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찬송가, 185장 참조)

우리는 오래 전 전세부터 “이곳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의무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요셉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신권을 지닌 형제 여러분, 행하는 자 곧 사자가 되어 그러한 임무를 행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더가 “아침부터 해가 지도록”(이더서 12:3) 수행했던 것과 같이 귀중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아빈아다이와 같은 회생과 용기를 지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모두 전하리다.” 하고 말한 다음 “내가 어디로 갈지는 상관치 아니하노라.”라고 말한 후 불에 타 죽었습니다.(모사이야 13:9)

실행자는 이러한 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 것 입니다.(요 7:17 참조) 그러므로 실행하지 않는 자가 비웃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교리로 다른 사람들이 동요된다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고대 사도들이 그들의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행 5:28 참조) 예수께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마 22:33) “원망”하는 자들의 교리적인 무지를 치료하는 방법은 교리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이사야 29:24 참조)

위대한 회복이 주어졌으니 “나의 기쁨은 차고 넘”칩니다.(엘마 26:11) 마땅히 예수님이 받아야 할 만큼 그에 관해 말하지 못하고 단지 “내가 느끼는 것 중 극히 작은 것”(엘마 26:16)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영혼에 음악 있나니 왕께 드리는 노래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예수 들으”십니다.(찬송가, 39장)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의무에 대한 부름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 보좌

“그 분이 명하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현명하든 단순하든 그들이 주님의 우인으로서 겪게 될 힘은 일과 갈등과 고난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써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 본부 신권 대회에 참석하는 특권을 받을 때마다 그 동안 이 단상에 섰던 또 그들의 훌륭한 마음과 깊은 영혼과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방향과 지시를 해 주었던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회상해 보게 됩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가 언제나 간곡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훈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

클라크 부대관장을 비교적 잘 알게 된 것은 나에게서 큰 특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출판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그의 가장 깊은 마음속의 생각과 그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근간으로 삼고 또 생활의 지표로 삼은 그런 성구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솔트레이크시티의 80번지 디(D)가의 그의 자택에 있는 사무실로 신문 교정본을 갖다 드렸습니다. 클라크 부대관장은 전도서를 읽고 계셨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깊이 사색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책과 종이가 쌓여 있는 큰 책상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앉으셨습니다. 그는 손에 경전을 들고 인쇄된 페이지로부터 눈을 들고 나에게 그 귀절을 소리내어 읽어 주셨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진리이다! 심오한 철학이다!” 그 대화는 그 이후 여러 해 동안 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의무라는 고상한 말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남북 전쟁 당시 유명했던 전설적인 인물인 로버트 이 리 장군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의무는 우리 언어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단어이다……누구도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결코 그 이하를 행하기를 원하면 안된다.”

역사적으로 같은 시기에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직을 맡기 위하여 스프링필드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힘을 창조한다는 신앙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의하여 끝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본분을 과감하게 수행합니다.” (뉴욕주 코퍼 유니온 연설, 2월 27일 1860년)

시간은 흐릅니다. 본분은 그 시간의 흐름과 박자를 같이 합니다. 본분은

희미해 지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재난을 몰고 오는 전쟁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쟁 나팔처럼 여러분과 나와 도처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울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의무의 부름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부름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모든 후임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에게까지 왔습니다. 의무의 부름이 소년 니파이에게 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 니파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부친의 천막으로 돌아 오니, “부친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꿈을 꾸었나니, 꿈에 주님께서 나와 너의 형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라 명하셨느니라.”

“보라, 이는 레이먼이 늦춰판에 새겨진 유대인의 기록과 너의 조상들의 족보를 가졌음이라.”

“주께서 내게 명하사 나와 너의 형들을 레이먼의 집에 보내어 기록을 찾아 광야로 가져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보라, 네 형들은 내가 저들에게 명한 일이 어렵다 하여 불만을 토하였으나, 보라 이는 나의 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명이니라.”

“그러하니 가라 나의 아들이, 네가 나의 분부에 지역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의 사랑을 입으리라 하시고로,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과 나에게 그와 똑같은 부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레이먼과 레뮤엘처럼 불평하며 “우리에게 시키는 이 일은 힘들 일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또는 니파이처럼 각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순종할 때에 그 인간은 항상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테일러 부대관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무를 행하였더라면 감해 주셨을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존 이 페이지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었을 때 그에게 의무의 부름이 왔습니다.

존 이 페이지는 “불평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셉 형제님, 나는 캐나다로 선교 사업을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을 외투도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기 외투를 벗어서 페이지 형제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형제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존 이 페이지는 캐나다로 선교사로 떠나서 2년 동안에 8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며 600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앤드류 켄슨, “존 이 페이지” 역사적인 기록 5:57)

어떤 유명한 성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돈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대업에 헌신할 때 가장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의무감보다 더 커지기 전에는 애국자로서 깃발을 쫓기 보다는 정용병으로써 싸울 것입니다. 의무는 할 수만 있으면 기쁘게 그 의무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행하기 전에는 결코 합당하게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잠 자면서 인생의 기쁨인 것을 꿈으로 보았네.

잠에서 깨어나 인생이 의무인 것을 알았네.

나는 행하였으며 의무가 기쁨인 것을 알았네.



대회 광경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가 받는 지명에 응할 때 의무의 부름은 조용히 올 수 있습니다. 그 겸손하면서도 유능한 지도자인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거룩한 신권의 권세와 힘에 의하여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여러분을 따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부름의 품위와 중요성을 쌓고 모든 인간이 보기에 명예롭고 칭찬할 만한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며 신권을 통하여 다른 인간이 보도록 하늘의 빛이 비추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까? 단지 그 부름에

수반되는 봉사를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배우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장로로 성임된 부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은 장로나, 집사나, 교사, 제사나, 감독이나 신권의 직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1950년에 나는 감독으로서의 의무를 받았습니다. 그 부름에 따르는 책임은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교리와 성약이 확실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감독의 직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람에게 말씀해 준 것이 엄숙한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교회 지침서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태이크와 본부지도자들이 행정 관리의 원칙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독은 (1) 와드의 아버지이며 (2) 아론 신권 회장이며 (3)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며 (4) 적절한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5) 이스라엘의 보통 판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본부로부터 오는

특별한 지명이 있습니다. 감독은 군인 개개인에게 처치 뉴스와 임프르브먼트이라를 한 부씩 정기 구독시켜 주고 매 달 군인 개개인에게 편지를 한 통씩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동란이 격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와드에는 군복을 입은 사람이 23명이 있었습니다. 신권 정권회에서 노력하여 출판물 정기 구독권을 모금하여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나는 2차 대전 때 해군에 복무했기 때문에 고향으로부터 오는 편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매달 23통의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 일 즉, 의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내가 쓴 편지와 답장 받은 것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다시 읽을 때는 자주 눈물이 납니다. 군인이 복음 대로 생활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선원이 자기 가족과 함께 신앙을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와드의 어떤 자매에게 그 달에 보낼 23통의 편지 꾸러미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고 늘 바뀌는 주소록을 정정하고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봉투하나를 슬쩍 보고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실망하지 않습니까? 브라이슨 형제에게 가는 편지가 또 있군요. 이 편지는 답장을 받지 못하고 쓰는 17번째 편지이군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답장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의 답장은 귀중한 기념품이며 문자 그대로 보배입니다. 그 편지에는 “에이 피 오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먼 해안에서 격리되어 향수에 빠져 외로이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애하는 감독님, 저는 편지를 잘 쓰지 못합니다. (나도 17개월 전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치 뉴스와 잡지를 보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독님의 개인적인 편지에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론 신권에서 제사직에 성임되었습니다. 내 가슴은 너무나 벅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브라이슨 형제가 그의 감독보다 더 기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격언의 실제적인 적용을 배운 것입니다. “너의 의무를 행하라. 그것이 최선이다. 나머지는 주님에게 맡겨라.”

몇 년 후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님이 스테이크 부장으로 계시던 솔트레이크 카튼우드 스테이크에 참석하고 있을 때 나는 군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기 위하여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어떤 훌륭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몬슨 감독님, 저를 알아 보시겠습니까?”

나는 “브라이슨 형제! 어떻게 지냈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지?”

그는 따뜻하게 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잘 지냅니다. 저는 장로 정권회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 주신 관심과 저에게 보내 주신 편지에 감사합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어디서 일하리이까?

저의 사랑이 따뜻하게 흘러 넘치나이다.

그러자 작은 지점을 가리키시면서 “나를 위하여 저것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즉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것은 싫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저것을 안 볼 겁니다.

저 작은 것만은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엄한 음성이 아니라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 작은 사람이여, 그대의 가슴을 살펴 볼지이다.

그대는 그들을 위하여 일하는가 나를

위하여 일하는가?

나사렛은 작은 장소였으며, 갈릴리도 그랬느니라.

(미이드 맥과이어)

형제 여러분 우리의 의무를 배웁시다.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걸으신 길을 걸을 때 샌들을 신으신 발자국 소리를 들읍시다. 목수의 손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뻗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호숫가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미지의 사람으로서 이름도 없이 우리에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 오너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며 우리 시대를 위하여 그가 성취시키실 과업을 향하여 우리를 출발시키십니다. 그분이 명하시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현명하든 단순하든 그들이 주님의 우인으로서 겪게 될 힘든 일과 갈등과 고난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으로써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베들레헴의 아기나 목수의 아들이나 이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 우리 구속주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의무의 부름이 왔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 4:2) 우리도 이와 같이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전도의 문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여러분은 오늘 희생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언제인가 하게 될 가장 위대한 투자로 대신됨이
입증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이
연단에 다시 서서 주님의 일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드리며 영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관대
하십니까? 그는 우리가 따른다면
행복을 가져다 줄 생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와 고통과 항상 죄로 비로되지는
비참함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며
우리에게 굳건한 가정 생활을
마련해주고 그 가정 생활을 통해
위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 개인을 하나님의
가정에서 형제 자매와 친구의 거대한
단위속에서 하나가 되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은
서로를 받쳐주고 지지하며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배움으로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며 물질적인 복지를 조장시켜 줄
그러한 원리대로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벗/1986년 7월호

모두에게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총관리 직원들은 나에게 선교사와
선교 사업에 관하여 말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는 어느 날 저녁에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한 젊은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굉장히
문제가 될 교육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녀를
떠날수가 없다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희생을 수반하는 재정적인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염려는 내 자신의 생애에서 경험했던
몇 가지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의 나이에 나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와
세계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지역의
실업자가 약 35%였으며 대부분의
실업자는 남편과 가장이었습니다.
비교적 소수의 여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매우 소수의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년 동안에 보냈던
선교사 수만큼을 이제는 일 주일내에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학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 어떻게든지
진학하고자 계획 했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이 나에게 충격적으로 여겨지는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으로
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그곳은

가장 경비가 많이 드는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매월 비용은 지금의
약 500불에 상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가
이러한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저금 구좌를 마련해
놓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른곳에 저금구좌를 갖고 있었지만
나의 저금 구좌가 있던 은행은 문을
닫았고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은행의 파산을 보상해주는 정부의
보험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위대한
신앙과 사랑을 가지신 나의 아버님은
모든 가족의 희생의 협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것이 하나의 기적과 같이
여겨 집니다. 어떻게든지 매달 돈이
마련되었습니다.

선교 지역에서의 봉사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회고해 보면 나는 영국에 도착하였을
때 필시 이기적인 한 청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사가 주님 사업에 대한 더 위대한
관심사를 위하여 곁에 제쳐두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는
수많은 젊은 남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반세기
이상이나 알고 지내며 사랑하고 있는
귀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가 떠났던 그 소녀는 내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나에게 좀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 봄에
우리는 결혼 50주년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교사 경험에 대해 진심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수년 동안 감사를 표하고 있는
몇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행했거나 다른 선교사들이
행한 침례수에는 결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가
행하길 원하신 것을 행했다는 것과
내가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그의 손의 도구자였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만족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사업이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원리대로
생활할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예언자를 통하여 회복되었다는
확신과 지식이 굳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거대한 청중속에는
전에없이 심각하게 선교사로 나가야만
할 것인가에 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몇몇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떠날 수
없다고 느끼는 아름다운 소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사랑하는 나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받은 축복을 세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위대하고 훌륭한 모든것들 즉
여러분의 생명, 건강, 부모님, 가정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모두 관대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없이
혼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것인 모든 귀중한
것들은 모두 훌륭한 선물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거두시고 여러분을 떠나시리라고
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감사와
고마움의 정신을 나타내어 의무의
분별력 여러분이 가진 그렇게 많은
훌륭한 것들에 대한 근원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업에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을 바치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헌납하는 데 여러분의 시간을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회생으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언제인가 하게 될 가장
위대한 투자로 대신됨을 입증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데 주저하지
하십시오.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안셀 아브레아 장로와 대관장단 목사인 대비드 케네디 형제

부름이 주어질 때 주저함없이
대답하십시오. 헌신의 정신으로 나아
가고 그의 위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좀 젊은 청소년들에게 앞으로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지금 돈을
저축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위험에 빠질
곳인 투기적인 구좌에 두지 마십시오.
이 위대한 목적을 위해 그것을
봉헌하고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신학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에 참석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몬경을
읽으십시오.

근래의 사치스러운 젊은이들은 봄
휴가와 다른 시기에 색다른 곳에
유람한다고 많이 들립니다. 왜 집
근처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선교사 기금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저축한 것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만명 이상의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찾기 어렵지만 준비되고
기꺼이 그들을 찾아 나서려는
사람들이 없는 한 찾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와
모든 사람을 축복하셔서 선교사를
계획하고 여러분의 삶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책임인 의무를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교회에 개종한 한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읍니다만, 그렇게 하기 보다는 그가

직접 말씀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침례를 받은 윌리암 셰필드 형제를 소개합니다. 셰필드 형제님, 형제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암 셰필드 :

사랑하는 형제님, 버클리 법대를 졸업한 후 나는 인도의 수상인 인디라 간디를 포함하여 특히 국제적인 소송 의뢰인들과 사적인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갔습니다.

수년 동안 변호사로 있으면서 나는 판사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나를 불러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고 말해 주던 날 나는 매우 기뻐하며 언젠가는 대법원 판사도 될지 모른다는 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된지 2년도 채 되지 못해서 새로운 집을 막 구입한 후에 우리는 이처럼 한가로운 생활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신학원에 가라는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나와 나의 아내는 그때부터 항상 주님을 신뢰할 것과 시냇물을 따라 떠나가는 나뭇잎과 같이 그의 시냇물에서 두 나뭇잎이 되기를 동의하였는데 그의 부름에 순종하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주님이 누구이며 어떻게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거의 매일 나는 조용히 자문해 보았습니다. 인생에 목적이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그것을 얻기 위해 가장 즐거운 길을 따라 쫓는 가운데 발견되는가? 아니면 그 이상 무엇인가가 있는가? 나의 기독교인인 친구들은 나에게 내가 해야만하는 것은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마 7:7 참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드렸을 때 주님께서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씨앗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것과 같이 복음은 나의 생활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부르는 영을 느껴 예일

신학대학에 지원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판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우리의 남부 캘리포니아 집을 세 준 다음 코빅 더컷 뉴우 헤본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에 다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교회의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뉴우 헤본에 도착해서 우리는 대학교 근처에 있는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했지만 예일 대학교 근처에 우리가 원했던 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일에서 약 40마일 남쪽에 있는 뉴 카나안 제일 와드라는 매우 특별한 와드내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기적 끝에 우리는 처음으로 이 와드의 주일 성찬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 이상으로 영접 받았습니. 우리는 그 건물 안에서 5분 이상 있지 않았는데 우리는 감독과 그의 보좌에게 소개되었으며 다음주에 열릴 저녁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특별히 남자 회원들이 지닌 빛나는 영성에 우선 나의 관심이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장 복잡하고 분주한 뉴욕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깊은 영성을 계속 발산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교회가 침되다는 간증을 할 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알아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특별히 물몬이 되려고 원하지는 않는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신학대학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서 내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물몬이 된다면 졸업한 후 종교에 관한 이 학위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 주님께 하리라고 약속한 대로 시냇물을 따라 떠나는 나뭇잎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요셉 스미스 이야기를 연구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던 그 시간 동안 와드의 친구들은 참고 기다렸으며 사랑하고 친절했습니다. 내가 감독님께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디즈니 보다 더한 환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을 때마다 그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감독의 보좌에게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을 때마다 그는 아니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였으며 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수개월동안 내가 요셉 스미스 이야기와 물몬경에 대해 조사하고, 전후 참조하며 숙고하고 기도하는 동안 나는 물몬경이 완전하고 정교하며 교리적으로 심오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은 점점 심오한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어났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과 비 활동 회원이었으나 전에 지녔던 신앙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아내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기쁘게 해 주기 위해 교회에 가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방문자

나는 내가 간증을 갖고 진정한 증인으로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으며 물몬경이 복음의 말씀이며 말일성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에만 교회에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해 9월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간증을 갖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런 의심없이 확실하게 그리고 그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세에서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를 말일의 그의 예언자로 선택하셨다는 것과 물몬경이 그리스도 자신에 의해 보전되어 요셉 스미스에게 번역하도록 전해 주셨다는 것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교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뉴우 카나안 제일 와드와 사랑하는 나의 아내에게 큰 빛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굳건한 충성심,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모두 하나가 되어 나에게 영원히 영향을
지지 표시를 하는 광경

미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예일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나에 대하여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분명치 않지만 나는 나의 아내와 내가 항상 계속해서 그의 교회에서 시냇물에 떠가는 나뭇잎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드립니다. 아멘.

셰필드 형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영원한 진리로 인도될 수 있는 이 훌륭한 형제님과 같은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닌 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되어야 하며 그들은 우정증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느껴야 하며 가정에서 그들은 교회 회원의 생활에서 그들이 자신 스스로를 위하여 바라는 이들 도덕들을 볼 수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셰필드형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과 같은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동생과 함께 백성들에게 제사와 교사로 봉사했던 물몬경에 나오는 아픔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 하였을 때 백성들이 짓는 죄는 대신 떠 받지아니 하려 주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 하였으므로……(야 1:19)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위대한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우리에게 부여된 이 위대한 책임에 충실하도록 나의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 합니다. 아멘. *



“주님의 청년”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2년 동안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대회는 영광스러운 모임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한 것을 특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교회의 청소년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그들의 복지와 행복은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들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많은 아버지들과 신권 지도자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데 그것은 그들도 나의 메시지를 듣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목적을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오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영원 전부터 예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일에 주님의 충실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나는 여러분을 오늘 날의 힐라만의 아들로 생각합니다. 물몬경에 나오는 힐라만의 2,000명의 용사와 그들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떻게 그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었는가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훌륭한 어머니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 젊은이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까.

(앨마서 53 : 10-23; 56 : 41-56 참조)

젊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두 어머니와 가까이 지낼 것을 권고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중하십시오. 의로운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시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 들이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 계시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의 훌륭한 성품을 닮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가족은 영원하며, 여러분은 그 가족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밤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십시오. 가족 기도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둘러 앉아 무릎 꿇으십시오. 가족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다 하십시오. 그러한 가정에서는 세대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정은 여러분 자신의 형제 자매와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을 도와 짐을 덜어 주어, 노래의 가사처럼 “내 형제이니 무겁지 않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족은 오늘 날 악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가까이 있고 강하게 되도록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영원히 축복할 신앙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다음으로 경전을 매일 읽고 숙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세의 소년으로 그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대체로 그의 조그만 침실이 있는 등유불 가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1519페이지를 다 읽을 때까지 매일 밤 경전을 읽었으며 거의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경전 즉, 성경, 물몬경,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 중에서 나는 특히 물몬경을 읽고 또 읽고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보고 적용하기를 권고합니다.

물몬경에 대해 요새 스미스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물몬경은 여러분의 생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날의 악에 대항하도록 강화시켜 주고 영성을 여러분의 생애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책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과 인생을 위해 준비하면서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물몬경을 읽고 사랑하며 여러 번 읽고, 그것의 참됨에 대하여 변치 않는 간증을 갖고 있으며,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청소년은 마귀의 간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주께서 쓰시는 강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께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그것을 주의깊게 연구해 보고 여러분에 대한 개인적인 경전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축복사가 영감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 주의 및 훈계와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에 관한 영감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그것을 규칙적으로 읽어보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여러분의 관심을 돌려 보겠습니다. 교회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매주 성찬식에 참석하십시오. 그 메시지를 주의깊게 들으십시오. 이해와 간증의 영을 얻도록 간구하십시오.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하기에 합당하십시오.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성찬대에 나아가십시오.

매주 주일학교 공과에 참석하십시오. 공과를 주의깊게 듣고 반 토론에 참여하십시오.

복음에 대해 잘 알게 되고 간증이 늘게 될 것입니다.

매주 신권 정원회와 주중 저녁에 갖는 정원회 활동에 참석하십시오. 신권 책임을 온전히 익히고 그것을 부지런히 그리고 경전하게 집행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용하십시오. 교회의 달성 프로그램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얻도록 목표를 세우십시오. 신권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뜻깊은 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독수리 소년단이 되십시오. 교회의 훌륭한 소년단 프로그램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정규적으로 세미나리에 참석하여 졸업하도록 하십시오. 세미나리의 가르침은 청소년에게 가장 의미깊은 영적인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국에서의 선교 사업에 관해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회장단: 칼로스 이 애시 장로, 던 엘 라슨 장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에 관해 매우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의 마음속의 열망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의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10페이지)

주님은 모든 젊은이가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원하십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젊은이의 1/3만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더 잘 할 수 있으며, 더 잘 해야만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로 간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는 이러한 경험을 큰 기쁨과 열망을 가지고 기대해야 합니다. 2년 동안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특권입니까?

여러분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업은 미룰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직업에 관한 목표도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결혼 조차도 젊은이가 주님을 위해 명예롭게 복음 선교사로 봉사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충실한 자매하고만 데이트할 것을 권고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고대하십시오. 봉사하라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 주십시오. 선교 사업을 하는 참된 목적은 인간을 주님께로 데리고 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가르치고 침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하는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가 오늘 저녁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행함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선교 사업을 준비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또 다른 필수적인 요소는 항상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지역에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젊은이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일생을 순결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은 도덕적인 범법에 대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적은 실재하며, 주님은 참된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이나 어느 때든지 젊은 혈기에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종류의 성적인 범법을 저지르고 나서, 계획적으로 고백을 하고 즉흥적으로 회개를 하기만 하면 주께서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김볼 대관장은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의 훌륭한 저서 용서가 낳는 기적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죄없이 생활한 사람은 아무리 깊은 회개를 했다 하더라도 죄에 빠져 본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318페이지)

어느 훌륭한 스테이크 부장 한 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험을 들려 주었습니다. “나는 함께 고등학교를 다녔던 어떤 소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말일성도 가정 출신이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그녀는 표준과 원리에 대하여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의 뒷편에서 죄 또는 범법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녀가 편하게 회개하고 곧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감독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나는 회개에 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의 기적에 대한 감사함도 갖고 있지 않은 이 경박한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또한 그녀가 분명히 감독님의 가르침과 조언을 크게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음이나 그와 같은 것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현명한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날 젊은이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혼란 성적인 죄로는 애무가 있다. 이것은 흔히 사통, 임신, 낙태 등 모두 추악한 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극히 악한 것이어서 흔히 젊은이들은 이것이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되는지조차 모르게 마련이다. 흔히 젊은이들은 사통은 비열한 범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애무는 별다른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이 애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는 행위가 바로 사통이라고 말해 주면 놀라거나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용서가 낳는 기적, 67페이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젊은이 여러분,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니삼 20 : 41; 교성 38 : 42; 사 52 : 11)라는 경전의 권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순결과 도덕을 지켰습니다. (창 39 : 6-20 참조)

예언자 엘마가 그의 빛나간 아들 코리엔튼에게 “죄를 버리며 눈에 비치는 탐욕을 뒤쫓지 말라.”(엘마 39 : 9)고 한 말을 주의길게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비치는 탐욕”, 오늘 날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등 모두가 선정적이고 외설적입니다. 잡지와 책들도 음란하고 외설적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여러분에게 것처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것은 이 불순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거처가면 결코 원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관람불가의 영화나 저속한 비테오를 보지 마시고 부도덕하고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어떠한 오락에도 참여하지 마십시오. 품위를 손상시키는 음악은 듣지 마십시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때 순수했던 음악이 이제는 자주 사악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날에는 음악 그 자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음악은 박자와 리듬, 강렬한 선율(나는 가사도 첨가하고 싶습니다)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을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허거 패커 장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합당치 못하고 격렬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됩니다.”(대회 보고, 1973년 10월)

오히려 우리는 대중 가요나 고전 음악으로서 영을 키워주는 훌륭한 음악을 들을 것을 권합니다. 새로운 찬송가에서 신앙과 영성을 키워주는 여러 훌륭한 찬송가를 배우십시오. 음악, 조명 및 무용 동작이 영에 도움을 주는 무도회에 참석하십시오. 영을 고양시키고 깨끗한 생각과 행동을 증진시켜주는 쇼나 오락을 보십시오. 그러한 종류의 책과 잡지를 읽으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합당한 데이트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김볼 대관장께서 이 주제에 관해 주신 몇 가지 현명한 충고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합당한 결혼은 합당한 데이트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회원이나 신앙심이 없고 교양이 없는 회원과는 데이트하지 말라. 이 말에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데이트를 즐기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소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복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는 사랑에 빠질 기회를 가져서는 안된다.”(용서가 낳는 기적, 220페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며,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여러분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도록 권장하는 자매와 데이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단지 6개월이나 1년 전에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온 생애를 선교 사업을 위해 잘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선교 지역에서 복음 선교사로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선교사 간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24개월을 마치고 귀환하는 사람보다 선교 지역에서 맞는 첫 달에 주님께

봉사하는 데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지역으로 향하는 젊은이들이 “서둘러” 선교 지역으로 들어가 개인적인 의로움과 깨끗한 생활로 거듭난 신앙을 가져 위대하고 효율적인 선교 사업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월포드 우드럽과 히버 제이 킴볼과 같은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을 원합니다. 그들은 각자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침례의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자신을 도덕적으로 깨끗이 지키고 교회 모임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는 젊은이를 알려 주십시오. 자신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고 독수리 소년단에 속하는 청소년을 알려 주십시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물문경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갖고 있는 한 젊은이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한 젊은이를 알려 주면 나는 여러분에게 선교 지역과 그의 생활을 통해 주님을 위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젊은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이 저녁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아버지와 신권 지도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얻고 또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그들의 어머니와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행실로 자녀들을 방황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작년 10월 신권 모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은 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할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교회 조직이 중요한 만큼 아버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그들의 가족을 계속 가르치고 인도할 거룩한 부름을 갖고 있습니다.

신권 제도자 여러분, 감독은 아론 신권 회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감독 여러분, 여러분의 첫째되며 가장 중요한 책임은 여러분 와드의 아론 신권과 청년입니다.

여러분의 젊은이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그들의 생활속에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들과 1년에 한 번 개인 접견을 하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를 완수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자주 방문하십시오. 그들의 정원회와 소년단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그들의 야영장에도 가 보십시오.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활동을 증진시키십시오. 그들과 자주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정기적으로 그들의 개인적인 합당성에 대해 이야기 하십시오.

아론 신권 정원회를 강화하십시오. “아론 신권 정원회를 강화함”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훈련 지도서와 함께 효율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아론 신권을 위해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훈련 수단이

됩니다. 감독단, 정원회 고문 및 정원회 회장단은 정기적으로 이 훈련 모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 여러분, 나는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드린 권고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라는 사실과 여러분의 신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날의 힐라맨의 아들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마음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청년들이여,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월포드레이크 북부 선교부에서 봉사 중인 신권 지도자: 일본 와포로 출신의 유키노부 생도 장로

와서 참여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어디에 사는 사람의 필요 사항이라도 충족됩니다. 이 복음은 영적, 지적, 도덕적,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사람을 향상시킬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랑과 진실한 감사로써 여러분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교회는 156년 전에 조직되었습니다. 그 날은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지 일천 팔백 삼십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섯 명이 정식으로 법인체를 구성하여 참여했습니다.

이 원래의 6명은 지금 약 6백만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장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기적이 되어 왔으며 그 기적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차는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이 사업에 대하여 역경의 폭풍이 심하게 일어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향로로 굳건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큰 소리나 광과례를 울리는 일이 없이 조용하게 행하는 가운데 온 지상의 사람들의 생활에

선한 감동을 줍니다. 이 사업의 임무는 제국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 임무는 신앙과 회개를 가르치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귀 기울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5개월 전에 이 거대한 태버나클에서 사랑하는 지도자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한 성회가 열렸습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에 대하여 개인적인 간증의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는 42년간 사도와 예언자로서 봉사하면서 진실한 겸손과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치는 사랑과 조용하고도 열렬한 신앙의 선포등과 같은 감동적인 모범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분의 생애가 위대했던 것은 그 단순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에는 결코 과시하거나 뽐내거나 자만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금처럼 빛나는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평범한 껌질은 그의 생애로부터 모두 까블러 없어진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주님을 섬기면서 느끼고 알게 되는 그런 사랑으로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이 계시며 이 대회 기간에 우리는 성회를 열어서 주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 가장 높고 신성한 직분에 선택받고 성임받고 성별된 분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및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 번 참여한 이 권능의 이전은 단순하고 훌륭합니다. 이 방식은 주님이 사물을 처리하시는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절차에 의해 예언자가 한 사람을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선정합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은 직업으로서 이것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시대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 여러 해가 지납니다. 그는 이 직분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훈련과 훈육을 받습니다. 그는 사도의 부름을 수행하면서 온 세상을 여행합니다. 그 기간은 긴 준비 기간이며 그 기간에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그들을 알게 되고 성도들도 그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의 마음과 본질을 시험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평의회에 공석이 생기고 새로운 지명이 주어집니다.

이런 과정에 의하여 특정한 한 분이 선임 사도가 됩니다. 성임을 할 때마다 그 사도와 그의 동료 형제들 사이에는 신권의 모든 열쇠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행사할 권능은 교회 대관장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권능을 선임 사도가 행사하게 되며, 그는 십이사도 평의회 동료들에 의하여 예언자와 대관장으로 지명받고 성별받고 성임됩니다.

선거는 없습니다. 선거 운동도 없습니다. 영감에 찬 또 시험을 거친 지도력을 제공하는 성스러운 계획이 조용하고 단순하게 작용할 따름입니다.

나는 이 훌륭한 과정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을 거의 43년 전에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선택하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때 이후로 그분을 시험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준비시킨 분은 주님입니다. 예언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설계에 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11월 10일에 부름받고 성별받고 성임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옆에 서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신앙과

시험을 거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며 주님과 주님의 사업에 대한 깊은 사랑과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능력이 입증된 분이며 제련사의 불로 단련된 분입니다.

나는 예언자의 보좌라는 거룩한 관계로 벤슨 대관장님과 친분을 맺을 수 있는 특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몬슨 부대관장님과 친분을 맺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대관장단이 완전히 조직되어서 함께 통일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벤슨 대관장님의 지도력에 의하여 주님의 사업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떤 권세도 이 사업의 진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나무꼴로 화강암을 쪼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게 될 것입니다. 바위는 손상을 입지 않고 그 꼴이 망가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하며 선언한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이라.”(단 2:44)

이 왕국은 연령이나 인종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인간의 마음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100년 전 1886년에 이 단상에서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사도이셨으며 나중에 교회 대관장이 된 로렌조 스노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 단체이든지 그것이 인간의 상태를 영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향상시킬 미덕이나 권세가 없는 종교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설교집, 26권, 371페이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어디에 사는 사람의 필요 사항이라도 충족됩니다. 이 복음은 영적, 지적, 도덕적,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사람을 향상시킬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대한 중재의



어셈블리 홀

기도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그런 지식이 바로 영적인 힘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회복된 위대한 근본 목적이니 곧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엄숙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장자이시며, 육신의 독생자이시며, 그가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유대의 베들레헴에 있는 말구유에서 나셨으며 완전한 생활을 하시고 구원의 방식을 가르치시고 당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 의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보장받고 영생을 받을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크게 강화시켜 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아아치 지봉으로써 우리는 그 아래서 영적인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갖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암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것은 죄를 이기고 일어서기에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기업체의 중역이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생을 낭비한 것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겨 준 고통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영향이 그의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크게 거슬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깃세마네 동산에서 나에 대한 크고 훌륭한 사랑을 표시하신 것을 알기 시작함에 따라 그분의 대속의 희생과 회개의 과정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서운 암흑과 절망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은 빛 속으로 나오는 것만 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경전을 읽고 상고하며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두 번 다시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분을 좇아 생활하기 위하여 나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회복된 복음은 영적인 힘 뿐이 아니라 지적인 호기심과 성장도 가져다 줍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힘을 추구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지적인 것을 키우고 추구할 때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 사이에는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선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서는 계시를 통하여 이 백성에 대한 명령을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 : 118)

어느 날 밤 나는 오랫동안 알고 존경해 온 동년배의 휴 니블리 박사의 저술이 새로 출판된 것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커버에서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셰익스피어 책을 많이 암기했으며 고대 영어, 라틴어, 회랍어, 및 다른 언어를 공부했다. 그는 버클리 학교 학생으로서 9층의 남서쪽 모퉁이로부터 시작하여 1층 북동쪽 모퉁이까지 다 보면서 그의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책은 다 공부했다.”(구약전서 및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데저렛 출판사, 1986년)

그의 백과 사전같은 지식으로 인하여 그는 학술계의 동료들 사이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또 주님의 사업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가 지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복음에 의하여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과학, 상업, 여러 가지 전문 분야, 및 예술 등 어떤 부분을 선택하든지 그들의 마음과 손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교회의 자원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개조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치 않는다.”(신앙 개조 13조) 이 말씀은 과학의 진리, 철학 진리, 역사 진리, 예술의 진리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진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니 바꾸어 말하면 빛과 진리니라.”(교성 93 : 36)는 말씀은 우리의 경전에서 확립한 원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며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계시된 원리에서 확실히 정한 것처럼 마음을 발전시키는 것은 영성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수반되는 책임입니다.

이것에 수반하여 또 여기에서 도덕적인 힘이 커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표준이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표준보다 더 나빴습니까?

벤슨 대관장님은 어제 개회 말씀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죄 가운데 걷는 사람 가운데서도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용서와 기회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몇 사람은 있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사람의 편지로부터 몇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잘려나간 다음 그 고통과 피로움은 지옥같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그런 고통을 겪고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며 지금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하여 팔로 안아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도덕 가치의 보호자이며 교사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한 글과 음란한 것에 마음이 끌려서 자기 수양을 제쳐두고 부도덕의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그들의 부인과 자녀가 희생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전에도 이 단상에서 어린이 학대와 배우자 학대에 대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아버지나 누구든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로부터 파문하는 사유가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도 아무 벌도 받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하고 교회 회원 자격을 유지할 권한을 즉각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대회보고, 신권 대회, 1985년 10월 5일)

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런 행위에 대하여 죄 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 과정의 일부로서 감독에게 가서 고백하며 그 악을 고치기 위하여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계시하신 대로 이 사업의 위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인 죄에 대하여 요새를 쌓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정도에 맞춰서 행복하고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과 관행에는 개인을 육체적으로 개선시켜 줄 요소들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 육신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현대 의학의 발전 사실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예언자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계시에서는 153년에 주어진 말씀에서 현대 식이요법 과학에서 확인하고 가르치는 여러 가지 원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데 이런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 18-21)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훌륭하고 독특한 종교 원리 선언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현명하신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육체적 및 물질적 유익을 위하여 주신 원리의 일부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죽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거룩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생에 있어서 필요한 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하고도 함축성있는 주님의 말씀에는 약속과 함께 훈계를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을 좀더 광범위하게 지킨다면 말 못할 고난과 고통을

막아주며 육체적인 복지가 증진되는 것뿐 아니라 크고 만족스러운 “지혜의 보화”로 인도해 주리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위한 계시된 말씀으로써 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계시던지 와서 참여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업과 이 회복된 빛과 진리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함께 이것이 신성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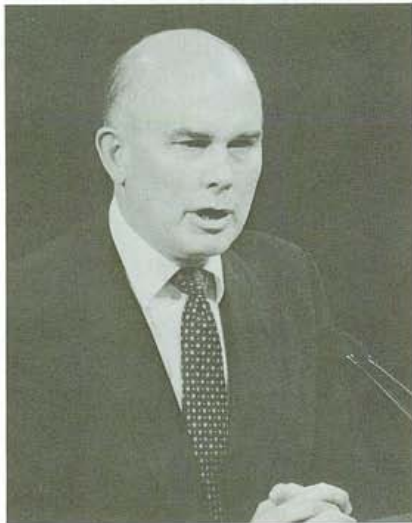
대외를 마친 후 함께 어울려 있는 중관리 역원



“경건하고 깨끗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분의 성령의 동반하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최 근에 우리 가족은 건전하게 보이는 영화를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우 한 사람이 저속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우리의 10살 된 딸을 위하여 이것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학교에서 남학생 여학생으로부터 매일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곧 우리를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말일성도 부모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경하고 저속한 표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사회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하는 것의 한 가지 척도입니다.

나는 언제 내가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불경하고 저속한 말을 처음 들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아마 헛간 앞마당이나 헛간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날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연극과 영화의 배우들로부터 유명한 소설로부터 심지어는 공적에 있는 관리나 스포츠의 영웅들로부터 그런 표현을 듣습니다. 텔레비전과 비디오 테이프가 불경하고 저속한 표현을 우리 가정으로 가져 옵니다.

오늘 날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불경한 언어는 보편화되고 저속한 언어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물론경에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일에는 “참으로 심한 부패가 이는 날에 땅에 나타나리니,”(물 8 : 31)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불경하고 저속한 말은 금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는 왜 그런 명령이 주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신성한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님의 그런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되게 하는 것을 참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니일 20 : 11; 이사야 48 : 11)

주님은 십계명의 세번째 계명에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 20 : 7) 이것과 똑같은 계명이 선지자 아빈아다이에 의하여 물론경 백성들에게 반복되었으며(모사 13 : 15 참조) 우리의 현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교성 136 : 21)

교리와 성약에서 그 예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로 하여금 어떻게 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것인지 조심하게 할지니라.

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는 주의 이름을 사용하되 아무 권한도 없어 헛되이 사용하여 이런 죄로 정죄 받는 자가 많음이니라.(교성 63 : 61-62)

이 성구에서 우리는 우리가 권한이 없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이 소위 말하는 불경스런 말로 즉 중요성에 찬 저주, 분노에 찬 비난, 일반 토론에서 인용 부호로써 사용될 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 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하여 간증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권의 거룩한 의식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권능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거룩하고 의미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경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구세주께서는 이 대륙의 백성에게 나타나신 다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어지리도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받들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인즉”(니삼 27 : 5-6)

그분은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 교회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니삼 27 : 7-8; 교성 115 : 4) 우리 시대에 이 교회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니삼 13 : 9; 눅 11 : 2 참조) 물론경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삼 18:19-21; 니삼 27:7; 요 14:13, 15:16 참조)

경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간의 자녀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늘 아래 유일한 이름”이라는 선언이 굉장하 많이 있습니다. (모세 6:52, 행 4:12; 니이 25:20, 31:21; 모사 3:17 참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하는 수백 가지 거룩한 단어가 있는 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혹은 엘로힘을 일컫습니다. (창; 요 3:16 참조) 고대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알고 경배했으며 그는 성경에서 보통 주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 영감역 출 6:3; 아브라함 1:16, 2:8; 이더 3; 이사야 43:3을 예로서 참조한다.)

이런 이름은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반복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경”하게 하지 말라는 명을 받았읍니다. (레 18:21; 19:12, 20:3, 21:6 참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저축이게 되어 있었읍니다. (레 24:16 참조)

선지자 에스겔은 자기 백성의 죄를 분류하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 제사장들은……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에스겔 22:26; 36:20-23 참조)

어떤 세대에서나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나의 이름으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니삼 27:5-7)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이 모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 52)

부활하신 주님은 성역을 끝내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따라다니길 표적을 밝히셨습니다. (막 16:17 참조)

내 이름으로 저들은 놀라운 일을



청녀 분부 회장단: 왼쪽부터 제1보좌 머린 제이 멀리 자매, 회장 안테스 지 캡 자매, 제2보좌 제인 비 맥런 자매

많이 행할 것이요,

내 이름으로 저들은 악령을 내어 쫓을 것이요,

내 이름으로 저들은 병자를 고칠 것이요,

내 이름으로 저들은 눈 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의 귀를 열리게 할 것이요. (교성 84:66-69)

베드로는 앉은뱅이 걸인을 고치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비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행 3:6)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또 권능을 갖고 사용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권세를 끌어냅니다.

이 능력있는 이름에 의하여 기적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힘있는 이름은 거룩하며 최고의 경건심을 갖고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현대의 계시에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읍니다.

“위에서 오는 것은 거룩한 것임을 기억하라. 또 신중히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해야 함을 잊지 말라.” (교성 63:64)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반찬에 따라 성신권을 벨기세며 신권이라고 부른 것은 “진능하신 분의 이름을 존경하며 만드는 나머지 그 이름을 자주 반복하여 부름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교성 107:4)

사탄이 원하고 행하는 것은 인간을 나쁜 길로 인도하여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영생의 기회를 제공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려 하고는 데 바로 이 이름에 의하여 그분들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언제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그들이 거룩한 이름을 상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더러운 생각과 악한 행동과 연관시키도록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성공을 거둡니다.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의하여 사탄이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신성모독적인 말은 그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마음 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 예언자가 병상에서 수술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엇인가에 걸려서 그 앞에서 욕설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의식이 절반은 혼미한 상태에서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제발! 제발! 당신이 욕설을 퍼붓는 그 이름은 나의 주님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블, 스펜서 더블류 킴블의 가르침 198페이지.)

우리가 하는 말은 중요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인간이 심판을 받는 날에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 15:11)

진실로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이라고 가르쳤습니다.(약 3:6,8)

신성모독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잠언에서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 나무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4) 주님의 영광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계십니다.(니이 31:18) 그런 이름이 더럽혀질 때 그 “성스럽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심에”(헐 4:24) 영은 노하여 물러 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분의 성령의 동반하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경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말은

불경함을 더욱 더 심하게 합니다.(딤후 2:15-16 참조) 주님의 영이 떠나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더욱 더 불경한 상태로 이끌고 가며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저속하고 야비한 표현은 주님의 영도 불쾌하게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약 1:19, 21)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성적인 죄 및 추잡한 언어와 연관된 말입니다.(겔 16:36, 24:13;엡 5:3-4 참조)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저속한 말을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훼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골 3:8)

저속한 말을 이렇게 정죄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입니다.

품위없고 저속한 표현이 우리 주변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은밀한 것을 천하게 만들고 결혼생활 외부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일상적인 다반사로 만드는 야비한 표현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신성한 관계를 불결하게 낙인찍고 있습니다. 입에 담으면 안될 도덕적인 죄가 혼한 욕설 속에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부도덕으로부터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로까지 타락한 인간의 행위가 벽에 쓰여지고 길에서 큰 고함소리가 나옵니다. 지각있는 20세기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달아난 롯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벧후 2:7)당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몬경의 이 가르침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청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매, 더러운 것들이 함께 할 더러운 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리라.”(니일 15:34;엡 7:21 참조)

불경하고 저속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무지와 부족함과

성숙하지 못함을 공공연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불경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대하고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한 계명을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것에 틀림 없습니다.

연설할 때 힘을 주고 강조하기 위하여 불경한 말이나 저속한 말을 입에 담은 연사는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만 사용하면 현대 언어는 그런 인공적인 첨가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충격 요법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불경스런 말이나 저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청소년으로서나 어른으로서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어린애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언어는 도덕적으로 파산입니다. 또 그런 언어는 점점 더 자기 패배로 이끌고 가는 데 그것은 그런 말을 자주 들으면 익숙해짐으로 충격이 줄어들고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점점 더 심하게 함으로서만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교회 회원은 누구나 불경스런 말이나 저속한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마음의 영상을 반영하며 우리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마 12:34-35)

물몬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를 정죄하리라.”라고 가르칩니다.(엡 12:14) 우리는 불경과 저속함의 정체를 올바르게 인식합니다. 이런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시키며 우리의 영적인 방어막을 불구로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은 일체 피하고 우리 자녀들도 일체 피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친지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김볼 대관장처럼 친절하게 부탁할 용기를 가질 때 존경과 협조에 찬 응답을 받을 때가 흔히 있습니다. 우리의 출가한 딸이 일리노이주에 사는 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순번이 되어서 그 동네의 12살 된 아이들을 축구 경기장에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도중에 그 시끄러운 아이들이 불경스런 말을 마구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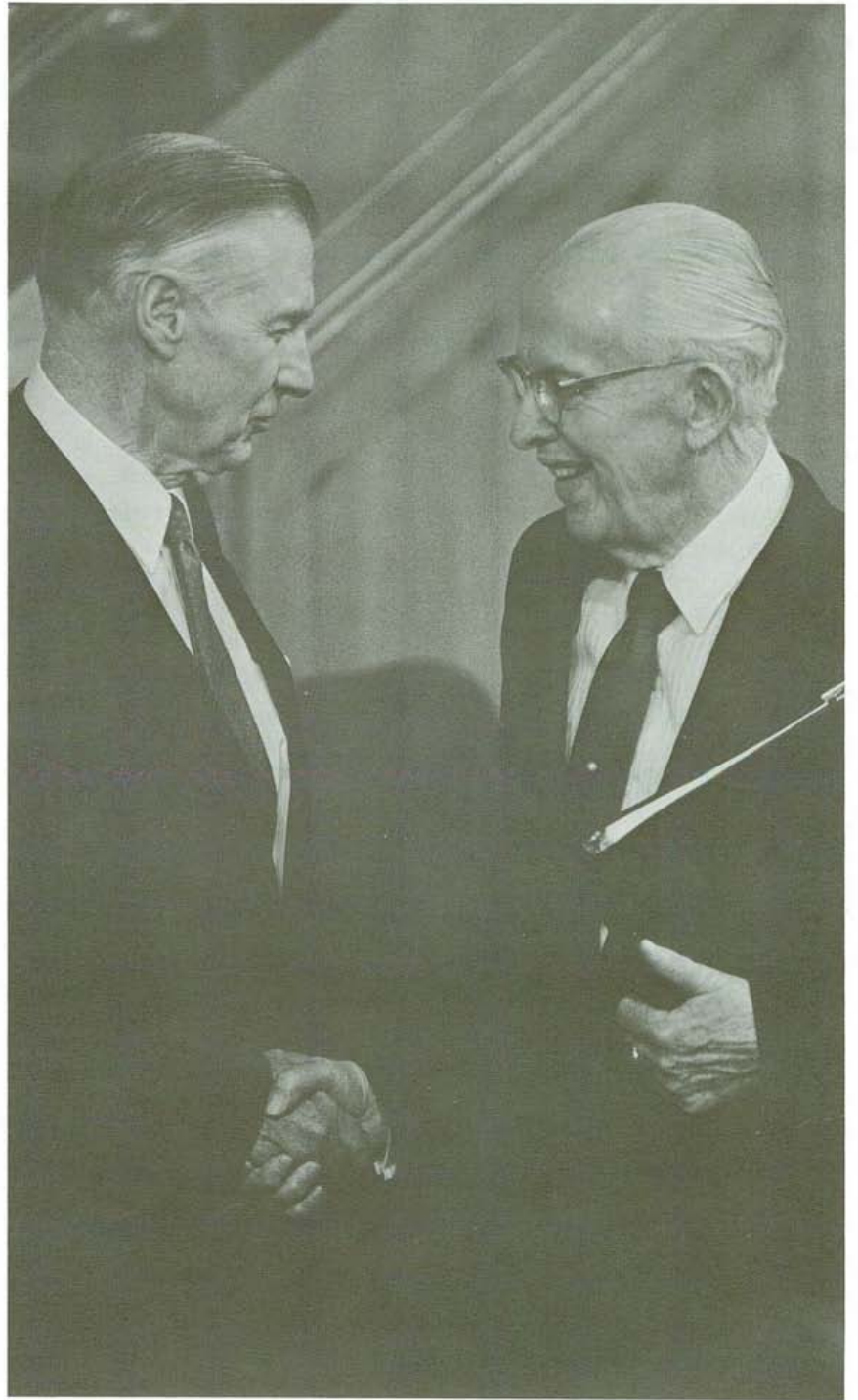
딸은 엄한 음성으로 그러나 또 유모어를 잃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은 주님을 경배할 때에만 그분의 이름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 차 안에서 그 이름을 불경스럽게 쓰지 말아 주세요.” 소년들은 즉시 순응하였으며 더욱 놀란 것은 그 아이들 대부분이 그 다음에 내 딸이 운전할 순서가 되었을 때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대 계시에서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인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교성 38:42) 때때로 우리는 불경스럽거나 지속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옆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최소한도로 이의를 표시하여 우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승인이나 묵인을 뜻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다른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개조 13조에서는 우리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 만한 일”을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의 언어는 경건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알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신성한 이름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며 우리가 그분들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충실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에즈라 테프트 맨슨 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행복

책 에이치 고슬린드 장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자신을 살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를 때는 오직 우리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의 뒤를 따라 가다가 흥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차는 여러 가지 적재물이 가득 실린 커다란 스테이션 왜곤이었습니다. 차의 꼭대기에는 여러 가지 가방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차 내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개의 맨발이 뒷창문으로 나와 있었고, 팔은 열 창문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앞 좌석에서 엄마는 낄낄거리는 어린 아이와 더불어 칭얼대는 아기를 달래주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잡한 교통망을 뚫고 나가려 애를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휴가 기간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지켜 보다가, 문득 “우리는 과연 즐거우나?”라고 쓰여진 범퍼에 부친 스티카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이 머리속에 떠오를 때마다 웃음이 납니다. 그것이 재미있게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 인간

내면의 뒤틀린 통찰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타내주는 인간적인 상황의 진면목은 크게 충족되지 못하는 행복의 추구입니다. “우리는 과연 즐거우나?”하는 질문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피해 가기만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쾌락을 고안해 내고 오락 기구들 만들어 내며 또한 여가 활용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들은 이런 흔치 않은 즐거움을 찾아 보려 외국으로 나가나 그들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행복의 근원은 그들의 내부에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홀륭하고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끝내 그것을 찾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을 열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인내하지만 그들도 역시 “나는 과연 행복하나?” 하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은 실재하는 것임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후세에서도 충분한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약속된 행복에 관해서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하이가 그의 아들에게 한 말은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로 이루어졌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을 낳게 하려함이요,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서서 2:24-25)

전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행복해 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란 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또한 의도한 바입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추구한다면, 결국 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5:134)

우리가 행복을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향수를 나타내는 데 왜냐하면 우리는 전세에 대한 미미한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충실한 자에게 약속된 충분한 기쁨을 미리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갈망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려 주신 계획은 “영원한 행복”(앨마서 42:16)이라 불리워집니다. 절정의 시기에 이는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 의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누가 복음 2:10)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경은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됨을 확실히 알려 줍니다. 이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모사이아서 2:41)에 거주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사는 본래대로 회복되며 만물은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되나니…… 끝없는 행복의 상태로 살어나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게 되거나 아니면 끝없는 비참의 상태로 살어나 악마의 나라에 거하게 되리니” 우리는 또한 “행복이나 선을 원한 대로 행복과 선으로 일어”(앨마서 41:4-5)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두다, 회복된다, 또는 소망한다는 말은 행복이 보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우리가 행복의 계획에 따라 살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행복의 상태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왕국에서의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꾸는 행복의 자연적인 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최소한 두 가지 즉, 죄와 역경에 의해 감소됩니다. 그중에서도 죄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고통 중 가장 끈질긴 원인이 되며 또한 가장 깊은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 줍니다. 죄와 악을 행하라는 유혹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힘든 시험이므로, 유혹을 극복해 온 사람들만이 거기서 강한 힘을 느끼고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것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세우기 보다는 허물어 버리는 것을 또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경은 “육욕의 상태에 있어 죄에 매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았으며 행복하지 못한”(엘마서 41:11)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또한 레이먼인 사무엘이 니파이인들에게 경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평생을 두고 얻지 못한 것을 구하였음이요, 우리의 위대하고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이의 뜻을 거스려 간악함을 행하며 행복을 구하였음이라.”(힐라맨서 13:38) 그 원리는 엘마에 의해 간결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엘마서 41:10) 만일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다면 본질적으로 행복이요, 기쁨이며, 털끝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가장 비참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통해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란 달콤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자신을 살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를 때는 오직 우리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신의 속삭임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회 방문자

나는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반감을 가졌던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시기에 많은 실수를 범했고 좋지 않은 습관이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한 후에도 교회에서 많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파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나를 쉽사리 뒤엎어 버리는 유혹과 죄 가운데 묻혀 있음이라.”

“내가 기뻐하고자 할 때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신음하게 되는도다.”(니파이이서 4:18-19)

영적인 갈등을 느꼈던 어느 날 밤, 그는 마침내 스스로에게 자기가 결코 완전히 자신의 죄를 끊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그는 교회 재판을 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 해도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자신을 위축시키는 생각과 태도를 품고 있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저해하는 죄와 절망의 순환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변화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는 죄와 절망의 식사슬을 끊고 마침내 처음으로 행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우리는 지금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 또는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내포된 길고 어려운 여행입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끝없는 조심성이 요구됩니다. 산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도 담대하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인내와 신앙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엘마서 37:33)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마법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수행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행하십시오. 다만 행하고 또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지라도 성공할 때까지 꾸준히 행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진정한 행복,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또 다른 것은 역경과 환난입니다. 그것 역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의 일부이며 누구나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으나 역경을 겪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환란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간직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역경으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극복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개척자의 실화를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백여 년 전에 교회에 들어온 어느 스웨덴 가족은 미국에 이르기까지의 긴 항해와 뉴욕에서 오마하까지는 열차 여행을 하고 그런 다음에는 다시 솔트레이크시티까지 마차로 가는 길고 고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차 여행을 하는 동안 꽤지 운반용 가축 운반차에 탔습니다. 화물칸은 더러웠으며 꽤지 기생충이 가득했습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마차 여행에서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으나, 불행히도 그들의 세살난 아이가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중에 아버지는 열의 마차에서 초를 빌리고자 했지만 그들은 초를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일로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열에 들며 힘없이 축 늘어진 아들을 팔에 안고 어둠속에 앉아 있자니 노여움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그날 밤에 아들은 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차의 지휘자는 간단히 장례를 치른 후 시체는 알계 무덤을 파 묻힐 거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디안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뒤에 남아 야생 동물들이 시체를 파 먹지 못하게 깊게 무덤을 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기까지 그 밖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같은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현실 도피적이고 심술궂은 냉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도 나가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의 결점만 들추어 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비참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빛은 그의 인생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신앙은 커졌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연민과 동정 그리고 자비로 가득 찬 사랑의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에게 더 쏠리게 되었고 기적의 지도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으나, 남편은 비참했습니다. (스티브 던 헨슨, "역경중에 해야 할 일," 엔사인, 1982년 2월호, 54-55페이지)

나는 역경 중에도 여러분의 행복을 지속시켜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24) 여러분이 행복과 기쁨을 찾기를 원한다면 고귀한 대업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까지 버려야 합니다. 가치있는 목적은 모든 가치있는 삶의 한가운데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스티브 엘리차드 부대관장은 "인생은 사명이지 경력이 아닙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사명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사명—즉, 인간의 구원이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즐겨 인용했습니다. "충만한 영혼의 열정적인 갈망에 대한 해답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알고 있네, 그 답은 이러하네. 자기 자신 이외의 모든 일에 사랑을 품고 산다면, 기쁨을 맛보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리. 주 안에서 그것은 성취되고 온전해지나, 지음받은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은 서서히 어려움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이라네." (풍요한 삶에 이르는 길, 119페이지)

봉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잊게 도와주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이제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회개와 자제심을 통해서 죄악을 극복하고 비이기적인 봉사를 통해서 환난과 역경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제심과 봉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열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니라." (요한복음 15:10-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행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계명에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지금 즐거운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는 인생의 큰 기쁨을 순종과 봉사에서 찾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임해 주신 그러한 방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 있는 오묘한 보물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래의 방문자

내 영혼의 일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여러분이 물문경을 읽은 후에는 그 책이 참된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처방한 대로 주님께 여쭙어볼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징하신 대로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물 문경을 읽어본 일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여러번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끝맺지 못한 많은 회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물문경을 한 번 읽었으나 또 다시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역시 제 말씀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일”이라는 제목을 택했습니다.

물론 읽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로 부터 물문경처럼 비난을 극심히 받은 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그 책을 소개해서 책을 읽으시기로 결심한 경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제외하면 물문경은 여러분이 읽었던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닙니다.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읽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오한 가치가 있는 모든 책들처럼 되는 대로 읽어넘길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읽으시면, 여러분이 읽기로 작정했던 가장 값진 책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물문경은 전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충분히 묘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책도 아닙니다.

물문경이 1021년 동안의 백성과 그 이전의 백성을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로 이들 백성의 역사는 아닙니다. 물문경은 성스러운 용기 즉, 성약입니다. 그 말씀의 영향이 대를 이어가는 동안 20명이 넘는 저자가 개인들의 운명을 기록했고 성약을 받아들였거나 거절했던 기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스러운 무용담은 기원전 600년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시드기아 왕이 멸망할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예언자 리하이는 꿈속에서 가족을 데리고 구약의 예언자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되어지자 멸망이 곧 있기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렘 44:1-8)

리하이는 주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 자기 백성들의 기록을 취하여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기록 즉 레이만의 늦쇠판이 물문경의 무용담의 시작입니다.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가 아버지를 위해 그 기록을 얻고 말하기를

이 기록을 꼭 얻게 하시려 함은 곧 하나님의 지혜라 이는 우리가 이 기록으로 조상의 언어를 후손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일 3:19)

그 기록에 담겨 있는 내용은 모세 오경으로 세상의 창조기사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의 기사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일 5:11)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되어 온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 (니일 3:20)

태초로부터 유대왕 시드기아 통치초까지의 유대인의 기록과 리하이 조상들의 족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니일 5:12, 14)

리하이의 작은 무리들은 그 기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다에 의해 고국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값진 영적인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후일에 예언자 베나민은 이 기록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이렇게 보존하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읽고 깨닫게 하시며 그의 계명을 늘 눈 앞에 보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졌을 것이다. (모 1:5)

두번째의 기록은 리하이가 이끌고 간 작은 무리들의 역대기로 시작할 때의 무용담입니다. 리하이는 그들의 여행중에 있었던 세속적인 이야기를 그의 계시와 교훈과 영적인 경험과 함께 혼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니파이는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았으며 그 기록의 보관자로서 리하이가 되었는데 그 기록은 니파이의 큰 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파이는 기록하기를 이 판에는 왕의 통치와 나의 백성들간의 전쟁과 불화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느니라. (니일 9:4)

훗날 그들이 수많은 백성으로 늘어났을 때 이 기록들은 그들의 왕이 보관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세대후에 물문은 이 기록을 요약하면서 그 기록속에 있는 내용의 “100 분지 1”도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6번이나 되풀이 해서 말했습니다. (야 3:13; 몰말 1:5; 월 3:14; 니삼 5:8, 26:6; 이더 15:33)

그러나 큰 판의 기록이 가장 값진기록은 아니었으니, 니파이가 계명을 받아—축세의 역사가 아니고 성역의 기록인 다른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 즉, 니파이의 작은 판은 왕들이 보관한 것이 아니고

예언자들에 의하여 보관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역의 이 기록이 현재의 물문경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보관한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야곱으로 그는 그 판을 그의 형 니파이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나 야곱에게 명한 것은 내가 가장 진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작은]판 위에 기록하라는 것이었으며 이 백성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는 외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의 역사는 그의 다른 [큰]판에 새겨져야 하며 내가 이 [작은]판을 보존하여 나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하게 해야 할 것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스러운 가르침이나 위대한 계시나 예언의 말씀의 골자틀이 이 [작은]판에 새기라 하였으며...그리스도와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가능한 기록을 모두 정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야 1:2-4)

야곱이 “그의 백성들의 역사는 (간략하게 기록하는 이외는) 손대지 말라.” 하였으나 성스러운 기록은 “가능한한” 손질을 하도록 했다는 데에 주목 하셨겠지요?

니파이가 설명하기를

특별히 부친의 사적을 모두 이 곳에 기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하나님에 관한 기사를 기록할 수 있는 여백을 남겨 놓고자하는 뜻이 간절합니다.

“내가 뜻하는 바는 오직 사람들을 권고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며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니일 6:3,4)

“또한 나는 후손들에게 명하여 만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 판 위에 기록하지 않게 하리라.”(니일 6:6)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더욱 성스러운 것들을 보존하여 나의 백성들이 이를 알게 하려 함이라...나는 성스럽다고 생각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판에 기록하지 아니 하노라.”(니일 19:5-6)

왜 니파이가 그렇게 해야 했는지 주의 하십시오.

“나는 이 백성들을 다스린 기사가 남겨 져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이 판을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으며”(니일 9:3)

성도의 빛/1986년 7월호



교회 본부 건물 플라자가 있는 솔트레이크시티 중심가

그러면 우리가 정한 제목의 구절을 들겠습니다

나는 이 [작은판]에 나의 영으로 느끼는 일과 늦쇠판에 새겨진 경전에 관하여 기록하노니 이는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 나의 가슴이 이를 깊게 사모함이라. 나의 후손들이 이를 배우게 하며 또한 저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내가 이를 기록 하노라. (니일 4:15)

거룩한 가르침과 위대한 계시와 예언은 모두 메시아가 오심을 간증하였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물문경은 구약에 기록된 것과는 같지 않는 그 사건의 시현을 기록했습니다.

리하이의 백성들이 서반부에 도착한 후 리하이는 생명나무의 시현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리파이는 그 시현의 뜻을 알려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으로 니파이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시현을 받았습니다.

시현에서 니파이가 본 것은 어린아이를 팔에 안은 처녀

길을 예비한 칙례 요한
하나님 아들의 성역
메시아를 따르는 12 사람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보살피는 것
축복받고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무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주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교만등입니다. (니일 11:14-36)

그 시현이 물문경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이 책은 가끔 “미 대륙의 옛 주민들 즉 아메리카 인디안의 조상들의 역사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개는 이 성스러운 책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마치 성경을 “현대 이스라엘의 조상인 근동에서 살았던 옛날 주민들의 역사책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잘못된 설명입니다.

물문경의 역사는 우연한 것입니다.

예언자들과 반대자들이 있고 대대로 내려온 족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목적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 무용담을 더듬어 보면, 어떤 저자(엘마)는 38년 간의 일을 160페이지에 써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7명의 저자들(이노스, 에이름, 옴나이, 애메이론, 케미시 아비아돔 아멜레카아라)은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일을 겨우 6페이지에 다 써 넣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성약이 달려져 있습니다.

물문경은 경전입니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성경의 언어로 쓰여 졌습니다. 예언자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 등등의 신약에서 사용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만 읽어 내려가면 그 언어의 말투를 이해하시게 되고 그 이야기가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10대들도 쉽게 물문경의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말의 투가 “구약”의 예언의 투로 바뀝니다. 이야기의 이곳 저곳에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담긴 내용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장애가 됩니다. 도로 장애나 검문소를 만난것 처럼 주의력이 부족한 독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품고 보통 도중에서 그만둡니다.

여러분도 그런곳에서 그만두고 싶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어려운 부분을 읽어 내려가서 구약의 예언들을 이해하십시오. 비록 그 내용을 조금밖에 모르시더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이곳 저곳에서 그 인상만을 훑어 보게 되시더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낱말만 보시고 내용 파악이 안돼더라도 계속 읽으십시오.

곧 어렵던 부분을 지나 더 쉬운 “신약”의 말투를 대하게 되는 데 그것이 바로 물문경의 말투입니다.

물문경의 장애를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시고 끝까지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니파이 백성들이 대대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읽게 되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의 이야기도 읽게 되실 것입니다.

증인들의 설명을 통하여 예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다른 양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것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요 10 : 16 참조)

그러고나면 전보다 더 잘 성경을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구약도 더 많이 잘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물문경을 그렇게 중히 여기는지도 알게 되겠습니다. 신약을 존중하게 되고 신약이 사실임을 알게 되겠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는 신약의 기록이 사실임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메시아 이시고 인류의 구세주 이십니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서로서 구약과 신약이 진실함을 확인해 줍니다.

아마 물문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뒤에는 신약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3번 인용했고 사도들은 40번이상 인용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과 물문경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존경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독자에게 장애가 되지만 주님께서 목적을 있어서 물문경에 이사야의 예언을 삽입시키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지 못한 분들은 계속 모을 수 있는 자기의 보물을 놓치게 됩니다. 다음의 지식을 놓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목적
죽은후의 삶의 확신
영이 육체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들
부활의 설명
죄사함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
정의와 자비가 위력을 갖는 것
기도하는 법
성약과 의식에 관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루는 많은 보석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런 장애를 넘어 물문경의 끝에 가까이 가면 진지하게 물문경을 읽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한 물문경의 마지막 장애 있는 것을 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 : 4-5)

선교사도 회원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으며 십이사도도 대관장도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책의 기술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물문경을 읽은 후에는 그책이 참된지에 대해서 그 책에서 처방한 대로 주님께 여쭙어 볼 자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정하신 대로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나는 물문경이 진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임을 증거 합니다.

나는 물문경을 검소한 봉사자로서 성실한 마음으로 전념하여 읽음으로써 주님께 간청하여 그 계시를 받았읍니다. 그 계시가 수반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주라는 계시였으며 그의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선견지명이 있는 계획—귀중한 약속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거룩한 경전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압당한 자를 돌볼 책임에 대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986년 4월 6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56년 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습니다. 환경은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성회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우리의 거수에 의해서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의하여 교회의 13대 대관장으로 지지받으실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드리지고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찬양의 노래가 불러질 것입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과 “군도다 그 기초”의 구절이 이 태버나클로부터 솟아나서 지구의 온 땅을 거쳐서 메아리칠 것입니다.

50년 전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교회 복지 계획의 “군건한 기초”가 된 일반 원리의 윤곽을 잡으셨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과 그의 보좌인 제이 르우벤 클라크와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감리한 특별히 소집된 중요한 성도의 밤/1986년 7월호

모임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성명이 발표되고 하늘의 영감을 받은 권고가 주어졌으며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았고 역사의 심판에 의하여 유효한 것이 입증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승인한 봉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부대관장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조직은 거룩하신 계시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이 세상에서 그 회원을 그렇게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에 달리 없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은 이 영감받은 노력을 시작할 때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훈계로써 밝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식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습니다. 여러 번 경제 주기가 지나 갔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산의 제곡을 넘어서 지구 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회원 수가 수백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날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하는 바다속의 변하지 않는 섬과 같습니다.

잠시 복지 프로그램의 원천과 기초를 살펴 봅시다. 대관장단에서는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하던 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목적은 하나의 체제를 설립하여 이 체제 하에서 저주받을 게으름이 또 실업수당에 의한 폐단이 가능한 한

없어지고 자립, 근면, 절약, 자존심이 우리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확립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향하는 목적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경전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억압당한 자를 돌볼 책임에 대하여 일말의 의혹도 남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직은 완전해졌으며 의무가 명확히 정의내려지고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예언자들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친절한 가르침을 받고 끊임없이 훈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출판 인쇄자로서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기념비적인 책이 된 사복음서의 우리 주님을 쓰실 때 그 원고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자 복지 프로그램의 원래 설계자의 발등상에서 매일 배울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내가 어려운 와드를 감리하는 감독으로 새로 지명받은 것을 아시고 내가 담당할 사람들을 알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그들의 필요 상황을 해결해 줄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구세주의 모범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눅 7:11-15)

나는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성경을 덮으시면서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툼, 과부에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 주게.”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중에 감독으로 관리한 지역의 스테이크 부장을 하셨던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이 한 번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에게 신권 소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역할을 다 할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물문경을 손에 들고 엘마서 17장을 펴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읽어 주셨습니다.

“이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엘마에게 처음으로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함께 있던 자들이라 이들을 만나게 된 엘마는 대단히 기뻐하였고, 엘마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주님 뜻 가운데서 자기와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됨이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더라.”

“그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느니라.”(엘 17:2-3)

우리는 영감받은 선생님이 주신 우리의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태도로 이 거룩한 경전을 덮었습니다. 그분도 클라크 부대관장님처럼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저는 복지 프로그램을 열렬히 옹호하며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교회 전체에 잘 알려져 있는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금식에 대하여 잘 말해주고 있는 이사야서의 성구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롬니 회장님도 클라크 부대관장처럼, 또 리 대관장처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가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용단을 통하여 짠 황금실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회 방문자에게 따스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야곱 디아가 장로

“의문(문구)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이 사업의 영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해 오셨습니까? 1831년 6월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은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교서 52:40)

물문경에 기록된 베냐민 왕의 그 훌륭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은 너희가 날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죄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니,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각각 가진 대로 주린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며 영적으로나 육신으로 병든 자를 찾아 저들의 원대로 구제하여 위로하기 바라노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면 혼돈이 옵니다. 국립 정책 분석 센터의 책임자인 존 굤맨은 텍사스주 달라스의 어떤 신문에 발표한 금년도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복지 제도는 재난입니다. 이것은 가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혼과 십대 미혼모의 임신, 자녀가 노년의 부모를 버리는 일을 만들어내고, 가족을 도매금으로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이 가난해 지도록 그들에게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은밀한 자선이 더 나은 방식이었습니다.

1982년에 나는 레이건 대통령의 민간 부문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할 특권을 누린 적이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국에서 모인 저명한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찬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몬슨 장로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계십니다. 대공황 시기에 만일 모든 교회가 그의 교회에서 한 것처럼 올바른 원리에 기초를 둔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면 우리는 오늘날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립의 원리와 우리의 창고 제도, 생산 및 분배 방식을 칭찬하고 가족이 서로를 돕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궁핍할 때 정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또 한 번은 백악관에서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복지 프로그램을 실찬한 예를 한 가지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었겠지만 아이다호주 티튼 댐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가 보인 전형적인 반응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극적이었습니다. 대관장단이 5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어떤 것을 살피시겠습니까?

우리는 금식 헌금을 후하게 냅니까?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두 끼나 그 이상의 금식한 식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훨씬 더 어쩌면 7배까지라도 더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에 비상 사태가 닥칠 때에 대한 대비를 갖추었습니까? 우리의 기술이 온전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검소하게 생활합니까? 우리는 비축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응합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우리의 물건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에게 빚진 것을 갚고 있습니까? 지난 50년을 되돌아 보며 복지 프로그램의 발전을 회상해 보면 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보면서 신권의 위치와 상호부조회의 역할과 개인의 참여를 기억합니다.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1951년 어느 추운 겨울 밤 누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타주 옥든으로부터 온 어떤 독일인 형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몬슨 감독님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동생과 그의 아내와 가족이 독일로부터 이곳으로 옵니다. 그들은 감독님의 와드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세를 얻은 아파트에 같이 가서 보시겠습니까?” 아파트로 가는 길에 그는 자기 동생을 오랫동안 못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2차 대전의 대 학살이 있던 시기에 그의 동생은 교회에 충실했으며 전쟁으로 러시아 전선으로 가기 전에 한 번은 지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나는 그 아파트를 보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좁고 음침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벽지는 더러웠으며 찬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 천정에 매달려 있는 40와트 전구가 가운데에 큰 구멍이 뚫린 리노륨 장판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가족에게 이 얼마나 우울한 대접이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 형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독일에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아파트 열쇠를 나에게 주고 그 가족이 3주일 이내에 성탄절 바로 이틀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하리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쉽사리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와드 복지 위원회 모임에서 보좌 한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거기 참석한 사람들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과 그 좋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 후 대제사 그룹 지도자인 어들리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그 아파트에 조명이 좋지 않고 부엌 설비를 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기 도금업자입니다. 이 와드 대제사들이 그 아파트의 전기 배선을 다시 하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또 내 사업에 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이 새로운 난로와 새 냉장고를 기증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기뻐서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철십인 회장인 봄포스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아시다시피 저는 카페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업에 물자를 공급하는 사람이 카페트를 좀 기증하도록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철십인이 쉽게 카페트를 깔고 그 낡은 리노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 정원희 회장인 보우든 형제가 음성을 높였습니다. 그는 페인트 공사 청부업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페인트를 대겠습니다. 장로들이 그 아파트의 페인트와 벽지를 발라도 좋겠습니까?”

그러자 상호부조회 회장인 밀러 자매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호부조회에서는 그 찬장이 빈 상태로 있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득 채워도 좋겠습니까?”

그 이후 3주일은 언제까지나 기억할 만한 기간입니다. 와드 전체가 그 사업에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약속한 시간에 그 가족이 독일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옥든으로부터 온 그 형제가 우리집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감개무량한 음성으로 동생과 동생의 부인과 그 가족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아파트에 가볼 수 있겠습니까?” 아파트로 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는 자꾸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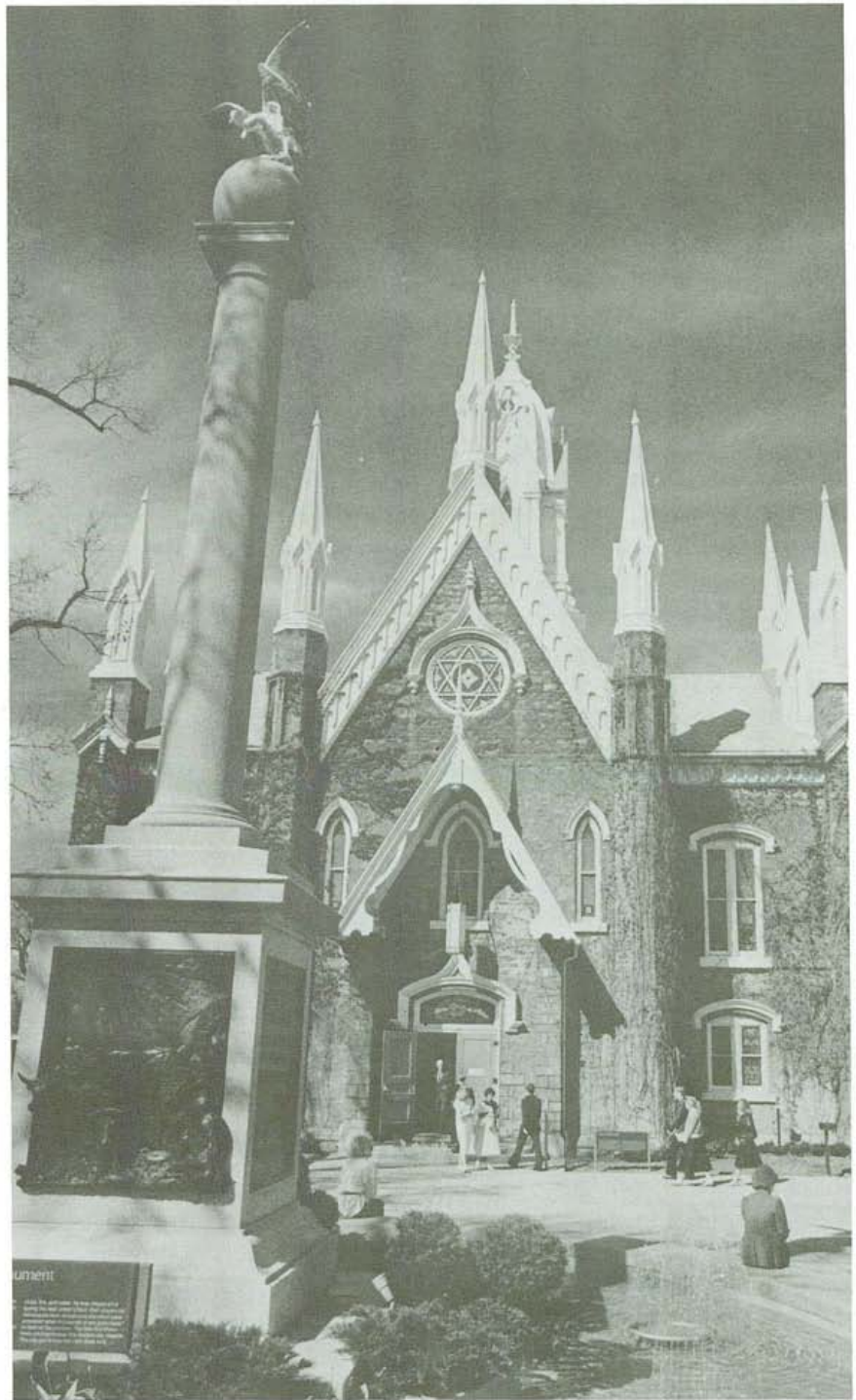
되되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들이 독일에서 지냈던 곳보다는 좋습니다.” 그는 그 집에 어떻게 변했는지 또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안에서 그들이 도착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문자 그대로 완전한 새 생활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페인트칠한 목공일과 새로 벽지를 바른 벽에서 스며나오는 향기가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40와트짜리 전구와 그 전구가 비추주던 낡은 리노룸도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두텁고 아름다운 카펫 위에 올라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자 새 난로와 새 냉장고가 보였습니다. 찬장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장은 어느 칸이나 음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상호부조회에서 그 일을 이미 다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성탄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문힌 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부르고 그들은 독일어로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이 모든 것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는 내 어깨에 머리를 파묻고는 계속해서 “마인 브루데르, 마인 브루데르, 마인 브루데르(내 형제, 내 형제, 내 형제)”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걸어 내려와서 밤의 대기 속으로 나왔을 때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어린 소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의 다음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문득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의 가사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고요히 너무나 조용히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으니 하나님은 인간의 가슴에 하늘의 축복을 주시도다.



템플 스퀘어 내의 갈매기 상과 어셈블리 홀

그의 오심을 아무도 듣지 못하나 이 죄많은 세상에서 온유한 영혼들이 조용히 그를 맞아들이리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들어 오시도다.

그의 선물이 조용히 또 놀랍게 주어졌습니다. 인생이 축복받았으며, 부족한 것이 충족되었으며, 가슴이 감동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견지명이 있는 계획을 따랐습니다. 귀중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예언자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그 희생이 진실로 하늘의 축복을 가져 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기운을 내어”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기운을 낼 때의 열매는 우리의 결단과 우선 순위와 소망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열매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 대회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기운을 내어”——그렇습니다. 기운을 내어 두려워 하지 말라는 권고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을 이야기해왔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반과 항의와 군사력 증강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불신과 빈곤과 실망과 테러 행위와 비극 등의 상태가 범람하는 세계에서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하나인 이 약속이 요즈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시기는 역사상 또 없었습니다.

“보라, 나의 종들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주의 약속이니라.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두려워 말라.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하면 너희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간증하리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간증하리라.”(교성 68:5-6)

기운을 내는 것은 행복이나 기쁨을

증진시키는 마음이나 기분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술, 맥주, 주사, 담배, 합리화, 자기 기만 등에서 찾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러 세월 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술을 마심으로써 자신의 슬픔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운을 냄으로써 우울하게 하는 현실이나 어려운 상황을 딛고 올라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재확신과 재강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구름이 빛을 가릴 때 비쳐주는 햇빛입니다.

최근에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갑자기 남편을 잃은 어떤 부인을 방문하였을 때 유타 주 와싱턴에서 온 이 훌륭한 부인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무겁고 슬프지만 내 영혼은 기운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인에게는 그 슬픈 상황을 지배하는 강력한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라는 약속이 가슴아픈 절망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기운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슬픔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슬픔도 부드럽게 해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비극과 고통으로부터 탈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라는 주님의 약속을 회상할 수 있다면 품위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반감에 차서 비판적이 되거나 패배하는 대신에 기운을 내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식견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에 직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귀를 기울이는 온 세상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음 축복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회원이 있습니다. 구세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기운을 낼 힘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5)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우리 친지들과 함께 나눌 때 낙담과 비극과 우울한 것을 희망과 명량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운을 낼 때의 열매는 우리의 결단과 우선 순위와 소망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우리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열매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구입하거나 훔칠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혼육이 잘 되어 기운을 내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에 관하여 생각하면 훌륭한 모범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기쁨과 희망의 마음 상태로 우리를 승화시켜 줍니다. 그들은 권세와 사랑의 또다른 차원에서 행복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 모범 가운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깊이 사랑해 온 어떤 훌륭한 “기운을 내고 있는” 부인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35년 이상이나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명의 훌륭한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감독으로서, 고등 평의원으로서 또 성공적인 건축업자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운을 내어 협력했습니다. 그가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하여 그의 운신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이 남편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녀의 이웃을 다 알고 있는 데 그들은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부인이 맨 처음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인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줍니다. 나는 그 부인을 보면 불수록 기운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열성이 퍼져 나가게 한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쾌한 일이나 사태 진전으로 인하여 노여움에 찬 침묵이나 심한 불쾌감을 표현할 때에도 기운차게 인내하고 훌륭한 정신으로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원기 왕성한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침례를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나 그런 과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또 교회에서 비활동적인 회원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과 새로운 친지가 양립할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시 교회로 돌아오라는 권고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을 내실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불과 몇 주 전에 태국의 방콕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젊은 여성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자매는 전에는 결코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정도로 기운을 낸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뜻깊은 변화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기운을 내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그녀가 말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에 한 작은 마을의 큰 길 근처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좀 가난한 편이었습니다. 저의 부친은 그 지방의 우체국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머니는 주부로서 자신의 생활에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여 좀더 흥미진진한 생활방식을 찾으려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술, 담배, 노름에 빠져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화투를 치며 아이들을 돌보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 나의 부친께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대회 방문자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모든 것이 잘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 번 크게 싸우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어머니에게 만일 계속해서 노름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에 나는 세 명의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 누구와 함께 살고 싶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가운데서 한 분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 큰 언니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온 선교사를 몇 사람 만났습니다. 언니는 교회에 대하여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생활에 채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니는 나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언니가 종교를 바꾼

것을 생각하면 매우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나는 불교의 가르침밖에 모르고 있었으며 그런 풍습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니에게서 일어난 변화를 보았습니다. 언니는 더욱 더 사랑이 많고 친절하였으며, 우리 가족을 돕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들과 공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도 역시 들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모두 우리가 그릇된 일을 했으며 우리 생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친과 두 오빠도 우리가 변화한 것을 보고 공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의 부친은 불교에서 중요한 역원이며 교사였습니다. 그는 표준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 자주 진실하게 기도드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겸손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안 것처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된 복음이 우리 생활을
바꾸었으며 거의 재난 직전까지 갔던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행복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주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젊은 여성은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백성들이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가족 모두가 그들의
절망을 훌륭한 원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방쪽에 있는 이 가족과는 정반대로
복음의 행복과 원기를 갖고 있는 우리
가운데 부정함과 기만에 빠짐으로써
그것을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기만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형태의 기만은 자기 기만입니다.

현대의 예언자들은 우리가 가슴아픈
재정적인 속박을 피하려면 “벼락
부자가 되는” 계획을 피하도록
분명하게 우리에게 호소해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백일몽에
빠진 순간에 경제적인 재난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참여한 사람들
탓합니다. 자기 기만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는 기운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기와
신용 사기의 바람과 폭풍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면 적자의 재난에 빠지게
될 때 놀라면 안됩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서
“속았읍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내 가슴과 마음과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 당신은 자신에게
속았읍니다.”라고 말하도록 충동을
받은 적이 흔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개를 높이 들고 우리의
생각과 입 밖에 내지 않은 우선
순위에 의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보도록 권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은 우리가 자신의
실패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합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판장님은
여러 해 동안 악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진리로서 우리 젊은이에 대한
사랑과 인도의 말씀을 강화시켜
오셨습니다. (앨 41:10 참조)

데이트하고 구혼할 때 행동에 대한
결정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마음이
끌리고 유혹받는 순간이 나타나기
전에 결정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부도덕한 행동이 자기 기만으로부터
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미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비행으로
빛어진 여러 사건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악이 기운을
내게 해준다는 생각은 합리적인
이성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의 행동이 진리에
대한 지식과 표준에 일치하도록
승화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는
것의 결과를 맛보려면 언제나
극기심으로 자기 기만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기 기만의 한 가지 형태는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행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변명에
의하여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해 보았을
따름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 “나는 유별나게 되고
싶지 않았어.” “다른 방법으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또는 “내가 이렇게 하도록 그가
만들었어.”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올바른
원리에 의탁하고 비교나 변명을 하며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호레이스
맨은 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리에 순종하여 충동을 한 번도
억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하여 헛되이 이야기한다.” (보통 학교
일지로부터 호레이스 맨: 그의 사상과
이상에서 인용. 조이 엘머 모건 편,
와싱턴시, 내셔널 홈 라이브러리



대회 방문자



대회 방문자



재단, 1936년 149페이지)

자기 기만은 기껏해야 그 효력이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 행위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지게 되면 우리는 합리화에 의하여 그 격차를 줄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기독교인다운 행동 표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축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참된 시험 방식입니다.

기운을 내는 것은 결코 자기 기만이나 합리화를 뒤섞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운을 내면 우리가 순간이나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합리화는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점차적으로 그 안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그것은 비뚤어진 길을 걷는 것을 택한 사람들에게는 버팀목이 됩니다.

기운을 낼 책임은 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기운을 내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것을 기운을 내어 받아들이고 그 기운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자기 기만과 합리화를 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석양을 밝은 일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운을 내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을 향한 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활에 들어올 때 그 기운이 우리의 길을 밝혀 줍니다. 구세주의 이런 선언은 얼마나 힘이 있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그분은 우리 옆에 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간증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힘을 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리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명예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구세주의 생애와 그의 기운 찬 사랑과 그의 모범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일 4:18)

나는 온 사방의 모든 인류에게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라는 것을 힘있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고 기운을 내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는 그가 지금 또 영원히 우리를 받쳐주리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날날이 가르치며 은총을 베풀었고”

제임즈 엠 패러모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진실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가르치며, 특히 길고 외로운 밤에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 즉 우리의 미망인들, 이혼한 사람과 노인, 비활동 회원들에게 손을 내어 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베푼 대관장님과 대관장단을 지지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 16년간의 경험을 통해 나는 그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이며 참된 예언자임을 압니다.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몇해 전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몇 가지 특별하고 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스테이크 대회에서 나의 훌륭한 친구이자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된 형제가 단 앞에 나와 복음의 가르침과 또 그를 가르쳤던 교사들이 그의 생애에 미친 놀라운 능력에 대해 간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팔로 두 아들을 감싸고 청중 앞에 섰던 그는 가슴이 벅차 두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복음과 나를 진실로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내가 받은 축복의 일부나마 보상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데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과 끊임없는 노력과 큰 관심을 갖고서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가정 방문 교사로서 그는 일전에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시험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 몇몇은 거의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그런 특별한 가족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의 일을 시작했고, 친구로서, 봉사자로서, 참으로 은총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방문에 방문을 거듭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자신이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와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메시지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의 집을 찾아 가면 집을 비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아내에게 그들의 말을 듣도록 혼자 남겨 둔 적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으며, 다시 활동적이 된 형제로서 그리고 교회의 감독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롭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알고보는 했습니다. 인간은 정신을 잃게 되면 사물을 적절히 판단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부정적인 면만을 보고 결점만 찾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누에고치에

싸여 있어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람들과 일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역시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내가 했던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감싸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도 갔으며 또 그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는 성신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으며, 더 자주 집을 방문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용기도 북돋우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종이요, 봉사자며, 친구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던 아버지들 중의 한 사람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게 생각된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근 20여년 동안이나 매일 같이 일을 마친 후에는 술을 사서 마셔서 결국은 집을 찾을 수도 없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우정어린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친 후 술병을 지닌 채 교외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차를 세우라는 음성이 가슴속에서부터 울려왔습니다. 그는 들판으로 걸어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간단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달되어 그가 일어나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술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짙그리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전해 졌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나는 그가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를 깨우쳐 주었던 내 친구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대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제자들은 나아가 저들을 날날이 가르치며 은총을 베풀었고”(니삼 26:19)라는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중요한 말씀인가를

생각해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은 구세주의 성역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구세주는 결코 기대하며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그의 생애에서는 한번도 교환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언제나 주는 편이었으며,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신발이나 양말 또는 차를 주지 않으셨고, 또는 향수나 셔츠 모피 외투 등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물은 받은 사람이 거의 교환하거나 그 가치를 되물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선물은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장님에게는 눈을 주시고, 귀머거리에게는 귀를 주시고, 앉은뱅이에게는 다리를 주었고, 불결한 곳에는 청결을, 병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의 선물은 짓밟히는 자에게는 자유며, 어둠속에 빛이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피난처와 음식과 사랑을 주었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으며, 그의 사랑과 봉사와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에게 금과 유황을 가져 왔으며, 그는 그들과 모든 인간들에게 부활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이 거룩한 선물입니다.”(놀라운 선물,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8년 2페이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가 물몬경의 엘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엘마서 17-19 참조) 모사이야의 여러 아들중의 한 사람인 암몬은 참으로 약 14년을 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은총을 베푸는 데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연구하여 진리에 대한 이해로 더욱 강하게 되었으며 그뿐 아니라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고,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그는 거칠고 강박하며 잔인한 레이맨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대회 방문자

데 있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자 레이맨인들은 그를 결박하여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 그들의 왕 라모나이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부터 그의 성역과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왕은 그에게 레이맨인들과 함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예, 오래도록 아니 죽는 날까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은 암몬이 마음에 들어 결박한 줄을 풀어주고 자기의 딸 하나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대신에 왕의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떼를 물고 있을 때 레이맨인 몇 사람이 와서 그들의 양떼를 훔쳐 놓아 종들이 죽을까 염려하게 하였으니, 이는 왕이 양을 잃어버린 자들은 대개는 죽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이것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이제 내가 내게 허가된 능력을 보이리라.”하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적들을 무찌른 후 양떼를 모으자 모두 다 그의 힘에 크게 놀랐으며 적은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종들이 돌아와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같은 일들을 증언하자 왕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그를 찾았으며 그때 그는 왕의 말을 먹이고 마차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이에 더 놀라 “저가 종들에게 분부한 것을 모두 기억하며 행하는 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염려해 주고 봉사를 하고 나자, 보다 큰 기회 즉, 왕과 그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기회가 그에게 열렸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왕이시여 저는 사람이고 당신의 종이니, 정당한 일이면 무엇이이라도 시키는 일이면 다 하겠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암몬에게서 위대한 영의 능력을 보고 느낀 왕은 “당신은 누구시오. 만사를 모두 아시는 위대한 영이시오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암몬이 능히 자기의 생각도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느낀 왕은 암몬에게 무엇이든 그가 원하는 것이면 다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암몬은 왕과 그의 백성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가르치며 그의 축복을 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났으며 또한 암몬이 왕을 침소에서 일어나게 하는 기적도 뒤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의로운 백성이 되어 저들의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암몬의 가르침과 성역 그리고 위대한 모범이 가져다 준 영향을 느끼면서 다음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 그가 마음속에 품은 소망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 그는 항상 종이였으며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3. 그는 금식과 경전 연구 그리고 기도를 통해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4.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5. 그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시회를 찾았습니다.

6. 그는 계명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7.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가르쳤고 또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실로 은혜를 베풀고, 봉사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은 결국 우리가 구세주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의 오른 편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암몬이나 나의 친구와 같이 능력있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원리와 진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진실로 실천의 복음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가르치며, 특별히 길고 외로운 밤에,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즉, 우리 주위의 미망인들이나, 이혼한 사람들, 노인이나 비활동적인 사람들에게. 우리 손을 내밀어 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을 때까지 그들에게 우리의 열려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그들은 “나아가 저들을 낳아 가르치며 은총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갈매기 기념비 받침대의 구조물



모든시대의 가장 위대한 뉴스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곱 디 야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는 회복된 복음은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한 소리로 외칠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모든 세상이 열렬히 그 소리에 응답할 때가 올 것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큰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애쉬튼 장로께서 내가 그의 가르침에 따르고 내가 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나의 지명은 내가 알기로는 말하는 것이며 오늘 오후 여러분의 임무는 내가 알기로는 듣는것 입니다.

만약에 내 임무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의 임무를 마치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나는 이것을 엘마이세가 물문경에서 말했듯이 “내가 대단히 기뻐하는” 임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연차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유타주에서 멀리 떨어진 일본 동부지역으로부터 왔을 때 엘마가 계속 말했듯이 “나를 더욱 기쁘게 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주님 뜻 가운데서 자기와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됨이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히 복음을 연구한 사람

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더욱 강하게 뭉쳐졌다.”(앨 17:2)는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 자신과 같은 외국인이 영어를 배울 때 그들은 대개 외국어의 액센트를 말할 때 발음을 올바르게 하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사로부터 어렵고 복잡한 단어는 피하라는 충고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표현이라는 말 보다는 인상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선생님은 의학적 용어의 경우에는 올바르게 사용될 때 이 일반적인 관례의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으로 나는 여러분과 의학적 용어인 “로고코포시아”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언어 불통”을 뜻하거나 또는 복음의 의미로 확대해 보면 “말로 전하는 지시를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전은 모든 경륜의 시대의 거룩한 예언자가 하신 지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데 이는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리니 듣고저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게” (교성 1:11)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좀더 훌륭한 경청자가 되도록 요구되어야 합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은 때때로 외문 스러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권고를 반복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정정이 주어져야 합니까?

부모로서 이러한 질문을 그들의 자녀에게 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또한 그의 아들과 딸들에게 같은 예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늘날 예언자의 권고에 귀를 막고 반은 라디오를 듣듯이 무심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찬송가 “예언자의 음성”(찬송가 113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왜 어떤 사람은 로고코포시아 즉 듣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습니까? 나는 물론 우리중에 신체로 듣지 못하는 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충실한 교회의 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감받은 교사였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여행을 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말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그는 후에 기록으로 그들을 상기시켜 주었는데 그것은 그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그가 가르친 거룩한 원리대로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처음 서한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 그가 가르친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들에게 서한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으며, 장사지내셨고, 삼일만에 일어나셨다는 것과 시몬 베드로와 12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고전 15:3-5)

그날 이후로 이 기록된 말씀은 한 동떨어진 지역의 단지 몇 백명의 그리스인 만이 아니라 60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모든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인류 역사상 중요한 사건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종할 때 바울은 죄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개종을 통해 그는 살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살아 나셨다는 진리를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진실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중요한 신앙 관계를 정립하는 것 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이룰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반자 관계도 가질 수 있음을 간증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과 동반자 관계를 갖는 것”은 나에게 있어 선교 사업에 관한 또 다른 정의입니다. 그리고 나는 선교 사업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은 그의 선교 사업 기간 뿐만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 주님과 매우 개인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같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뉴스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며 그의 속죄 희생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을 걸을 때 그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회복된 신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 세계가 진행되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살도록 된 것은 얼마나 축복받은 것입니까? 말일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주님의 성약의 백성으로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자주 그들에게 언급한 바와 같이 불쌍하고 구제할 수 없는 불면증 환자가 우리의 선교 사업 노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사업이 크게 발전하는 것을 보는 동안 브리검 영 대관장님이 교회에 대한 반대에 대해 하신 예언적인 말씀의 진실성을 영이 계속 나의 영혼에 증거하고 있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말하기를

“왕국은 점점 계속 증가하고, 성장하고, 퍼져 나가며 번성할 것입니다.

“왕국의 적들이 왕국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왕국은 좀더 넓혀지고 강하게 될 것입니다.

“왕국은 쇠퇴하는 대신에, 좀더 퍼져나가고, 더 훌륭하게 되고 백성들에 눈에 띄게 되어 마침내 온 세상을 채울것 입니다.”

나는 회복된 복음은 온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한 소리로 외칠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세상이 열열히 그 소리에 응답할 때가 올 것임을 압니다. 그때 바로 그때만 나라와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이 사라질 것이며 세상은 하나가 될 것이며, 구세주께서 천년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순간이 있기전에 영광스러운 복음 메시지가 전파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편화 될 것이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절실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1983년 2월의 “엔사인”기사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까?” 매우 분명하고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도움과 위대한 부름은 이상 사람들에게 이해의 초에 불을 켜서 그들의 길을 밝혀 불분명하고 어두운 곳에서 나와 복음의 기쁨과 평안과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했던 예언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선교 사업을 행하라는 예언자의 권고의 말씀을 듣는 경우에 우리는 때때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데 이것은 나의 영-화란 사전에 의하면 “자기 만족 또는 냉정한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평가 합시다

동양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는 이 문맥에 잘 적용되는 두 가지 고대 격언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인생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는 100년 후의 참된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과 방금 인용한 말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나는 우리의 선한 사업은 지금 행해져야 하지만 장막 저편의 생활과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게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말일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과 내세에서 많은 선을 이룰 것들을 행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김볼 대관장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표어인 “행하라.” 를 그의 책상위에 놓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으로 현재 로고코포시 아 측, 말씀한 지시를 이해하거나 들을 수 없는 능력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진지한 노력과 하나님의 영감아래 그 치료법을 찾아 고침을 받아 이 세상과 내세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진실로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삼 3:9)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만 듣는자가 되지 말고 또한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 드립니다. 아멘. *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테버내클로 들어서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과 다른 총관리 역원

성회 및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새로운 대관장단의 재조직 및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에 대한 지지 절차”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대관장단의 재조직, 다른 모든 총관리 역원 및 본부 역원에 대한 지지 절차입니다.

벤슨 대관장께서는 우리가 모인 이 성회의 행사를 집행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임은 온 세상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에게 참으로 중대하고도 거룩한 행사입니다.

1880년 10월 10일, 존 테일러 대관장이 브리감 영 대관장을 계승하여 예언자, 계시자, 선견자요,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받던 때로부터 새로운 대관장을 지지할 때마다 교회의 의견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성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모임을 열번이나 가졌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신권 직분 소유자들이 이 태버나클에 함께 모이거나 큰 건물에 모여 정원회나 그룹별로 앉아 교회의 정원회나 그룹별로 교회 역원을 지지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버나클에 앉아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미국과 캐나다 전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교회에 모여 있는 상태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가정에 앉아서 이 대회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여러분 모두 우리가 다른 역원과 함께 새로운 교회 대관장을 지지할 때 이 신성한 행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 태버나클이나 다른 홀에 모인 회중이 정원회 별로 앉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지는 정원회와 그룹별로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호명받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되는 이름에 대한 지지의 뜻을 손을 높이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는 총관리 역원이 회중의 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스테이크 센터에는 스테이크 부장단이 지지를 살펴볼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리는 성회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중계로 이루어지는 이 대성회의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관장단장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교회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찬성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매리온 지 롬니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톱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형제를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대관장단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그리고 그의 보좌와 지금 발표되어 대관장단으로부터 지지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어느 곳에 계시든 다음 호명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임명된 모든 축복사, 칠십인 제일 정원회와 관리 감독단을 포함한 대제사, 칠십인 및 모든 장로.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그의 보좌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발표하여 지지된 대로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 교사, 집사 등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그의 보좌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을 앞서 지지한 대로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일어섰던 모든 분을 포함하여 전 회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형제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그의 보좌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앞서 지지된 방법으로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앉은 채로 다른 총관리 역원과 교회의 본부 직원들을 지지하겠습니다.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에 칼로스 이 애시, 딘 엘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매리온 디행스,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잭 에이치 고슬린드, 로버트 엘 백맨 형제, 그외에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에이 디어도어 터틀, 프랭클린 디 리차즈, 디어도어 엠버튼, 폴 에이치 던, 하트만 렉터이세, 로렌 시 던, 로버트 엘 심슨, 렉스 디 피네가,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에드니 와이 고마쯔, 조셉 비 위스린, 진 알 쿡, 찰스 에이 디데이,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야곱 디야가, 본 제이 페더스투운, 로이던 지 테릭, 로버트 이 웰즈, 제임스 엠 패러모어, 휴 더블류 피녹크,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코 기꾸찌, 로널드 이 포울맨, 테릭 에이 커스버트, 렉스 시 리브, 에프 버튼 하워드, 테디 이 브루어튼, 안헬 아브레아, 존 케이 카맥, 러셀 시 테일러, 로버트 비 하버트슨, 디비어 해리스,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필립 티 손태그, 존 소넨버그, 에프 아서 케이, 키이드 더블류 윌콕스, 빅터 엘 브라운, 에이치 버크 피터슨, 제이 리차드 클라크, 한스 비 링거, 왈도 피 쿨, 헬리오 알 카마고. 그외에 1984년 연차 대회에서 제정된 관행에 따라 약 3년간 철십인 제일 정원회 봉사하게 될 새로운 회원으로 다음 형제들이 부름받았습니다. 한스 벨란



미소를 짓고 있는 대관장단

앤더슨, 조지 아이 캐논, 프랜시스 엠 기번즈, 가드너 에이치 러셀 관리 감독단 관리 감독에 로버트 디 헤일즈 제 1보좌에 헨리 비 아이어링, 제 2보좌에 글렌 엘 케이스. 명예 총관리 역원으로는 명예 축복사인 엘드리드 지 스미스, 철십인 명예 회원에 스테어링 더블류 실, 헨리 디 테일러, 버나드 피 브룩뱅크,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조셉 앤더슨, 존 에이치 반덴버그, 오 레슬리 스토운 형제를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 제 1보좌로 수고해 오신 패트리시아 티 홀랜드 자매는 브리감 영 대학 총장인 제프리 알 홀랜드 형제의 부인입니다. 남편의 책임에 따른 시간의 부족, 가족에 부담 등으로 부득이 명예로운 해임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청녀 회장단 제 2보좌인 머린 제이 털리 자매를 해임합니다. 각각이 직책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해주신 이 자매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녀 회장인 아테스 지 캡

자매께서 머린 제이 털리 자매를 제 1보좌로 제인 브로드벤트 벨란 자매를 제 2보좌로 추천했습니다.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기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본부 직원 및 임원, 현재 봉사 중인 모든 지역 대표를 지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벤슨 대관장님, 제가 관찰한 바로는 태버나클 내에서의 지지는 만장일치로 지지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건물 내에게 반대 의사가 있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지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께서 손으로만 지지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신앙과 기도로 지지하신 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지지야말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새로 지지받으신 앤더슨, 캐논, 기번즈, 러셀 장로는 앞으로 나와 철십인 제일 정원회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벨란 자매님도 앞으로 나와 캡 자매 옆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가운데)

증인으로서 16년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평일에 거의 매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특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각자 특별한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꼭 16년 전 오늘 저는 감독으로 회중 가운데 앉아서 조셉 핀딩 스미스 대관장을 교회의 대관장으로 해롤드 비 리 부대관장과 엔 엘톤 태너 부대관장을 보좌로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도 그 대회에서 십이사도부 부름을 받았습니 다. 지금 단상에서 그가 앉아 있는 위치를 보면 1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회에서 윌리엄 베틀, 조셉 앤더슨,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가 십이사도 보좌로 지지되었습니다. 물론 베틀 장로는 별세하였으며, 현재 십이사도인 헤이트 장로와 앤더슨 장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앤더슨 장로는 현재 97세입니다.

근 50년 동안이나 대관장단 서기로 봉사해 오신 앤더슨 장로는 당시 제가 감독으로 일하던 와드의

회원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우여곡절 끝에 그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은지 3일 후에 저는 처음으로 대관장단 모임에 참석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16년 전 그때로부터 평일에 거의 매일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각자 특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각자 특별한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과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님,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에 대하여 아무 조건없이 온 마음을 다바쳐 지지하고, 사랑하며,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들입니다. 우리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사람이란 이와 같은 시간이면 자연히 자신의 뿌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조부였던 빈슨 나이트는 이 교회의 최초의 와드였던 커틀랜드 와드의 감독단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뉴엘 케이 휘트니 감독 아래서 봉사했습니다. 후에 그는 아담 온다이 아만에 있는 와드에서 그 당시에 프로그램 감독이라 불리우는 직분으로 봉사했습니다. 그의 딸로서 저에게는 증조모인 리즈파는 아담 온다이 아만 결을 흐르는 그랜드 리버 강둑에서 들딸기를 판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후 빈슨 나이트는 나부에서 요셉 스미스와 브리감 영 대관장이 살고 있던 낮은 지역 와드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인 마르타 맥브라이드 나이트는 상호부조회 창립 회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훌륭한 분들의 헌신과 신앙을 생각합니다. 빈슨과 마르타의 딸인 앤드루 스미스 기번즈라는 젊은 청년과 결혼 했습니다. 그들은 커틀랜드의 십대 젊은이였습니다. 결혼 후에 리즈파는 윈터 쿼터스 근처에 있는 아이오와주의 카운슬 블러프스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가 나의 조부인 앤드루 빈슨 기번즈입니다. 조부인 앤드루는 1847년 7월 24일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브리감 영의 선발대의 일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아리조나주에 있는 강을 건너 여행을 끝냈으며, 저는 그곳의 세인트 존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지도에서 그곳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세인트 존은 콘초에서 23킬로 쯤 떨어져 있다고 말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콘초는 땅 끝일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우리에게는 그곳이 지구의 중앙입니다. 저는 이 조상들에게 존경과 존중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아내와 자녀, 손주, 모든 친구와 친척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지낼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름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이 부름을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저는 충실하고 근면하게 봉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벤슨 대관장님과 그의 보좌들에게 저에게 다시는 어떤 부름도 주시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신 부름은 저의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는 40여년 전 선교사로 봉사하던 젊은 시절에 영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며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영적인 방법에 의하여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의 대관장단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분들을

지지하며 그분들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분명히 지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6년전 대관장단 서기로 부름받았을 때 저는 교회와 그 지도자의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의 교리나

관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들의 인격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도 나에게 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일은 한 번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그들이 고귀하며 굳은 인격을 지닌 헌신적인 분들로서

복음 원리를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비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대관장단

거룩한 책임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지고 있는 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둘째는 어디에 있던지간에 교회 회원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교회 즉,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의식을 집행하며, 그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나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신 예수그리스도와 증거자이신 성신에 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나를 지지하기 위해 주님께 대한 성약으로 손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다짐과 마음의 표현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해 모세가 산에서 자신의 손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고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승리했으나, 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적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출 17:12)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중들의 손을 받쳐 들 때 승리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 대관장으로서의 이직책에서 나보다 앞서간 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과거의 전임자들과 같이, 교회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부모님과 협조적인 형제 자매와 함께 지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훌륭한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그녀는 훌륭한 보조자로서 또한 고상한 어머니로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주님과 부모에게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두 분의 훌륭한 보좌이신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주님께 의해서 그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두 분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큰 축복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여러 해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들과 관리 감독단과 함께 봉사하는 것 또한 큰 기쁨이 됩니다.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에게는 위대한 단합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단합은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단합된 형제들로서 계속해서 함께 일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교회 회원들과 지도자들의 충실한 도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과 기도에 대한 확신을 글로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와 같은 진실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사업으로써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하던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입니다.

나는 영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영을 받아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 되며, 헌신적인 자녀와 부모가 되며,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되며, 깨우침을 주는 교사가 되며, 영감받은 와드와 스테이크 지도자가 됩니다.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여러분의 숭고한 노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화가 있다면, 그러한 모든 일을 제쳐 놓고 주님의 사업을 증진시켜 나가는 위대한 책임에 함께 참여합시다. 혹시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며 여러분이 교회의 온전한 활동과 우정 증진에 다시 돌아 오기를 환영하며 또한 도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해야 할 거룩한 책임을 지고 있는 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둘째는 어디에 있던지간에 교회 회원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한 가지씩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며, 우리는 주님의 명에 의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복음을 전파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청남은 선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선교 사업을 나가야 합니다. 많은 자매들도 또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교 사업을 다녀 온 아내에게 감사하며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손자 손녀들을 두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개종자에게 축복을 주며, 선교사를 축복하며,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연로한 많은 부부들은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은 선교 사업이 그들의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들을 달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부친께서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던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친은 집에 어머니와 7명의 자녀를 두고 떠났는데 여덟 번째 자녀가 임신 중에 있어 그가 선교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안 태어났습니다. 신앙심 깊은 어머니께서 그 자녀들에게 읽어주신 아버지의 편지는 선교 사업의 정신을 집안에 불러 들였으며 그 정신은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아들들은 모두 적어도 한 번 이상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마침내 딸들도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교회 회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다음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표준 경전과 주님의 기쁨부음을 받은 종들, 그리고 개인적인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이 함께 매일 공부해야 할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떠한 다른 책보다도 그 교훈을



신권 대회에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브리감 영 대학교 귀환 선교사 합창단에게 손을 흔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교회사, 4권 461페이지)
롬니 회장은 매일 이 책을 30분씩 공부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께 그렇게 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나는 항상 경전 읽기를 즐겨해 왔으며,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벤슨 자매님과 함께 매일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도와 매일 가족 경전 공부를 하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대하는 적은 가정에서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가족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 구절씩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면제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주제별로 공부하거나, 과제를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린 아이 시절에 어머니가 성전복을 다림질하며 나와 함께 경건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벤슨 자매와 함께 매주 성전 의식에 참여하며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감으로써 죽은 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계시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합쳐 이 세 가지 위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책임을 성취시켜야만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첫 모임에서 우리는 그릇의 인을 깨끗이 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종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에게 영감을 주셔서 십일조의 원리를 재강조하심으로써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총관리 직원들은 그 십일조의 메시지를 교회의

회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날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물몬경을 더욱 강조하심으로써 교회와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저주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회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훌륭한 대회를 끝마치면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현재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의 목적은 성취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 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위대함의 척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몬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선으로 이끌어

인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인즉……그러나
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며
그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든, 너희는 분명히 온전한
지식으로 이러한 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임을 알지니”(모로 7:13,17)

이러한 표준으로 우리가 읽는 것과
우리가 듣는 음악과 우리가 보는
오락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합시다.
좀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합시다.

나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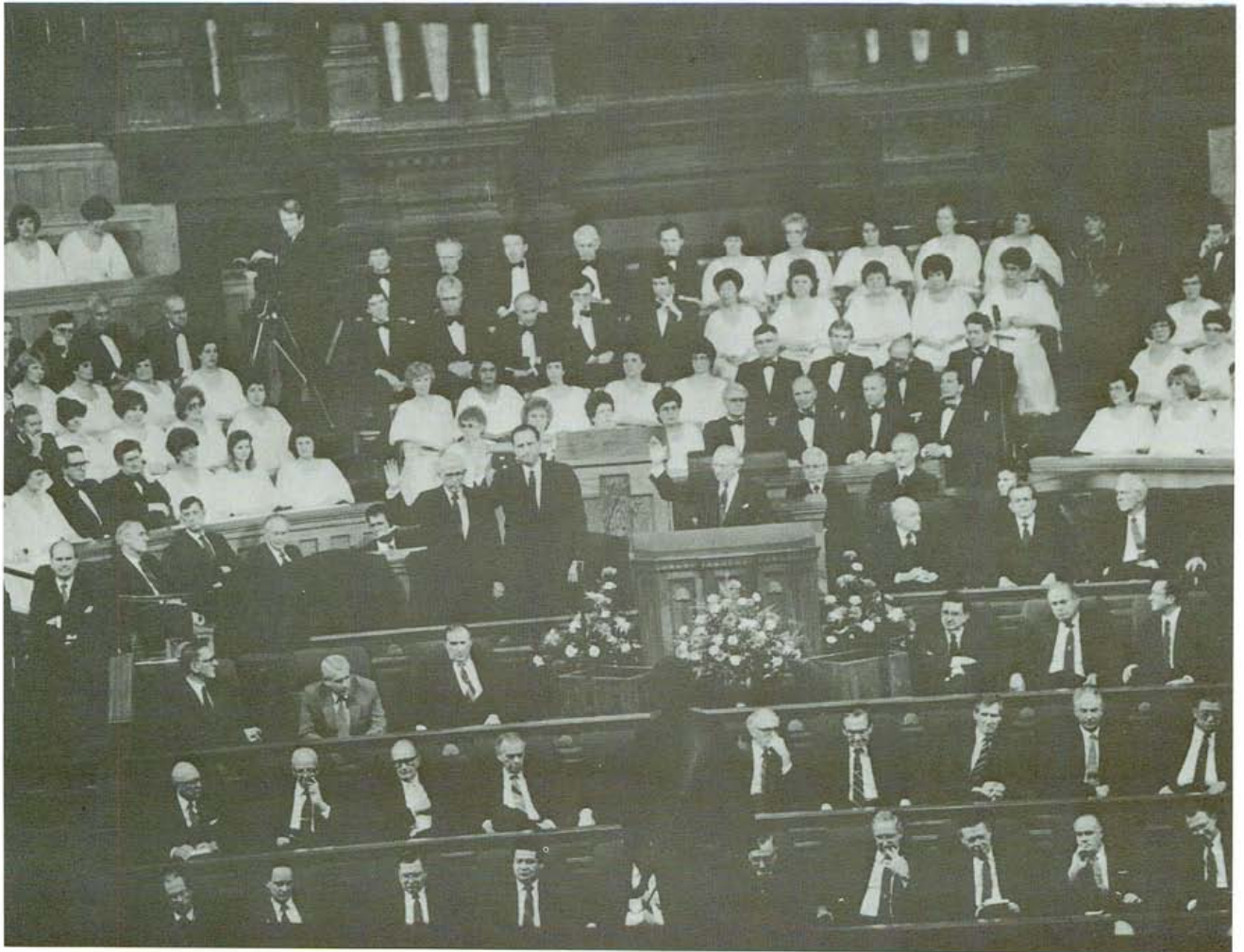
이제 나에게 부여된 성신권의
권능으로써 나는 말일성도와 모든
선한 사람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더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잘 구별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욱 담대하게
선을 행하고 악에 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몬경을 더욱 잘 이해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가 매일
물몬경을 읽고 그 교훈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온의 자녀와
교회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저주,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나는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십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광경



말씀의 힘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신권 역원 모임을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날 여기 모이신 분들과 같은 똑같은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단체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정치적, 종교적 또는 군사적인 다른 어떠한 단체도 오늘 이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큰 시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교성 1:35)이라고 말씀하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자 요한이 예견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계 12:17)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사탄은 간증을 갖고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교회 회원들에 대하여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디수의 우리 회원들은 성실하고 강한 반면에 더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러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몇몇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떤 성도들은 정복당하리라는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계 13:7 참조)

예언자 리하이 역시 생명의 나무의 꿈에 관한 위대한 시현에서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유혹의 상징인 어둠의 안개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보았으며(니일 12:17 참조) “금단의 길”로 떨어지는 사람들과 더러운 강물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할 길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니일 8:28, 32) 우리가 마약의 피해가 확산되고, 유해한 환화와 부도덕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기사를 대하면서 누군들 이러한 것이 리하이가 묘사한 금지된 길과 더러운 강물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리하이가 본 사람들이 모두 다 세상에서 멸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에까지 이르러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의 교회의 몇몇 회원들은 리하이가 본 길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해방하며, 참소하며, 사나우며, 교만하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로 묘사했습니다. (딤후 3:7 참조) 그는 또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딤후3:13)라고 경고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의 그러한 냉혹한 예언은 같은 예언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큰 두려움과 실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감받은 권고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리하이는 그의 꿈에서 어둠의 안개를 헤쳐 나가는 쇠막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막대를 잡는다면, 그들은 더러운 강물을 피하게 되고, 금지된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며,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상한 길에서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후 그의 아들 니파이는 쇠막대의 상징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이 “쇠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하고 묻자 니파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이 약속의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를 굳게 지킬진대 멸망당하지 아니하며, 유혹이나 원수의 불길같은 창도 이러한 자들을 사로잡아 눈멀게 하거나 멸망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니일 15:23-24)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엇보다도 가장 먹음직스런 과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에 저항하는 힘과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일을 방해할 능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리하이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시대의 — 그에게는 미래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재입니다. — 극도로 사악함을 묘사한 다음에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 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4-15)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시대의 큰 시련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 있는 예언자와 개인적인 계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강하게 하고 영으로 무장시켜, 악을 물리치고 선에 가까이 밀착되어 이 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신권 지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리하이와 바울 및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도들을 주위에 가득 차 있는 “노략질하는 이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마 7:15; 행 20:29 참조)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와드와 스테이크의 회원들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신 여러분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어깨에 많은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원들을 접견하고 권고하며, 스테이크와 와드의 재정적인 문제가 합당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건물을 짓는 일 그리고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어느 하나라도 무시되거나 제쳐 놓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것이 여러분이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금년에 들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큰 영적인 보답을 가져다 주는



대회 광경

어떤 활동을 여러분에게 권고드려 왔습니다. 1970년초에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지역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이 변질되지 않고 진리와 이성으로 가득 찬 복음에 굽주리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악한 모든 것에 대항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한 무기는 주님 자신의 말씀 곧 경전에 나와 있는 평범하고 단순한 구원의 교리임을 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70년 6페이지)

1976년 대관장단 메시지에서 킵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우리 생활에서 최소한 얼마 동안은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위해 경전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찾아 본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듭 거듭 그것을 다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가깝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눅 12:48)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경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경전을 연구해야 하며(나삼 22:1-5 참조), 우리는 경전이 우리 생활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엔사인, 1976년, 9월, 4-5페이지)

1982년 4월 브르스 알 맥콩기 장로는 지역 대표들에게 우리가 경전에 기울여야 할 노력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통계나 세태나 재산이나 토지나 재물 또는 우리 사업의 가장 정점이 될 목표를 성취하는 문제들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더욱 중요한 율법의 문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에서 그들이 아무리 큰 재능을 발휘하고, 그들의 견해를 아무리 유창하게 표현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학식이 아무리 깊다한들, 그들이 경전에 대하여 연구하고, 숙고하고, 기도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의 속삭임을 그들은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지역 대표 세미나, 1982년 4월 2일, 1-2페이지)

같은 날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과 지역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건물도 중요하고, 보고서도 절차도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필수적인 영적인

영양분을 전달할 수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내주신 일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양분을 간직하고 있는 올바른 것은 경전에 모여 있습니다.”(스테인크 부장 및 지역 대표 모임, 1982년 4월 2일, 1-2페이지)

나는 이 현명하고 영감에 가득 찬 형제들의 말씀에 덧붙여 여러분이 신권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전에 자신을 몰두하는 일임을 말씀드립니다. 경전을 부지런히 상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교리를 배우십시오. 그 속에 들어있는 원리를 익히십시오. 그외의 다른 일로서 여러분의 부름에 보다 큰 배당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중에 보다 큰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치있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교회 회원들간에 뜻깊은 경전 연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과 활동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스테이크 내에서의 활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참석률을 늘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는 젊은이들의 백분률을 높이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왕국의 성장에 중요하고도 크게 이바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회원 개개인과 가족들이 정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전 연구에 몰입한다면, 이러한 기타 모든 활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간증이 증가되고 헌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은 강화되고 개인적인 제시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느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물론경, 소개) 그것이 바로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의 회원들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이 경이로운 말일의 그리스도 증인에 그들 자신을 몰입하도록 권고 하십시오.

우리는 성도들이 경전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지워 주신 짐이 아니라, 큰 축복이요, 기회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점에 대하여 주께서 몸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유의하십시오. 위대한 예언자이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행통하리라.”(수 1:8)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질적인 부와 명성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이 의로움 가운데에서 평탄하게 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참된 기쁨을 찾는다는 문제에 있어서 행통하게 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이 2:25 참조)

여러분의 스테이크 내에는 죄악과 비극으로 인생이 산산 조각이 나서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해 주고, 그들의 고통받는 영혼을 위안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까? 예언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훌륭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 곧 상한 심령을 아물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여 왔으므로”(야 2:8)

오늘날의 세상은 가장 훌륭한 우리 회원들조차도 이끌림을 받아 잘못을 저지르고 기만당할 수 있는 현혹적이고 매력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들도 복음 교리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세상의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권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와 같은 기만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의 회원들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위대한 감람산의 설교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속임을 당하지 않으리라.”(영감역 마 1:37)

경전에는 말씀의 가치에 관한 비슷한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원들 중에는 일상 생활에서 지침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그리고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면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니이 32:3)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원들 중에서 죄에 깊이 빠져 있어 자신을 배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힐라맨은 이러한 약속을 들려 줍니다. “..... 온갖 마귀의 간사와 교활과 간계를 파하시느 하나님 말씀 믿는 자를 모두 주가 인도하시어”(힐 3:29)

의로움 가운데의 성공, 속임수를 피하고 유혹을 물리치는 힘, 일상 생활에서 인도하심, 영혼의 치유함 등은 주께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받들어 지킨다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축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면에서 부지런하다 해도, 특정한 축복은 경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명의 나무에 이르는 어둠의 안개를 헤쳐 나갈 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굳게 잡을 때에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그 권능한 축복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초기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엄숙한 경고의 말씀에서 주님은 물론경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너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볍게 다루었으므로 어두웠느니라.”

“허영과 불신앙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받게 하였나니,”

“이 저주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론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교성 84 : 54-57)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직접 받은 위대한 것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합시다. 그의 말씀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귀중한 은사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경전 연구에 다시 몰두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매일 같이 경전을 깊이 상고하여 여러분의 부름에 영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경전을 읽고 자녀들에게 경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교회 회원들에게 여러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다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도 엘마와 같이 다음 말씀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그때까지 그들이 겪은 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겁이나 그 밖의 어떠한 것보다도 큰 영향을 사람들에게 미침을 알았으니”(앨 31 : 5)

엘마와 같이 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앨 31 : 5)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86년 4월 4일 금요일 신권 역원 모임을 위해 준비한 이 말씀을 벤슨 대관장님이 일부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말씀을 그분의 요청에 의해 이곳에 기재합니다.

대회 방문자



복지 항목 소개

1986년 4월 대회 소개

가족들이 필요한 때를 대비하여 식량을 저장해야 한다는 원리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이 원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습기, 열기 혹은 다른 조건 등으로 곡물이나 포장식품 통조림 음식의 저장 기간이 극히 짧은 지역에 사는 가족은 "신선한 저장"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싶어하게 될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작물을 교대로 경작함으로써 한 작물을 거두어 들인 후 다른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정원이나 밭을 가꾸는 것이다.

가족들은 또 쉽사리 입수할 수 있고, 저장이 잘 되고, 훌륭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음식을 저장하기를 권할 것이다.

회원들은 저장한 음식을 요리하는 법을 알아야 하며 이들 음식은 먹기에 좋아야 한다.

요약하면, 가족은 지역의 기후 조건하에서 실제로 할 수 있고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허가되고 가족의 재력으로 가능한 방법을 지혜있게 활용해야 한다.

개인 및 가족의 몇 가지 복지 목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개인 및 가족 복지의 원리를

배움. • 나는 경전(말일성도 발행 킹 제임스 성경 주제별 색인

참조)연차대회 말씀 및 교회 간행물을 공부하여 일, 자립, 검소한 생활, 봉사,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봄과 같은 복지 원리를 배우고 있는가?

• 나는 교회 모임과 공과에 참석하고, 교회 부름을 원수하고 봉사 활동에 참석함으로써 복지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가?

• 나는 이러한 원리를 가정의 밤에서 나의 가족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 우리는 부부 평의회와 가족 평의회에서 복지 원리를 토론함으로써 복지 원리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가?

•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가?

2. 자립하고 검소하게

생활함. ※ 나는 자신, 가족 및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있어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 나는 재정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나는 음식 및 기타 필수품을 생산하고 저장하는가?

• 나는 좋은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 나는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 나는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올바르게 준비하였는가? 그 준비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가?

• 비상사태를 위해 준비하였는가?

• 나는 나 자신과 가족의 부양 및 복지를 위한 책임을 받아들이는가?

3.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금식 헌금을 늘림.

• 나는 후한 금식 헌금을 내고 있는가?

• 좀더 내야 하는가?

대회 방문자

4. 가족 이웃 교회 및 지역 사회의 자선봉사에 계속적으로 참여함.

• 봉사할 사람과 방법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 나는 가족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는가?

• 나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나는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

• 나는 지역사회에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가? *



가족이 함께 복지 원리대로 생활함

복지 원리를 가르침 : 시작하는 방법

그들은 자녀들이 경전 공부, 자선 봉사 및 일의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또 좀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딸 중의 하나가 스테이크 워크숍을 본떠서 가족 대회를 갖자고 제의했을 때 카알과 세리 존슨은 곧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큰딸 다섯은 각각 자선 봉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5분간의 공과를 준비하였다. (두 명의 어린 딸까지도 판넬판을 이용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각 워크숍은 집안의 각각 다른 방에서 행해졌다. 가족은 방에서 방으로 옮겨다니며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마지막으로 식당에 모여 다과를 들며 간증 모임을 갖고 마쳤다.

14살된 브레아나가 이렇게 말했다. “각 방으로 다니며 준비해 놓은 포스터와 그림을 보는 것은 재미 있었어요. 그리고 각 방에서 우리는 거기서 배운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성구나 그림이나 시가 담긴 유인물들을 받았습시다. 간증 모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의 깊은 사랑을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 1985년 8월호 20-22 참조)

교회에 있는 모든 말일성도들은 복지 원리 — 일, 자립, 검소한 생활, 봉사 및 가난한 자를 돌봄과 같은 원리 — 를 이해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원리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그들 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다.

교회 조직 자체에서 복지 원리를 배우도록 중요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성찬식이나 공과에 참석할 때 교리를 이해하게 되며,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계획에 참여할 때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되며, 교회 부름을 완수할 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사랑을 키우고 사랑의 은사를 누리게 된다.

가족을 돌보는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요소는 개인 및 가족 기도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 및 가족의 필요 사항에 대해 기도할 때 주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 또 우리 환경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받는 인도는 우리의 이웃이나 친척에게 주어진 것과 다를 수가 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바깥에 따라 매년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받는 응답이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경전과 이 성도의 벗에 있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말씀은 중요한 자원이다. 부모는 매일 경전 공부 시간이나 월요일에 갖는 가정의 밤 활동 중에 복지의 개념을 가족들에게 가르칠 때가 많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 공부나 경전 공부 시간에 그러한 개념을 가르친다.

한 가지 방법은 한 대회 말씀을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지명하여 주말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모든 사람이 같은 말씀을 공부하여 그것을 토론하도록 준비하고

참석하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나이는 사람이 어린이들을 위해 그 말씀을 쉽게 고쳐줄 수 있다. 그림책으로 된 경전 이야기 성도의 벗, 가정의 밤 자료집 및 복음 원리 교재와 같은 자료에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더 찾을 수 있다.

부부 계획 모임은 부모가 가족 및 가족원 개인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움을 준다. 부모와 자녀간의 접점을 자주 갖는 것은 부모가 개인의 필요 사항과 자녀가 그 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가족 평의회는 가족 목표와 사업을 실행할 도구가 된다.

여러 가족이 이러한 기본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복지 원리를 가르치고 적용하는 성공적이고 창조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롬니 가족은 가족 규약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우선 그들의 우선 순위를 조사한 다음 의회 절차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동의했다.

(1) 참되고 의로운 가르침 (2) 사랑과 이해 (3) 합당한 절제 (4) 영양가 있는 음식 (5) 질서있고 안락한 가정 (6) 청결한 의복 (7) 충분한 사생활 (8) 자립을 위한 교육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가족 내에서도 권리는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한다. (2)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한다. (3) 가족에게 충실한다. (4) 필요한 일에 있어서 함께 함으로써 가족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한다.”

빅토리아 롬니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다음은 규약 즉, 가정 규범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편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 규범은 허드렛 일, 취침 시간, 특별한 권리, 예절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과 같은 것을 다룹니다.” 물론 가족마다 각기 다른 지침과 가족 규범을 가질 수 있다. 이

방법의 비결은 모든 가족들이 규범을 만드는 데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그 법을 좀더 기꺼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앤서인 1976년 6월호 71-72페이지 참조)

스코트와 안젤리 앤더슨은 또 다른 성공적인 방법 즉, 여러 개의 가족 복지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을 시도했다. 두살된 자녀는 가족 양지 위원회로서 껴안고 입맞추고, 미소짓고, 감사하고, 기쁜 모습을 보이는 책임을 진다. 여섯살 된 자녀는 가족 교육 위원회로서 모든 사람이 준비를 갖추고 가정의 밤에 오도록 권하고 건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알아 보는 것을 돕는다. 9살된 자녀는 가족 준비 위원회로서 아침 예배, 경전 읽기를 돕고 비록 비상시를 위한 준비 및 선교사 준비를 권장한다.

12살된 자녀는 가족 활동 위원회로서 가족들에게 다가오는 생일과 다른 특별한 행사를 상기시켜 주며, 다른 가족에게 은밀한 봉사를 할 것을 권장한다. 13세된 자녀는 가족 유산 관리 위원회로서 역사, 계보, 및 친척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앤더슨 자매는 가족·영적 위원회로서 조화, 건강, 단합, 예술, 질서 및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앤더슨 형제는 가족 완성 위원회로서 부양하고 보호하고 계획하는 것을 감독한다.

“이러한 위원회를 갖게 되면서 우리는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족 평의회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위원회 임무와 우리가 각자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위원회가 우리 가족의 필요 사항에 적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약간의 실험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모두 잘 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위원회 조직은 다른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앤더슨 자매가 말했다.

일요일 가족 시간을 복음 공부에 보낸 이후로 빌과 웰리 데이비스 가족은 그들의 월요일 저녁 활동을 복지 활동으로 보내고 있다. 매월 첫 월요일은 봉사의 밤이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 정원의 잡초를 뽑고 미망인을 방문하거나 기타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둘째 월요일은 문화와 교육의 밤이다. 때때로 그들은 그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회에 참석하거나 드라이브를 하며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셋째 월요일은 신체 단련의 밤으로 오랏말놀이, 토너먼트, 크로케이, 에어로빅, 공원에서 그네타기 등을 즐긴다. 넷째 월요일은 가족 일의 밤이나 모든 사람은 함께 일한다. 만약 다섯째 월요일이 있으면 다른 다른 가족을 초대하여 사교의 밤을 갖는다. 이런 날 저녁은 비활동내지 비회원 친구들과 우정 증진을 하면서 보낼 때가 흔히 있다.

데이비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비슷한 관심을 갖게 해 주며, 그래서 우리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계속 가정의 밤을 갖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월요일 저녁을 무질서한 혼란 가운데서 보내지 않고 월요일 저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족에게 복지의 원리——일, 자립, 자선 봉사, 및 기타 등——을 가르치는 방법은 끝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추구할 때 주님은 우리들 가족에게 가장 성공적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이행하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

복지 원리를 가르침 : 시작하는 방법

1. 부모 계획 평의회를 가짐(남편과 아내가 가족과 그들의 필요 사항을 토론하기 위하여 만나는 시간) 결정 사항 :

※ 언제 가질 것인가? (일요일 아침 혹은 저녁? 월요일 저녁 가정의 밤을 갖기 전 혹은 후에? 금요일 저녁 데이트 밤의 일부로?)

※ 얼마나 자주 가질 것인가? (매일? 매주? 매월?)

※ 무엇을 토론할 것인가? (자녀의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일 것인가? 가족의 조화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어느 때가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연구, 가정의 밤을

갖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가? 우리는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즉, 성도를 온전케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것에 얼마나 잘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우리의 가족 생활을 좀더 낮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들 집에서 주의 영을 느끼고 있는가? 어떻게 좀더 잘 할 수 있는가?)

2. 가족 평의회를 가짐(모든 가족이 가족 복지를 토론하기 위한 시간) 결정 사항 :

※ 언제 얼마나 자주 만날 것인가? (가정의 밤 공과를 가진 후? 일요일 저녁 식사 후? 매달 금식 주일에? 월요일 밤 활동 전이나 후에?)

※ 우리의 가족 평의회 의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기도와 찬송, 월중 활동 계획? 문제의 토론과 해결? 목표 설정? 서로 목표달성을 도움? 가족의 성취를 인정함? 가족 예산 토론 가족 활동 및 봉사 활동에 대한 계획?)

3. 가족 경전 연구 시간을 가짐(모든 가족이 함께 경전을 연구하기 위한 시간) 결정 사항 :

※ 언제 가질 것인가?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저녁먹는 시간에?)

※ 무엇을 공부하기를 원하는가? (경전? 자녀들을 위한 간추린 경전 이야기? 연차 대회 말씀?)

※ 매일 얼마나 공부해야 하는가? (일장? 한 페이지? 두 페이지? 5절? 10분? 20분?)

※ 이 시간에 그 밖에 무엇을 할까? (기도, 찬송? 간단한 생각을 나눔? 우리가 읽고 있는 것에 대해 토론하고 그것에 대한 배경 자료를 제시함?)

4. 가정의 밤과 가족 활동을 가짐(가족이 말씀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시간) 결정 사항 :

※ 가정의 밤 모임 순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기도, 찬송, 재능 발표 순서, 공과, 다과?)

※ 어떤 활동을 할까? *

자립의 비전을 포착함

어느 날 밤 릿셀 헤이크스의 집에 전화가 울렸다. 그런데 그는 당시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한 남자의 절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헤이크스 부장님” 나는 분유 저장을 거부합니다. 교회는 나에게 분유 저장을 바라지만 나는 정말 분유를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헤이크스 부장은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가 흥분한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헤이크스 부장은 교회는 그가 원치 않는다면 그가 분유를 저장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켰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일년치 물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님에게 달렸습니다.”하고 전화한 사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아마 내가 분유를 저장한다면 교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 남자는 분명히 말하고는 조금 진정해서 “나는 여섯 마리의 젓소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이 상황에서 나온 이 유모어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자립하고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비상시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라고 촉구할 때 그들이 어떤 특정 저장 품목을 복음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립의 정신과 가정에서 검소한 생활을 부탁하는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즐기는 검소한 생활은 위기가 닥친 후에 처리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 목표는 각 개인 및 가족이 다음 6개 분야에 걸친 준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교육 및 문맹퇴치,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 재정 및 자원

관리, 가정 생산 및 비축, 사교적 정서적 및 영적인 힘, 보전이다.

교회는 우리가 이 균형된 준비와 그 결과로써 오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 주는 지침과 자원과 아이디어를 마련해 주고 있다.

혼자 살든지 혹은 가족의 일원이든지 간에 과제는 기본 지침을 받아들여 자신의 여러 가지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결코 분유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분유를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검소하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주님의 안내를 구해야 한다.

두 가지 중요한 분야 즉 가정 생산 및 비축과 재정 및 자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몇 사람의 말일성도가 어떻게 검소한 생활 목표에 접근하였는가를 보도록 한다. 가정 생산 및 비축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은 우리 모두가 생산하고 그 생산한 것을 비축하도록 권고하였다. 일년치의 물품을 얻기 위해 빚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저금 구좌를 다루듯이 식량 비축을 쌓아 올리도록 계획하십시오. 제반 경비를 지불할 때마다 비축하기 위한 음식을 구입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배 내십시오. 자신의 정원이나 과수원에서 생산한 과일이나 채소로 통조림을 만들거나 병조림을 하십시오.

건조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냉동함으로써 음식을 보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비축을 예산의 한 부분으로 삼으십시오. 종자들을 저장하고 정원에서 일하기 위한 도구를 충분히 가지십시오. 텔레비전

수상기나 혹은 단순히 위안이나 즐거움을 더해 주는 어떤 물건을 장만하기 위하여 저축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그 우선 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하고 지금 실행하기를 권합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비축하기 위하여 선택할 식량의 형태와 양은—가정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처럼 여러 가지로 다양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가정 생산 및 비축의 원리(교회 번역 출판부를 통해 구입이 가능함. 물품번호 PGWE 1125 KO)라는 훌륭한 자원 편람을 준비하였다. 이 도움이 되는 소책자는 광범하고 다양한 실제적인 제안들을 제공한다.

어떤 사람은 “값싸게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살 수 있는데 왜 정원을 갖습니까?”라고 질문할지도 모른다. 가정 생산과 비축의 중요한 열쇠 중의 하나는 기능의 획득이다. 때때로 우리는 값싸게 식량을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소재원 재배 및 기타 가정 생산 계획을 통하여 얻어진 기능과 직관적인 지혜는 그 일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보다 더욱 가치있는 것이다.

지속되는 비상 사태하에서 기본적인



경작, 재봉, 수선, 건축 그리고 생산능력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김소한 생활은 비상 사태가 닥치기 전에 이런 기능을 개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의 단합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된다. 70대 중반인 나산과 하젤 칼더는 조심스럽게 생활하라는 권고에 유의함으로써 풍요와 자립을 누리는 표본이다. 십년 전에 그들은 상록의 관목과 잔디로 가득 찬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들은 스물두 그루의 큰 관목을 뽑아 내고 새 소채원을 개간하였다. 그들은 또 정원에 귀중한 햇빛을 차단하는 두 그루의 큰 나무를 뽑아서 겨울 벨감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해가 열네 그루의 과일나무와 수많은 딸기 및 포도덩쿨과 맛있는 여러 가지 채소와 아름다운 화단을 비쳐주고 있다.

칼더 자매는 여름 캠핑에서 잡은 생선으로 50리터 이상의 통조림을 만들었다. 가을과 겨울에 그들은 함께 누비질하고 크리스마스와 결혼 및 생일 선물에 쓸 가지각색의 수공품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정 생산 기술로 인하여 선물 부문에서 상당히 절약하고 또 상당한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적은 수입으로 살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더욱 자급자족하고 물질적으로 자립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행했습니다.”라고 칼더 형제가 말한다.

리 밀러가족은 그들의 150명 남짓한 정원에서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채소에 관한” 재배법을 배웠다. 여름에는 그들 자신이 가정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먹고 겨울에는 가정 생산 병조림 과일과 야채를 먹는다. (엔사인 1979년 2월 27페이지 참조)

자원의 풍부함이 가정 생산과 비축 성공의 열쇠가 될 때가 흔히 있다. 린다 그린필드와 그녀의 가족이 이웃집의 정원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야채와 교환조건으로 3주간 그의 정원을 돌보기로 동의하였을 때 그 여자는 이들 채소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될는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첫날 오후에 그들은 6개의 큰 쇼핑백에 완두콩을 가득



대희 방문자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 이들 후에는 3개의 큰 세탁바구니에 콩을 가득 담아서 가져왔다. 자녀들은 따내고 청소하고 자르고 통조림하는 것을 도왔다.

21일 동안에 250리터의 콩을 수확한 후 그 이웃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정원을 스스로 돌보게 되었다. 만족과 당황의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린다는 병조림 콩의 줄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우리는 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그 가족은 몇 가지 변화 즉 새 아기, 새 직장, 지역의 다른 부분으로의 이사를 경험하였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으나 사업은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없이 지내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두콩을 먹었습니다.

“완두콩을 요리하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우프, 샐러드, 카세로울, 수플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밀, 쌀 그리고 그외 모든것과 잘 어울렸습니다. 만일 남은 것이 있으면 갈아서 빵을 구울 때 넣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2년 동안 전혀 콩이 실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양에 관하여 교육받아서 알고 있는 상식 이상으로 영양이 있었습니다.” (엔사인 1983년 7월 48페이지 참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고려하고 싶어할 만한 가정 생산품과 비축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소채원을 경작하고 가꾸는 것, 가정에서 통조림을 만들고 건조하고 식품을 냉동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 기본 식량, 의류 가능한 곳에서는

연료의 충분한 양을 비축하는 것 비상 보급용 식수의 비축, 비상 구급 상자의 집결과— 사용법의 숙지, 각종 종자의 비축, 적절한 도구를 보유하는 것.

재정 및 자원 관리

개인과 가족 예산안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중 일부 즉 십일조를 내고 저금을 하고 우리의 재산 한도내에서 생활하도록 조심스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항구적이어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물질적인 것에서 자립함으로써 돈을 저축하는—“자원 관리”인 것이다.

짐과 로살이 쿠퍼가 23년 전에 집을 옮겨 왔을 때 방이 두개 뿐이어서 나중에는 12자녀가 있게 될 가족에게는 충분한 방이 아니었다. 그러나 쿠퍼는 현존하는 집 아래 지하실을 파는 것과 같은 큰 공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전 가족이 진흙을 파내고 시멘트 바닥과 벽을 쌓는 것을 도왔다. 가장 어린 자녀까지도 진흙이 든 작은 물통을 끌어내는 것을 도왔다. 쿠퍼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시작할 용기만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도서관에서 훌륭한 책을 빌어내서 책을 읽고 우리가 일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는 일에 시간을 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을 많이 해야 하지만 우리들 자녀에게 가치있는 일을 가르칠 수 있었으며 아주 작은 비용으로 고급 공사를 해냈습니다.”

쿠퍼 자매는 결혼 초부터 집에서 돈을 아끼도록 노력함으로써 남편의 수입을 보충하였다. “나는 우리를 부양하는 것이 집만의 의무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조해 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라고 쿠퍼 자매가 말한다.

쿠퍼 자매의 재정적인 지혜에는 할인 판매할 때 겨울 옷을, 늦은 봄에, 여름 옷을 가을 늦게 구입하는 것이 포함된다. 쿠퍼 자매는 할인 판매가 언제인지 지켜보고 가끔 식품을 대량으로 구입한다. 자녀에게 바느질을 가르쳤다. 추수기에 이삭줍는 법을 배웠다. 나무에서 떨어진 약간 흠이 난 과일을 기쁘게 듬뿍 주는 농부들이 많다. 그 자매는 “흠을 찢아내는 것은 쉬우며 과일은 맛이 있고 익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네 자녀를 가진 독신 어머니 린다 두에리그도 자원을 잘 관리한다. 그는 자녀들과 함께 몇 가지 신문을 배달하기 위하여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났다. 여섯살 된 아이까지도 신문을 접고 쌓는 것을 돕는다. 자녀들은 신문 배달로 받은 돈으로 십일조를 내고, 선교 사업과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저축하고 대부분의 용돈을 충당했다. 그 자매는 “힘든 일이었으나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단위로 몇 가지 재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목표에 도달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독신 부모인 멕시코 구아사베의 돌리아 로드리구에즈 자매도 자립과 자원 관리의 복지 원리를 여섯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장남, 딸린이 선교사로 나가기를 결정하였을 때 야구르트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설립하였다. 이 사업은 현재 딸린의 선교 사업 비용 충당에 도움이 되며, 큰 자녀들은 이 사업을 돕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용한 재능을 배우고 있다.

여러분과 가족이 토의하고 싶어할 만한 재정 및 자원 관리 목표들로서는 십일조와 현금을 바치고, 적절하게 금전에 예산을 세우고, 수입의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주요 물품 구입 계획을 피하며, 자신의 집을 갖도록 노력하며, 부채를 청산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며 실적과 노후에 대비한

대회 광경



재정적인 안전책을 마련하고 자기 소유물을 잘 관리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은 매일 매일의 자그마한 행위들로 이루어집니다. 음식 예산의 절약은 몇 달러씩으로만이 아니라 몇 센트씩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복 예산은 한 바늘 한 바늘 한 코 한 코 수선함으로써 줄어듭니다. 집은 하나 하나의 못에 의해 잘 손질이 됩니다. 법령이나 강력한 규칙에 의하여 검소한 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소한 가정은 나날이 행해지는 자그마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되면 우리는 꾸준히 조금씩 자기 자신을 훈련하여 그것을 실현시킵니다.” (엔사인, 1980년 11월 86페이지)

자립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은 이들 말세에 검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는 우리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노력에 있어서 주님이 가장 위대한 자원인 것이 틀림없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도움과 인도를 구하여 그것에 좇아서 행동한다면 우리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 *

우리의 자선 봉사를 증가시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 : 시작하는 방법

마침내 아이들이 잠들고 나자 스티븐은 의자에 파묻혀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내일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해야 할 많은 일에 억눌려 있었다.

그가 맡고 있는 4학년 아이들은 금년에 더 많은 노력과 사랑을 쏟아야 하며 조그만 지부의 지부장단 보좌의 부름도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었다. 지부장은 최근에 지부 회원들에게 지역 사회 봉사에 더욱 참여하도록 권고했으며 스티븐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이 모든 필요 사항들을 어떻게 충족시키며 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팔십 세 된 미망인 루이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몇 시간씩 외로이 밖을 내다 보고만 있다. 한때 열심히 활동했던 이 할머니는 대부분 집에 있으며 노환이 다른 사람을 도와 줄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았다.

세상에서 그녀가 선한 일을 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생애에서 큰 기쁨이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공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스티븐 형제와 루이스 자매는 상당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같은 문제, 즉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며 또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우리의 가족, 이웃, 교회, 지역 사회 심지어는 낯선 사람까지 모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와 주는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봉사하는가?

우리는 모두 자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까이 갈 때 그는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다음 질문과 제언들은 봉사하는 방법을 더욱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나의 주변, 즉 가족, 교회, 이웃, 지역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봉사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이며 누가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그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결정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선 순위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권고를 따르므로써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내용의 첫 부분에 나온 교사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요일과 월요일 저녁에 가족을 위해 비워 두라고 제언한 시간의 일부를 가족이 연로한 사람이나 병자를 방문하는 등의 자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했다. 그는 또한 경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낙담한 자의 말을 들어주고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용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자선 봉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약한

자를 북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성 81:5)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를 언제 도와 주어야 할지 아는 문제에 관한 열쇠는 영적인 감각이다.

아놀드 알 어거스틴은 시간을 써야 할 데가 많은 사람이다. 결혼을 하여 어린 자녀가 넷이나 있었으며, 큰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고 직업적으로 바쁜 사람이다.

아놀드는 가능한 한 자신의 봉사를 예상하고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조정하였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행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말씀에 기꺼이 귀기울이려 한다면 그는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과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작고 고요한 음성을 들으면 하던 일을 놔두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영은 문득 그에게 그의 와드의 어느 자매가 수술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그것을 잊었던 것이다. 영은 그에게 “지금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열쇠를 집어들면서 저는 생각했죠. “그녀는 이미 수술을 받는 중일 것이다. 지금 가서 무엇하랴? 수술 후 회복기에 또 방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어쨌든 영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수술이 연기되어 그녀는 아직 병실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으며 수술대 위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논리적인 것에 따르지 않고 영의 속삭임에 따랐던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시간을 써야 할 곳이 많지만 해야 할 일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다. 주님께서 저의

시간 계획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가 저에게 어떤 사람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일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방문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시키실 일을 할 때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2. 나는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다. 어떻게 봉사할 수 있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 기회가 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부름 안에서 사랑과 봉사를 한 잠재 능력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있다. 조 제이 크리스찬슨은 신학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의 부책임자로 봉사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우리가 가정복음 교사이든 서기든, 방문 교사나 어떤 종류의 교사든, 보좌나 감독 또는 어떤 직책이든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만 한다면 하나님께 봉사함에 있어 우리보다 더 크지 않거나 그 부름에 우리가 쏟는 재능보다 더 위대하지 않은 것은 결코 없다고 믿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이 인용함,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봉사임” 엔사인, 1975년 7월호 5페이지)

여섯 자녀의 어머니인 사라 이 힌즈 자매는 영의 속삭임을 통해 방문 교사로서의 부름에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알게 되었다.

어떤 미망인을 방문하는 임무를 받았는데 그에게는 성장한 두 자녀—아들과 딸—가 있었는데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 사라는 수 개월이 지나도록 그 집의 딸 로라를 만나지 못했다.

어느 토요일 상호부조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연사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은 방문 교육을 할 때 진정한 봉사가 되도록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방문한 후 방문자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에 표시하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습니까?”

세미나가 끝난 뒤 사라는 로라가 집에 있을 것을 기원하면서 그 미망인의 집을 방문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로라는 집에 있었다. 사라는 그녀를 상호부조회에 나오도록 권유하라는 속삭임을 들었다.

로라가 다리에 있는 심한 통증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자 사라는 바로 그날 그녀를 병원에 데려 가라는 속삭임을 들었다.

사라는 로라가 갈 체비를 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영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주님께서 곁에서 계시는 듯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은 로라를 위한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순간 구세주의 생애와 가르침이 참으로 단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힌즈 자매는 영의 속삭임을 들음으로써 로라가 다리를 치료하고 특수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받고 돈을 버는 일을 시작하게 해 줄 수 있었다. 자신의 부름에 있어서 봉사할 잠재력을 발견한 한 방문 교사의 노력을 통해 로라는 수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데 지명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대제사요, 일곱 자녀의 아버지인 마이클 라스무센은 도움이 필요했던 때에 이웃이 보여준 친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집에 이사온 첫 여름에 우리는 마당에 잔디를 심을 재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해 여름 잔디를 심을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아들이 대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습니다. 저와 내내는 그 아이의 시중을 들기 위해 또 다른 아이들도 돌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이웃에 사는 사람 여섯이 삼을 들고 저의 집에 찾아 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웃으로 다니며 잔디씨를 모았으며, 20분 쯤 뒤에는 그들이 마당을 다 뺐습니다. 그들은 땅을 고른 다음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미처 다 깨닫기도 전에 그 일을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기꺼이 우리 생활을 축복해 주려고 한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나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많은 방법 가운데 두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3. 나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지만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 것 같다.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성 18:10)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축복해 줄 때 고마워하신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자신의 노력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주님과 우리의 봉사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바치는 노력의 참된 가치를 알고 있다.

엘리자벳 물간은 30세 된 독신녀로서 최근 그녀는 자신의 사회 진출과 가정 밖에서의 봉사에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오지 않는 것을 알고 제가 봉사할 다른 방법을 알게 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저를 지역 사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 영은 그녀를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 즉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연로한 할머니들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웃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로 인도하셨다.

또 어떤 경우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지역 사회 조직으로 인도되기도 했다.

저는 적은 방법으로나마 주위에 있는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성장해서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갔으며 누가 나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알기 위하여 그분의 인도에 주의깊게 귀기울이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크 테일러와 그의 부인 도나는 여러 방법으로 그들이 도와 준 친척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그러한 봉사 가운데 많은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가정은 많은 친척들에게 있어서 온정과 사랑의 항구와 같은 곳이 되고 있다.

테일러 가족은 대도시 근교에 살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는 조카들이 그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해 거처가 필요할 경우 자기 집에서 생활하게 해 주었다. 그들은 매주 집을 떠나 살고 미혼인 조카딸을 가정의 밤에 초대한다. 그들에게는 또 넓은 정원이 있어 아파트에 사는 친척들이 그 정원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하게 해 주었다.

자신의 생애를 주님에 대한 활동적인 봉사에 바쳐 온 매리 프랫 패리쉬는 최근 몇 년 동안 시력 감퇴와 고통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녀는 남은 생애를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거니와 자신의 조상의 역사를 쓰는 일에 몰두한다. 그녀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꺼이 봉사하지 않았다면 그의 후손들은 얼마나 값진 보화를 잃었을 것인가!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의 왕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복해 주는 일을



대회 방문자

망설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다음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부부가 함께 계획하는 시간에 고려해 본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을 늘 가족 평의회 의제의 일부가 되게 한다.

1.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강화하고 돕기 위해 비록 작은 방법이지만 시간을 낼 때 어떤 느낌을 갖는가?

그런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간혹 있나?

여러분에게서 이와 비슷한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2.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봉사의 길은 다른 사람 앞에 놓여 있는 길만큼 가치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 본 일이 있는가? 봉사의 방법과 대상을 알도록 도와 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린 일이 있는가?

3. 가족 각자에 대해 생각해 본다. 각자를 돕거나 격려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지금 곧 시간을 내어 그들의 필요 사항을 알고 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알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

4. 친척들—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사촌, 조카, 삼촌, 숙모, 등은 어떠한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돕는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5. 교회의 부름을 통하여 와드나 스테이크 회원을 위해 어떻게 더 훌륭하게 봉사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여러분이 방문 교육을 하거나 가정복음 교육을 하는 가족이나 개인은 어떠한가? 더욱 온전하게 그들의 생활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6.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간과해 버린 적이 있는가?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과 그들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영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일이 있는가?

7. 지역 사회에서 궁핍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복음 표준과 일치하는 지역 사회의 조직을 통해 봉사할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는 특권

우리의 금식을 향상시킴 : 시작하는 방법

금식 헌금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준다. 최소한의 헌금 액수는 금식하는 동안 먹지 않는 두 끼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러나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더”내라고 권고하셨다. (대회보고, 1974년 4월)

금식 헌금은 궁핍한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

세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어느 미망인은 돈도 없었고 부채가 많았다. 감독은 그녀의 궁핍한 상황을 보고 채권자들에게 사정을 알리는 편지를 썼으며 몇몇 사람은 부채를 상당히 감해 주었다. 그리고 기타 비용은 금식 헌금으로 지불했다. 이 재정적인 도움과 그 이후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계속적인 인도를 받아 그 가족은 자존심을 되찾고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두 아들 모두가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세 자녀는 모두 성전에서 결혼하게 되었다.

또한 주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간증한다. (말 3:10)

이런 축복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다.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헌금을 배로 늘려바친 어느 사람은 “직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일년이 지난 후에 나의 수입은 놀랄만큼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참된 금식에서 오는 가장 훌륭한 축복 가운데는 영적인 것이 있다고 가르쳤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 여호와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만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9,11)

금식을 향상시킴 : 시작하는 방법 금식하는 특권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아이디어를 고려해 본다.

우리가 금식하고 헌금을 바치는 이유에 관한 가정의 밤 공과를 한다. (자료, 헌금에 대한 대회 보고, 가정의 밤 자료집 및 복음 원리 참조)

자녀가 금식하도록 격려하되 강요해서는 안된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여덟살이 되면 한 끼를, 열두 살이 되면 두 끼를 금식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다음 금식을 위하여 구체적인 목적을 택하고 신앙을 결부시킨다. 금식은 기도로 시작하고 끝낸다. 금식 주일에는 가족이 함께 금식 간증회에 참석한다. 금식 주일이 아닌 날에 가끔 함께 금식한다.

금식을 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불리 먹는”것 즉 경전과 현대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토론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친다. 금식 할 수 없는 사람들도(어린이, 환자, 임신부나 수유부)이러한 방법으로 금식의 영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나이가 어리든 많은 자녀에게 금식 헌금을 바치도록 권고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금식 헌금을 십일조와 함께 감독에게 바칠 수 있지만 금식 헌금을 아론 신권 소유자가 배달해 준 금식 헌물 봉투에 담아서 바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이렇게 하면 금식 헌물을 바치는 것은 가족 활동이 된다.

두 끼에 해당하는 것보다 “많이 훨씬 더 많이” 헌금하도록 권유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토론한다. 가족에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바치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꺼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바칠 것을 가르친다. *

대회 광경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와 손녀 메리사 폼스 자매

복지 사업 : 돌보고 주고 함께 나누는 유산

필요 사항은 많고 일꾼은 적지만 우리 현 세대는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인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에 새로운 통찰력과 방법을 더하고 있다. 복지 사업의 50주년을 맞이하여 말일성도는 이 유산을 살펴보는 기회를 주고 다음 두 가지 진리를 확신케 해준다. 기본 원리는 어느 시대에나 불변하지만 그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은 각기 다른 필요 사항과 그 상황에 맞도록 필요에 따라 변한다.

주는 일에 대한 주님의 청사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계시된 복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식량을 구하라고 명하셨다. (창세기 3:19 참조)
2. 사람은 노동의 결실로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5:8)
3. 잉여물로서 때로는 희생하여 자기 식량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모사이야서 4:16-19 참조)
4.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공평하게 되어 영적인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78:5-6 참조)
5.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104:11-12 참조)

이 원리들은 귀중한 유산이다. 그 원리에서 의도한 대로 살면 그 원리는 우리가 고통을 줄이고 인력을 쌓으며 충실한 자들

사이에서 단합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하므로써 이전 경륜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우리의 능력안에 있고 가능성을 깨닫게 해 준다.

예를 들면, 예녹의 도시는 시온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과 함께 그곳에 거하셨다. (모세서 7:16 참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모세서 7:18)

역사는 예녹과 그의 백성들이 성취한 것만을 기록할 뿐이고 그 방법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모범은 여러 시대를 통해 충실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 주었다.

1. 물질적인 관행이 영적인 구원을 복돋아 주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의 세 가지 예를 말해 준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멜기세덱의 백성들(요셉 스미스 역 창세기 14:26-36 참조) 구세주의 지상성약이 끝난 뒤의 신약의 성도들(사도행전 2:44-45; 4:32-37참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은 니파이 백성들(니파이사서 1:2-18 참조)이다.

2. 복지 원리는 시온의 특성을 이룩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해 준다. “저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모세서 7:18) “백성들 간에는 분쟁이 일지 아니하였고”(니파이사서 1:13) “주 저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좇아 살며”(니파이사서 1:12)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니파이사서 1:15)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니파이사서 1:3)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모세서 7:8)

역사가 보여주는 이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며 복원이 시작되기 이전인 이 시대에 적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의 복지와 구원을 위한 기본 원리로 계시해 주셨으며 예녹의 시대 이후로 이 원리는 변경되지 않았다. 다른 여러 문명권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약속된,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았다. 우리도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이와 똑같은 표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법은 필요 사항과 생활에 따라 변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영감받은 사람들이 복지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을 모색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계시해 주셨다. 역사를 보면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를 돌보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방법이 있었지만 그 중 다음 두 가지가 뛰어난 방법들이다. 즉 자선 봉사와 자립이다.

1. 자애로운 마음으로 주는 일과 봉사.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신명기 15:8)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마태복음 5:42) “나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바라노라.” (모사이야서 4:26) “너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방문하여 저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니” (교성 44:6) “부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와 방법에 따라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교회사 4:608)
- 자애로운 마음으로 주는 일과 봉사는 (1) 가난한 자가 고통받지 않게 하며 (모사이야서 4:16-21 참조) (2) 주님께서 부하게 한 자가 충분히 희생하게 하며 (3) 주님의

백성이 세상적인 것에서 평등하여
그들 가운데 영의 일들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게 해준다. (교성
70 : 14 참조)

어떤 경륜의 시대에나 성도들은
그들의 상황에 맞는 주고 봉사하는
방법을 따랐다. 구약의 시대에는
재산과 가축과 수확의 십일조를
현물로 바쳤다. 그 십일조는
제사장인 레위 지파를 부양하고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쓰여졌다. (레위기 27 : 30, 신명기
26 : 12 참조) 고대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밭과 포도원과 과수원의
가장자리와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 두었다. (레위기
19 : 10; 23 : 22; 신명기
24 : 19-22 참조) 안식년(매
칠년째)동안에는 밭이나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그곳에서 나는 것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했다. (출애굽기
23 : 11 참조)

고대와 현대의 성도들은 그들의
재산을 궁핍한 자를 돌보는 데
바쳤다. 신약의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모았으며
이 현금을 교회에서 나누어 주었다.
(로마서 15 : 26 참조) 그들은 또한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쳤다.
(사도행전 4 : 32-37 참조) 교회
역사에서 미주우리주 커틀랜드
시절에 성도들은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국법에 따라” (교성 51 : 6)
증서에 의해 관리 직분을
부여받았다.

말일성도는 후한 금식 현금을
바치고 궁핍한 자를 돌볼 때 이
돌보는 유산을 보존하고 공헌하며
지속할 수 있다.

2. 자 립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췌장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창세기 3 : 19) “제사와
교사들도 병이 낫거나 극히 궁핍한
자들 외에는 모두 자기들의 생계를
위하여 친히 일하게 하였으니
백성들이 모두 이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풍만하신 은혜로 누리게
됨에”(모사이야서 27 : 5)

자립은 복지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일이란 경제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연차 대회 1981년
4월)라고 말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때 자재로운
봉사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성이
말해 준다.

이 경륜의 시대에 궁핍한 자를
돕는 방법에 말일성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해주는
고용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한
방법은 없었다. 협동 교단은 각
사람에게 관리인의 직분과 일할
자리를 줌으로써 모든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교리와 성약
104 : 11-12 참조)

나부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성전, 나부 하우스 건축
및 다른 공공 사업에서 일할 수
있었다. (브르스 디 블루멜,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참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복지 역사,
1830-1980년, 1981년 4월 16페이지,
출판되지 않았음)

브리감 영은 지도자들에게 “일을
시키시오, 과수원, 철도 공사,
하수도 청소, 율타리 수리 등
무엇이든 유용한 일을 하여 음식과
곡식과 생활 필수품을 살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설교집,
12 : 61)

1896년 공황 이후에 또 다시
1920년대 1930년대에 이
비슷하게 고용을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나 교회 회원과 지도자가
창의적으로 출산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립을
권장했다.

교회의 안전 계획—그 시대를 위한 모델

세계를 휩쓴 1930년대의 대공황은
서서히 산업과 상업을 둔화시켰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말일성도가
자신을 부양할 수단이 없이
버려지고 전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돕는 방법을 모색했다.

1935년 무렵 교회의 여러 지역에
있는 신권 지도자들의 획기적인

노력에 의해 실질적인 모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후로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파이오니아 스테이크에서
해롤드 비 리 스테이크 부장의
지시로 시작되었다. 스테이크
회원들은 오래전 집을 다시
수리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대신 수확의 일부분을 몫으로
받도록 계약했다. 스테이크의 몫으로
받은 것은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
팔거나 통조림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헨리 디 테일러 “교회 복지
계획” 참조 1984년 10페이지,
1904에서 1954년까지의 리버티
스테이크의 50년 역사)

1936년 4월 6일 대관장은 교회의
안전 계획을 일부 신권 지도자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금식 현금을
늘이고 안전한 십일조를 요구했다.
그들은 모든 감독에게 “오는 10월
대회까지 금년 겨울에 와드의 모든
가족이 쓸 수 있는 충분한 식량과
의복을 비축해 두며 상호부조회가
이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회 복지 계획에서
인용, 23페이지)

1936년 10월 대회에서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 가능한 한
계으름을 없애고 실업 수당의 악을
추방하며 독립과 산업과 검소한
생활 그리고 자립 정신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확립되게 하는 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돕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일은 우리 교회
회원의 생활을 다스리는 원리로서
그 영광을 다시 얻을 것입니다.”
(연차 대회 1936년 10월)

오늘날의 목표

한때 주로 미대륙 서부 산악
지대에 국한되어 있던 교회는 지금
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때
대부분이 농장이나 이제 그
회원들은 각양 각색의 법과 정부와
조화로 이루어져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러한 세계적 사회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복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복지 사업

노력 역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일깨워 준다.

- (1) 계시된 복지 원리는 최악의 상태로 궁핍할 때나 무한한 번영이 이루어지는 시대나 모두 적용된다.
- (2) 주님께서는 교회 회원들이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된 원리를 적용할 때 가능한 해결 방법을 계시해 주신다.
- (3) 복지 사업의 발전은 개인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주는 일의 깊이와 질적인 것으로 측정된다.
- (4)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 회원의 필요 사항은 지역에서의 출신 수법과 문제 해결책을 요구한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체제를 마련해 줄 수는 없다.

청사진은 변하지 않음

1936년 4월 6일에 시작된 복지 사업에 관해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청사진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는 경전이 있었읍니다. 즉 청사진이 있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델을 그 청사진에 맞추려고 노력해 왔을 따름입니다.” (헨리 디 테일러, 교회 복지 계획, 인용, 1985년 84페이지)

성도들을 구세주의 재림에 따르는 여러 사건에 대비시키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선조들의 성공에 자신감을 갖는다. 자립을 위한 일보의 전진, 자애로운 마음으로 주는 선물과 봉사, 오늘날의 필요 사항을 타개하려는 창의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의 비슷한 노력과 얽혀 있으며 언젠가는 세상을 사랑으로 옷입히고 약속한 시온을 이룩할 것이다. *



합창단과 회중을 지휘하는 제롤드 디 오블리 형제



공중에서 내려본 템플 스퀘어



성도의 빛/1986년 7월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고든 비 할러리 부대관장
제 1 보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제 2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Marion G. Romney



하워드 디블류 터너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헤일든



웬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앨슨



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메라드 이세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회장단





에이더이도터블



프랭클린더리차즈



다이도이엠티블



폴에이치던



하트만렉터이세



로센지던



로버트엘심슨



렉스더피네가



제이토마스파이만스



에드나와이코마즈



조셉비워스킨



진안록



찰즈에이더데이



윌리엄알브레드포드



조지피리



존에이치그로버그



아함두야가



본제이페디스토운



로이론지태릭



로버트이웬즈



제임스엠펜패리모어



휴더블류피녹크



에프엔지오부귀



요시희교기우찌



로널드이포울맨



테릭에이커스버트



맥스지리브일세



에프버룬하워드



테디이브루어룬



인엽아프헤아



론케이카머



러셀시데일리



로버트비하버슨



디비어해리스



스펜서에이치오스본



필립티손버그



존소넨버그



에프아서케이



키트더블류윌루스



빅터엘브라운



에이치브크피터슨



제어리차드클라크



한스비링거



왈도피플



프랜시스엠펜기빈즈



조지아이캐닌



에이치필란앤더슨



에이치에이치리켈



버나드피브록뱅크제임즈에이컬리모어



조셉앤더슨



존에이치반필버그



오레슬리스토운

관리 감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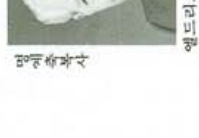
제1보좌



로버트디웨일즈



글렌엘페이스



제2보좌



스티어링디블류질



윌리엄스미스



에이치컬리모어



버나드피브록뱅크제임즈에이컬리모어



조셉앤더슨



존에이치반필버그



오레슬리스토운

명예총장사

